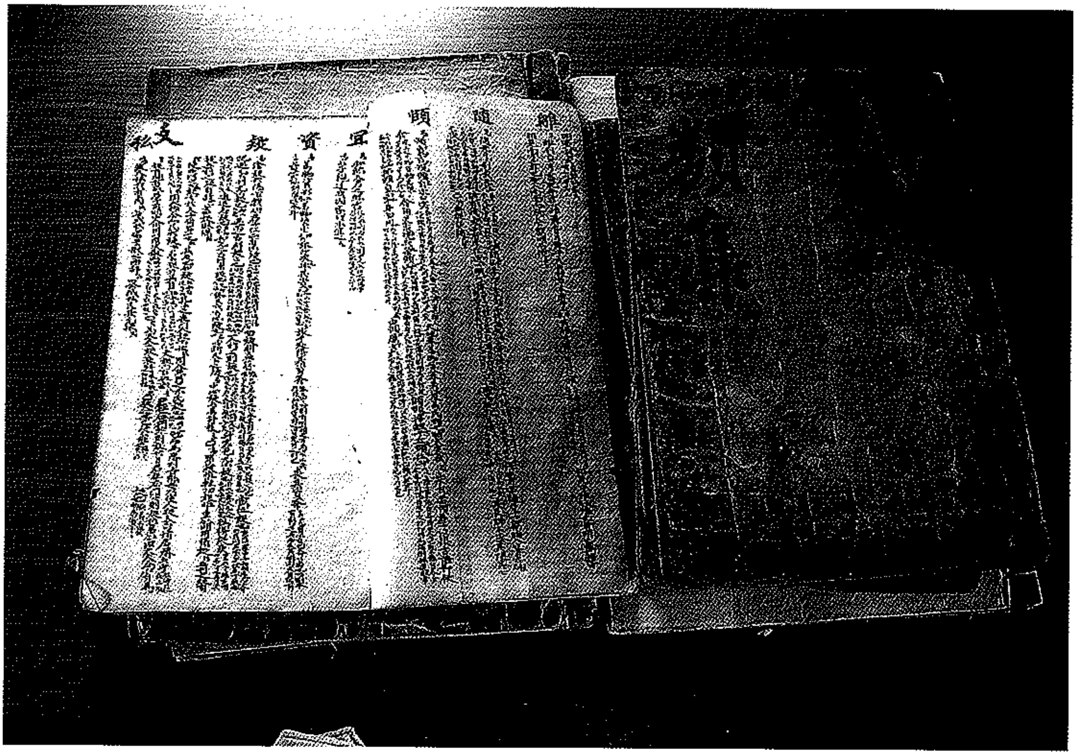
喘翁先生文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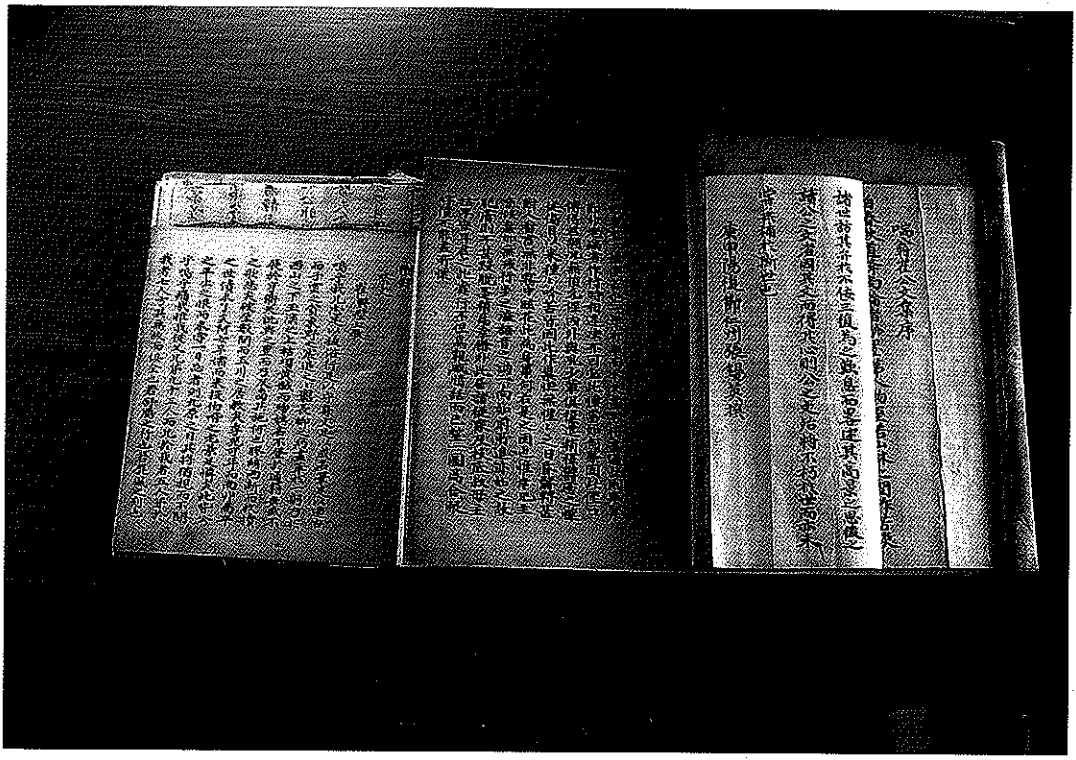
喘翁先生文集 正誤表

頁	行	正	誤	備　考
2	4	攟 군	공란	原文 5p 6行참조
5	1	喘翁先生	文集序 삭제	不必要
24	끝줄	穩 온	檼 은	原文 21p 참조
38	5	집안에	집에	
43	5	寥 료	廖 료	原文 28p 참조
94	1	牀 상	狀 상	原文 44p 2行 참조
115	8	壘 류	壘 누	
148	6	與여求구	與영永구	p65 원본보기
160	끝줄	아이들	이이들	
162	4	表兄(외종 兄)	表兄(고종 兄)	
176	1	檃 은	隱 은	原文78p 1行 참조
223	8	宿 숙	病 병	原文 99p 5行 참조
225	6	寖 침	寢 침	原文 100p 4行 참조
229	6	아침	날과	
232	9	徜 상	倘 당	原文103p 9行 참조
242	2	毅仲 의중	毅中 의중	
265	13	추종	추증	
272	4	篦 록	麓 록	原文 122p 2行 참조
294	9	浹 협	陜 합	
301	1	天年	千年	原文 133p 4行 참조
305	6	牖 유	牑 변	原文 137p 7行 참조
314	8	高弟 고제	高第 고제	

※ 여러 차례에 꼼꼼히 교정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자가 많아 정말 죄송합니다.

문집을 보시다가 오자가 있을시 항시라도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喘翁先生　遺墨

喘천翁옹先선生생文문集집序서

自자春춘秋추道도降강尙상論론者자觚고墨묵第제人인物물至지若약山산林림之지間간作작苦고澹담家가計계老노死사而이無무
悔회者자無무與여焉언噫희道도之지所소以이不불明명而이世세敎교之지所소以이衰쇠也야余여嘗상讀독喘천翁옹先선生생崔최
公공遺유事사竊절歎탄其기從종事사六육經경之지學학而이眞진實실之지志지刻각苦고之지工공有유足족以이補보世세敎교而이
惠혜後후人인而이竟경亦역泯민滅멸窮궁山산遂수不부得득有유爲위於어一일時시也야蓋개公공早조自자齠초齔츤文문藝예夙숙
就취筆필法법勁경健건若약將장長장驅구濶활步보汗한籍적湜식而이跨과鍾종玉옥矣의及급登등百백弗불之지門문深심有유得득
於어主주敬경之지旨지而이並병時시名명碩석如여立립齊제蠹두窩와之지賢현磨마礱롱其기道도義의成성就취其기德덕行행是시
其기躬궁行행孝효悌제推추之지百백度도謹근愼신慈자諒량律률之지繩승尺척不불以이貧빈窶구動동其기心심不불以이夷이險험
易역其기操조一일念념戰전兢긍七칠十십年년如여一일日일要요之지是시淸청修수苦고節절篤독學학力력行행有유非비後후之지

操조觚고之지士사所소可가窺규其기彷방彿불也야當당是시時시也야弗불翁옹秉병拂불於어南남方방爲위後후學학之지山산斗두
而이如여公공之지隱은居거行행義의輩배出출於어其기門문下하一일代대賢현人인之지盛성何하其기壯장也야今금日일域역中중
道도義의亡망而이功공利리行행仁인賢현之지風풍掃소地지而이盡진嗚오乎호其기可가悲비也야公공之지遺유文문散산佚일殆태
盡진而이 拾습其기一일二이詩시書서文문今금若약干간篇편曾증孫손國국述술方방謀모所소以이壽수之지梨이而이公공諸제
世세訪방其기弁변於어不불佞녕三삼復복爲위之지歎탄息식而이略약述술其기高고景경之지思사後후之지讀독公공之지文문者자
因인其기文문而이得득其기心심則즉公공之지文문殆태將장不불朽후於어世세而이亦역未미嘗상無무補보於어斯사世세也야

仁인州주 張장錫석英영撰찬

천옹선생문집서문

성인의 도가 떨어졌음에 옛 사람의 언행을 따른다는 허울 좋은 사람들이 만약 산림에서 어렵게 살다 늙어 죽으면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슬프도다。 도는 밝지 못하고 세교는 쇠퇴해 있구나。 내가 일찍이 천옹선생 최공의 유사를 읽고 그가 육경의 학문에 마음을 다하여 이룬 진실한 뜻과 힘쓴 공부가 세상의 교화를 도우고 후인들에게 베풀 것이 충분했으나 궁한 산중에 묻혀서 한때라도 써보지 못 하였음을 가만히 탄식했다。 공은 일찍이 어릴 때부터 학문과 기예가 이루어졌고 또 필법이 굳세어서 장차 크게 활보하여 적과 식(張籍과 皇甫湜：唐나라의 학자로서 두 사람 모두 韓愈의 門人)을 땀나게 하고 종옥(清나라의 학자인 蔣生芝의 字)을 따라갈 수 있었는지라! 백불암선생 문하에 나아가 깊이 主敬의 공부에 얻음이 있어서 그때의 이름난 선배인 입제(立齋 鄭宗魯)와 두와(蠹窩 崔興璧)같은 어진이와 도의로서 서로 갈고 닦아 그 덕과 행실을 이루었고 그 몸소 효제를 행하여 백가지 법도에 미루어 나가고 근신하고 자량(慈諒)하는 것은 승척(규칙이나 규율을 이름)을 저울로 삼아서 가난하여도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순경

(順境)과 역경(逆境)에서도 그 지조를 바꾸지 않고 한결같이 한마음으로 조심하여 칠십 여년을 하루와 같이 하였으니 요컨대 이렇게 맑게 닦고 굳은 절개와 돈독하게 배우고 힘써 행하는 것은 후세에 문필에 종사하는 선비가 그 비슷함도 엿볼 수 없는 것이더라。 이 때에 백불암 선생께서 남쪽에서 학문을 일으켜 후학들이 태산같이 우러르는 바가 되어 공과 같이 습어서도 의를 행하는 선비가 그 문하에서 나오니 한 시대에서 어진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이 어찌 그리 장하지 않으리오。 오늘날 나라 안이 도의가 없어지고 공(功)과 이익이 앞서서 어질고 어진 풍속이 땅에 쓰러져 다하니 오호라 그것이 슬프도다。 공이 남긴 글이 흩어져 거의 없어지고 그 한 두 가지 시와 서와 문을 주워 모은 것이 이제 약간 편이 되어 증손 국술이 판에 새겨 세상에 공포하기를 도모하여 그 서문을 나에게 부탁하니 세 번이나 감탄하고 대략 그 높이 사모하는 생각을 기록하니 뒤에 공의 글을 읽는 사람은 그 글로 인하여 그 마음을 얻는다면 공의 글이 장차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일찍이 이 세상에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인주 장석영 찬

喘翁先生文集序(천옹선생문집서) …… 一

喘翁先生文集目錄(천옹선생문집목록)

卷之一(권지일)

詩(시)

次金士濬崇默遊聾淵亭韻(차김사준숭묵유농연정운) …… 一九
仁智亭(인지정) …… 二〇
敬次百弗庵先生晬席韻(경차백불암선생수석운) …… 二一
次溫溪李先生延諡時志喜韻(차온계이선생연시시지희운) …… 二一

百弗庵先生輓(백불암선생만) …… 二二

奉次 御題曹節士韻(봉차어제조절사운) …… 二三

把溪寺送族弟用三 興中(파계사송족제용삼 흥중) …… 二四

曉起(효기) …… 二五

呈李聾隱 級(정이농은 급) …… 二六

省親墓(성친묘) …… 二七

謁先師墓(알선사묘) …… 二七

戊申元朝(무신원조) …… 二八

除夜(제야) …… 二九

病中偶吟(병중우음) …… 三〇

漆溪焚黃時鄭士仰 宗魯 李聖哉 東流 諸君因作公山之遊而歸吟贈一絶(칠계분황시정사앙종노이성재동항제군인작공산지유이귀음증일절) …… 三一

齋居夜吟(재거야음) …… 三二
族孫清彦湜盆梅用李穉謙載延韻(족손청언식분매용이치겸재연운) …… 三二
次贈李持國曾臣(차증이지국증신) …… 三四
輓郭魯彦(만곽노언) …… 三五
次小有亭韻(차소유정운) …… 三七
輓族姪毅仲宇鎭(만족질의중우진) …… 三七
明洞曉吟(명동효음) …… 四四
狎鷺亭送別趙佑汝(압로정송별조우여) …… 四四

聖學十圖(성학십도)

太極圖(태극도) …… 四五

西銘圖서명도 …… 四八
小學圖소학도 …… 五〇
大學圖대학도 …… 五三
白鹿洞規圖백록동규도 …… 五五
心統性情上圖심통성정상도 …… 五七
心統性情中圖심통성정중도 …… 五八
心統性情下圖심통성정하도 …… 六〇
仁說圖인설도 …… 六一
心學圖심학도 …… 六三
敬齋箴圖경재잠도 …… 六五
夙興夜寐箴圖숙흥야매잠도 …… 六八

輓族兄草廬公 만족형초려공 興漸 흥점 …… 七〇
次南村宋公 차남촌송공 履錫 이석 進士回榜韻 진사회방운 並小序 병소서 …… 七一
輓南村宋公 만남촌송공 …… 七六
次李晩覺進汝東汲武陵洞八仙詩 차이만각진여동급무릉동팔선시 …… 七九
足成一律 주성일율 …… 八一
次狎鷺亭韻 차압로정운 …… 八二
北溪感舊用先師贈諸生韻 북계감구용선사증제생운 …… 八三
送別從弟士敎 송별종제사교 興壁 흥벽 …… 八四
輓郭善伯 만곽선백 元澤 원택 …… 八六
感懷 감회 …… 八八
庚申除夜 경신제야 …… 九〇

研經觀逝樓前古松爲風雨顚仆(연경관서루전고송위풍우전부) …… 九一
賀贈孫肅玉(하증손숙옥) 星岳(성악) …… 九二
輓趙叔章(만조숙장) 鎭奎(진규) …… 九三
輓鄭幼輝(만정유휘) 東瞻(동첨) …… 九四
步族姪士矩華鎭載藥山韻(보족질사구화진재약산운) …… 九五
先齋與士矩會話(선재여사구회화) …… 九八
壬戌七月旣望敬次從先祖臺巖先生秋字韻(임술칠월기망경차종선조대암선생추자운)(一八〇二年七月十六日) …… 九九
輓李巴江仲綏(만이파강중수) 經祿(경록) …… 九九
次李進汝人道吟(차이진여인도음) …… 一一〇
又次四七吟(우차사칠음) …… 一一一
忍睡(인수) …… 一一二

偶吟(우음) …… 一一三
輓商山李公(만상산이공) 天慶(천경) …… 一一四
避癘(피려) …… 一一七
輓李遲菴聖哉(만이지암성재) …… 一一七
平川入享日志喜寄士教(평천입향일지희기사교) …… 一二一
尹方伯(윤방백) 光顔(광안) 次退陶先生研經書院韻余乃追和(차퇴도선생연경서원운여내추화) …… 一二二

書(서)(편지)

答李進汝(답이진여) …… 一二四
與朴定于(여박정우) 鼎洛(정락) …… 一二七
答郭瑾(답곽근) …… 一三〇

與여士사敎교 …… 一三二
答답士사敎교 …… 一三三
與여士사敎교 …… 一三五
答답士사敎교 …… 一三七
與여士사敎교 …… 一三八
答답士사敎교 …… 一三九
與여士사敎교 …… 一四一
與여淸청彦언三삼 …… 一四二
與여淸청彦언 …… 一四三
與여淸청彦언 …… 一四四
答답淸청彦언 …… 一四五

與族孫稱善孝述(여족손치선효술) …… 一四六
答兒嵒鎭(답아암진) …… 一四八

卷之二(권지이)

雜著(잡저)

中庸箚記(중용차기) …… 一五一
漫錄(만록) …… 一五三
師門記聞(사문기문) …… 一八七
九九日通九會堂文(구구일통구회당문) …… 一九二

序서

百一契序백일계서 ……… 一九六
與浮屠義沾大師序여부도의첨대사서 ……… 二〇〇

記기

遊公山記유공산기 ……… 二〇四

跋발

書趙氏紫石硯記後서조씨자석연기후 ……… 二一一
觀紫巖集관자암집 ……… 二一四

箴(잠)

來雉箴(래치잠) …… 二一七

銘(명)

杖銘(장명) …… 二二〇

頌(송)

巡相尹公光顔遺愛頌(순상윤공광안유애송) …… 二二一
皇華二章章六句(황화이장장육구) …… 二二三

告由文(고유문)

槐軒郭公廟宇開基告文(괴헌곽공묘우개기고문)……二二五

祭文(제문)

祭百弗庵先生文(제백불암선생문)……二二八
祭一庵曹公 采臣文(제일암조공채신문)……二三一
祭淸彦文(제청언문)……二三六
祭從弟景日興旭文(제종제경일흥욱문)……二三九

誄文(뢰문)

誄毅仲文(뢰의중문)……二四二

行狀(행장)

仲兄崇崖公行狀(중형숭애공행장) …… 二四六

卷之三(권지삼)

附錄(부록)

遺事(유사) …… 二六三

行狀(행장) …… 二七五

墓誌銘(묘지명) …… 二八八

墓碣銘(묘갈명) …… 二九七

跋文발문 …………………… 三〇五
後記후기 …………………… 三一三
後記후기 …………………… 三一五

喘천翁옹先선生생文문集집目목錄록

終종

喘翁先生文集卷之一 (천옹선생문집권지일)

詩 (시)

次金士濬崇默遊聾淵亭韻 (차김사준승묵유농연정운)

김사준승묵이 농연정에서 노닐면서 차운(次韻)하다

垂柳長松杳靄中 (수유장송묘애중)
邱園物色爲誰豊 (구원물색위수풍)
客來四月巖花盡 (객래사월암화진)
更攪閑情躡八公 (갱교한정섭팔공)
寒泉餘派此溪中 (한천여파차계중)

수양버들 큰 소나무 아득한 아지랑이 속에 있고
동산 언덕에 비친 물색 누구를 위하여 풍성한고?
손님 오는 四月에 진달래는 다 졌는데
다시 한가롭게 정담을 나누며 八公山에 올랐네!
찬 샘에서 솟는 물은 이 계곡 안에 흐르고

作雨他時歲占豐(작우타시세점풍) 가물 때 비가 오면 그 해는 풍년을 점치리!
誰道工夫徒爲己(수도공부도위기) 그 누구가 공부를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라 말하는고?
爭言經濟且先公(쟁언경제차선공) 경제를 다투어 말하고 또 선공고①를 말하더라。

【주(註)】
①선공(先公): 百弗庵 先生의 夫仁洞約에서의 先公庫를 말함。

仁智亭(인지정)

山回水轉轉崎嶇(산회수전전기구) 물은 산을 휘감고 돌아 힘겹게 흐르고
粧點烟霞第一區(장점연하제일구) 노을진 아늑한 곳에 터 잡으니 경치는 제일가는 곳이라。
欲識先生眞動靜(욕식선생진동정) 선생의 참된 동정을 알고 싶다면

試從流峙本源求(시종류치본원구) 흐르는 물 우뚝한 산을 따라 그 근원을 구해야 함이라。

敬次百弗庵先生晬席韻(경차백불암선생수석운) 공경하는 백불암선생의 회갑연 자리의 차운

達孝先生帝錫年(달효선생제석년) 극진히 효도하는 선생님께 상제께서 나이를 내리시니

窮心喫緊鍊丹仙(궁심끽긴연단선) 온갖 힘을 다해 심신 수양 힘써 마침내 신선이 되셨네!

也知陰鶴深深響(야지음학심심향) 陰鶴처럼 묻혀 있는 훌륭한 선생의 깊고 깊은 뜻을 알았는가?

能徹九重隕自天(능철구중운자천) 능히 구중궁궐을 통하여 하늘에서 스스로 내려왔음이라。

次溫溪李先生延諡時志喜韻(차온계이선생연시시지희운) 온계 李先生이 시호를 이어 받을 때의 뜻을 표한 차운

伯叔河南講道年(백숙하남강도년) 정씨(程氏) 형제분이 하남(河南)에서 道를 강설(講說)할 때

早將生死質之天
조장생사질지천
일찍이 생(生)과 사(死)에 대해 하늘에 질문했었다。

襟操特立千層壁
금조특립천층벽
마음과 절개는 천 층 절벽 위에 우뚝 섰고

學業終成始達泉
학업종성시달천
학업은 마침내 이루어져 비로소 샘물에 통했도다。

聖上傳承恩再降
성상전승은재강
임금께서 내리신 은혜를 거듭 받으니

雲孫感激涕雙漣
운손감격체쌍연
후손들은 감격하여 두 줄기 눈물을 흘리네。

可憐志士千秋感
가련지사천추감
가련하다 지사들이여 긴 세월 회구지감이 있고

留得修名短碣鐫
유득수명단갈전
수양해서 얻은 이름 짧은 비석에 새겨 머무네!

百弗庵先生輓
백불암선생만
백불암 선생을 애도함

學絶嶠南已百年
학절교남이백년
학문이 영남에서 끊어진지 백년이 되었는데

先賢心法復誰傳 (선현심법부수전)
運回公岳眞儒作 (운회공악진유작)
八十工夫體用全 (팔십공부체용전)
平生符訣一方牌 (평생부결일방패)
博約深工敬字知 (박약심공경자지)
永欲琴書溪舍侍 (영욕금서계사시)
遽然楹夢古堂悲 (거연영몽고당비)

선현의 심법을 누가 다시 전하리오!
운이 팔공산에 돌아와 참된 선비 낳으시니
八十 공부는 체(體)와 용(用)이 온전하였도다。
평생의 부결은 한쪽의 경패(敬牌)이니
박문약례 깊은 공부 경자(敬字)에서 알겠도다。
길이 거문고와 책으로서 시냇가 정자에 모시고자 하였더니
갑자기 하관(下棺)하여 꿈인 듯 옛집이 슬프도다。

奉次 御題曺節士韻 (봉차 어제조절사운)

御題曺節士를 받들어 차운하다

判決危機授命人 (판결위기수명인)

위기를 판결하여 사람을 살려준 것은

黃猿太歲越三旬 (황원태세월삼순)
태세(太歲)로 무신년(戊申年)이고 한달(三旬)이 되었음이라。

堂堂有志千夫長 (당당유지천부장)
당당한 뜻이 있어 천(千)사람의 장(長)이 되었고

斷斷無他一介臣 (단단무타일개신)
오직 참되어 다른 뜻이 없는 한낱 신하이네!

英氣不磨應海嶽 (영기불마응해악)
뛰어난 기상은 갈고 닦지 아니 했음에도 바다와 산악에 응하고

聖題模狀是騏驎 (성제모상시기린)
임금께서 모습을 물으시니 이는 기린이라 하셨네!

旌動運値重回甲 (정훈운치중회갑)
공을 표창하는 운이고 거듭되는 회갑이니

巡遠祠堂更見親 (순원사당갱견친)
사당을 멀리서 순찰하며 다시 어버이를 보네!

把溪寺送族弟用三 興中 (파계사송족제용삼 흥중)

파계사에서 집안 동생 용삼흥중을 보내면서

禪窓半月穩開襟 (선창반월은개금)
선방 창문에 걸린 반달은 편안히 흉금(胸襟)을 털어내게 하고

案上朱書日洗心(안상주서일세심) 책상 위의 주자책은 날마다 마음을 씻어주네!

嚶鳥逢春求好友(앵조봉춘구호우) 꾀꼬리는 봄을 맞아 좋은 짝을 구하는데
停雲何事出遙岑(정운하사출요잠) 머물던 구름은 무슨 일로 먼 산마루에서 나오는가?
浮生活計吾猶戀(부생활계오유연) 덧없는 인생은 나도 오히려 간절한데
清界眞緣子未深(청계진연자미심) 맑은 세상 참된 연분은 자네도 깊지 않네!
分手百花樓下去(분수백화루하거) 서로 떨어져서 백화루 아래에서 떠나가니
不勝離恨卻沈吟(불승이한각침음) 이별의 한을 이길 수 없어 조용히 시만 읊고 있다네!

曉起(효기) 새벽에 일어나서 一七八七年

睡覺東窓曙氣生(수각동창서기생) 잠에서 깨어나니 동창에 새벽 기운이 살아나고

천광개처차심명
天光開處此心明
진원홀득성성체
眞源忽得惺惺體
지파조래의필맹
只怕朝來意必萌

맑게 갠 하늘빛 열린 곳에 이 마음도 밝아지네!
참된 근원 문득 얻으니 스스로 깨달은 이 몸
다만 아침이 되면 생각했던 것이 싹틀까 두렵도다。

정이농은급
呈李聾隱 級

李聾隱 級에게 드림

육육봉서숙기다
六六峯西淑氣多
수운심처석인가
樹雲深處碩人家
평생활계시서재
平生活計詩書在
장구소요갱약하
杖屨逍遙更若何

六六봉 서쪽에 맑은 기운 많으니
수풀 우거진 깊숙한 곳에 선비의 집이 있네!
평생 생활은 시(詩)와 서(書)에 있으니
지팡이 짚고 미투리 신고 산책을 다시 함이 어떠한가?

省親墓 (성친묘)

어버이 묘소에 성묘하고

楸栢公山上 (추백공산상) 산소를 팔공산 위에 모시니
星霜二十三 (성상이십삼) 햇수로 二十三년이 되었네!
平生風樹恨 (평생풍수한) 평생 오래 봉양 못한 한이
今日最難堪 (금일최난감) 오늘에 가장 난감하네!

謁先師墓 (알선사묘)

세상을 떠난 스승의 묘를 찾아뵈옵고

先生大寐寤無期 (선생대매오무기) 선생님의 깊은 잠은 깨어날 기약 없으니
吾道嗚呼宿草悲 (오도오호숙초비) 우리의 도가 애달파 잠자는 풀도 슬프도다。

憂窟半年偸暫隙(우굴반년투잠극) 근심 걱정 반년 만에 잠깐 틈을 내어

新春三月展新儀(신춘삼월전신의) 새봄 三月에 새롭게 의례를 펴리라。

戊申元朝(무신원조) 一七八八年 새아침

雲影風光滿目新(운영풍광만목신) 저 하늘과 이 땅의 눈에 띄는 것이 다 새롭고

乾乾天德夜來新(건건천덕야래신) 쉬지 않고 천덕(天德)①이 밤에 와서 새롭구나。

燈前白髮還多愧(등전백발환다괴) 등불 앞에 백발로 돌아온 것이 부끄러우나

教著心身日日新(교저심신일일신) 가르치고 저술하는 심신이 날마다 새롭기를 원하노라。

【주(註)】

①천덕(天德)：만물 생성의 하느님의 덕。

除夜(제야)
그믐날 밤

五十三年醉夢行 (오십삼년취몽행)
空然雙鬢雪莖成 (공연쌍빈설경성)
生來性拙無他技 (생래성졸무타기)
老去謀疎有底營 (노거모소유저영)
稚女欲眠携小枕 (치녀욕면휴소침)
瘦妻多事坐深更 (수처다사좌심갱)
任他志業時俱往 (임타지업시구왕)
枯落窮廬歲暮情 (고락궁려세모정)

五十三年이 취한 꿈속에 가버리고
공연히 두 줄기 구레나룻 수염이 백설(白雪) 이루었네!
타고난 성품이 졸렬해 다른 재주 없고
늙어가도 생각이 소홀하니 무슨 경영 있겠는가?
어린 딸은 자려고 작은 베개 끌어가고
여윈 아내는 일이 많아 깊은 밤에 앉아 있네!
지업은 남에게 맡기고 세월도 함께 가니
몰락하여 가난한 집이 한해를 보내는 정경일세!

病中偶吟(병중우음)

병중에 우연히 읊다。

吟寒一枕動經旬(음한일침동경순)
찬 목침 베고 신음하면서 움직여 열흘을 지나니

白首窮廬倍苦辛(백수궁려배고신)
머리 희고 가난한 집이라 고생은 배가 되네!

油燭久乾愁欲夜(유촉구건수욕야)
기름 등잔 마르지 오래되어 수심 많은 밤이 되려하고

布衾透冷驗將晨(포금투냉험장신)
펴 놓은 이불 차가워 오니 곧 새벽이 되겠구나。

商量方寸全枯木(상량방촌전고목)
헤아려 생각하니 내 마음은 고목이 되었고

點檢傾盎己宿塵(점검경앙기숙진)
기우러진 동이를 살펴보니 이미 먼지가 쌓였구나!

素養縱無顔氏樂(소양종무안씨락)
평소 힘쓴 안씨(顔氏)의 즐거움이 없으나

肯敎憂字病吾眞(긍교우자병오진)
즐겨 우자(憂字)①로 하여금 나의 근본을 병들게 하리오。

【주(註)】

①우자(憂字) : 근심우 자

칠계분황시정사앙종노이성재동항제군인작공산지유이귀음증일절
漆溪焚黃時鄭士仰宗魯李聖哉東沆諸君因作公山之遊而歸吟贈一絶

칠계에서 분황 때에 정사앙과 이성재 제군과 함께 공산(公山)에서 놀이하고 돌아오니 한 절구를 읊어주다。

연하쌍수포선연
烟霞雙袖飽仙緣 아름다운 경치 양 소매에 넣으니 신선과의 인연이 배부르고

소장풍류각과연
少長風流各果然 젊은이와 늙은이의 풍류가 과연 각각일세。

반도상요정미진
半道相邀情未盡 중도에 서로 만나 정을 다 나누지 못하니

막장준주촉귀연
莫將樽酒促歸筵 술단지 다 비웠다고 돌아가라고 독촉 말게。

齋居夜吟(재거야음) 재사에서 거처하며 밤에 읊음

寄寓楸齋久(기우추재구) 추재에 오래 몸을 붙이고 사니
生涯澹一緇(생애담일치) 생애는 담담한 한 중과 같구나。
愁多眠不穩(수다면불온) 시름이 많아 잠 오지 않으니
四月夜支離(사월야지리) 四月의 밤이 왜 이렇게 지루한고!

族孫淸彦湜盆梅用李穉謙載延韻(족손청언식분매용이치겸재연운) 족손 청언의 분매에 이치겸의 운을 쓰다。

山意衝寒忽放榮(산의충한홀방영) 산은 추위를 이겨 갑자기 꽃을 피게 하니
深衣玉色見先生(심의옥색견선생) 옥색 심의(深衣)① 입은 선생을 보았네!

早從臘雪疎疎冷(조종납설소소냉)
羞伴春花的的明(수반춘화적적명)
影畵書牕瘦益好(영화서창수익호)
香專幽室艶誰爭(향전유실염수쟁)
閑來索共巡簷笑(한래색공순첨소)
認得乾坤造化情(인득건곤조화정)
六陰天地一枝榮(육음천지일지영)
氣在孤根苒苒生(기재고근염염생)
疎著輕香元造花(소저경향원조화)
冷垂清影自分明(냉수청영자분명)

일찍이 섣달에 눈이 와서 드문드문 차가운데
부끄러운 듯 봄꽃을 짝하여 환하게 되었구나。
그림자가 서실 창에 비추니 파리한 게 더욱 좋고
향기는 침침한 방에 가득하니 아름다움을 누구와 다툴꼬?
조용히 와서 함께 처마를 돌며 웃으니
천지조화의 실상을 알아 얻었네。
넓은 천지에 한 가지만 영화롭고
기운은 외로운 뿌리에서 나서 무성하게 자랐네。
드물게 나타나는 가벼운 향기는 꽃을 만드는 근본이고
차게 드리운 맑은 그림자는 자신이 분명하네。

幽人趣味春風暖 (유인취미춘풍난)
숨어사는 사람의 취미는 봄바람같이 따뜻하고

處士精神臘雪爭 (처사정신납설쟁)
고요한 선비의 정신 섣달 눈과 다투네。

欲向驛樓相折贈 (욕향역루상절증)
역루에 가고자하는 마음 서로 꺾어서 보내니

樹雲斜日惱遙情 (수운사일뇌요정)
구름 속에 지는 해가 멀리 가는 정을 괴롭히네。

【주(註)】
①深衣：높은 선비가 입던 겉옷。

次贈李持國 (차증이지국) 曾臣 (증신)

이지국에 보내는 운

喜鵲今朝報客來 (희작금조보객래)
오늘 아침 기쁜 까치 소리가 손님 온다 알리니

十年情味一傾盃 (십년정미일경배)
십년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한잔 기우려 보세。

不辭深契清如水 (불사심계청여수)
最羡衰容澹似梅 (최선쇠용담사매)
詩債欲酬詞反澁 (시채욕수사반삽)
前期不易駕何催 (전기불이가하최)
公山最號烟霞勝 (공산최호연하승)
也亦歸人首九回 (야역귀인수구회)

깊은 교제를 사양치 않으니 맑기가 물과 같고
가장 부러운 것은 여윈 얼굴 모습 맑기가 매화 같은 것이더라。
받은 시에 답하려하니 도리어 글이 잘 되지 않고
앞선 기약이 쉽지 않은데 행차는 어찌 재촉하는고?
팔공산 경치가 가장 좋다 이름나서
오고 가는 사람들 아홉 번이나 머리를 되돌려보네。

輓郭魯彦 (만곽노언)

곽노언을 만함

問爾南村相杵兒 (문이남촌상저아)
前宵何事撤舂歌 (전소하사철용가)

묻노니 너 남촌의 방아 찧는 아이는
어떤 일로 어젯밤에 방아 찧는 노래를 걷었는고?

爲言衰草空山土 (위언쇠초공산토)
말하기를 쇠잔한 풀과 비어있는 산흙으로

埋却仁人不忍歌 (매각인인불인가)
어진 사람을 묻어 차마 노래를 못하였다네。

少知其面老知心 (소지기면노지심)
젊어서 그를 만나 늙어서는 마음을 알게 되니

自卜芳鄰誼轉深 (자복방린의전심)
스스로 점쳐서 좋은 이웃 사귀어 정이 깊었네。

丹旐可憐空谷去 (단조가련공곡거)
상여가 빈 골짜기로 가는 것이 가련하고

伊人難作九原深 (이인난작구원심)
저 사람은 저승 집을 짓는 게 어렵겠구나。

難弟難兄樂善人 (난제난형락선인)
형님 아우하며 착한 것을 즐기던 사람들

尋常談笑見天眞 (심상담소견천진)
보통 웃고 말할 때에도 천진함을 보았네!

同年厭世緣何故 (동년염세연하고)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남은 무슨 까닭인고?

難詰冥冥造化眞 (난힐명명조화진)
명명한 조화의 진실을 힐문하기 어렵도다。

次小有亭韻 (차소유정운)

소유정 차운

天圻東南一水廻 (천은동남일수회)
저 멀리 하늘 언덕 동남쪽에서 한줄기 물이 돌아오니

先生亭畔子孫家 (선생정반자손가)
선생님의 정자 가까이에 자손들의 집이 있네。

洞天三十清虛境 (동천삼십청허경)
경치 좋은 곳 三十里는 맑고 깨끗한 곳인데

一任青山歲月過 (일임청산세월과)
한번 청산에 맡겨 세월만 지나가네。

輓族姪毅仲 (만족질의중) 宇鎭 (우진)

족질 의중을 애도함

八公之山鍾淑精 (팔공지산종숙정)
팔공산(八公山)에 맑은 정기가 모여

南有漆水出其側 (남유칠수출기측)
남쪽에는 칠수(漆水)가 있어 그 곁에서 나오네。

漆水逶迤繞一谷 (칠수위이요일곡)
天秘碩人棲息壑 (천비석인서식학)
百弗先生爰得所 (백불선생원득소)
白首窮居養潛德 (백수궁거양잠덕)
先生門有字毅仲 (선생문유자의중)
少小服習家庭學 (소소복습가정학)
頎然而秀粹然美 (기연이수수연미)
志高行潔出流俗 (지고행결출류속)
纔冠北遊宣福間 (재관북유선복간)
大賢遺風聞見熟 (대현유풍문견숙)

칠수는 한 골짜기를 둘러싸며 구불구불 흐르니
하늘이 덕 있는 사람을 살 골짜기로 숨겨놓았네。
백불선생께서 사시는 장소인데
벼슬 없이 궁하게 살면서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덕을 길렀다네。
선생님 집에 이름이 의중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어려서는 가정에 관한 학문을 익혀 배웠다네。
귀가 크고 인물이 뛰어나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뜻이 높고 행실이 맑아 세속에서 벗어났다네。
겨우 성인하고 북쪽으로 예안과 안동 사이에 유학하여
뛰어나게 어진 사람의 남긴 풍습을 듣고 보며 익혔네。

早謝荊圍歸田園 (조사형위귀전원)
箴戒圖書滿四壁 (잠계도서만사벽)
居家無間子孫職 (거가무간자손직)
處族爭推門戶責 (처족쟁추문호책)
婉容上堂起居問 (완용상당기거문)
怡顔入廚甘旨勅 (이안입주감지칙)
志氣平生寬而厚 (지기평생관이후)
許我同人情好篤 (허아동인정호독)
不見則思見則喜 (불견즉사견즉희)
日月相別懷離索 (일월상별회리색)

일찍 가시덤불로 쌓인 곳을 떠나 시골로 돌아와
잠계도서가 사면 벽에 가득 쌓이도록 하였다。
집에 있을 때는 자손들 직분에 차별이 없었고
친척 간에 다투어 문호의 책임으로 추대하였다。
정숙한 자세로 부모님 앞에 나아가 동정을 물었고
순한 얼굴로 주방에 들어 맛이 좋은 음식을 경계했네。
의지와 기개는 평생 너그럽고 두터웠으며
나와 같은 사람을 사귀어 정이 돈독하였다。
못 보면 생각나고 보면 즐거웠고
날로 달로 서로 이별하면 생각을 품었지。

會文幾剪山寺燈 (회문기전산사등)
翫理幾觀溪舍瀑 (완리기관계사폭)
懿親之情兼友朋 (의친지정겸우붕)
切偲之義尋常勖 (절시지의심상욱)
嗟哉毅中宿有疾 (차재의중숙유질)
祟在心腹時時劇 (수재심복시시극)
省姊見女去年行 (성자견녀거년행)
時是至寒寒威觸 (시시지한한위촉)
遊方不與二竪謀 (유방불여이수모)
立命豈料三彭惡 (입명기료삼팽악)

글로서 모이면 몇 번이나 산사(山寺)①의 등불 심지를 끊었으며
이(理)를 배우려고 몇 번이고 계사(溪舍)②의 폭포를 보러갔지。
매우 가까운 친척의 정과 친구의 정을 겸하였고
간절히 힘쓴 의리로 범상하게 도왔도다。
슬프다! 의중은 오랜 병이 있는데
마음과 뱃속에 있어 때때로 심하였지。
누이를 찾아보고 딸을 보려고 지난 해에 갔는데
때가 추울 때라 추위가 몹시 심했도다。
함께 놀 방향은 병마와 더불어 꾀하지 못 하였고
천명(天命)을 따랐으나 어찌 삼팽악(三彭惡)③을 생각했겠는가?

二百里外孤臥枕 이백리외고와침
執手撫膺非親戚 집수무응비친척
神鬼不靈天不助 신귀불령천불조
岐扁縮手無良藥 기편축수무양약
北土儘美非吾鄉 북토진미비오향
誰教君去遐齡促 수교군거하령촉
嗟哉殺仲命矣夫 차재살중명의부
故園迢遞山川隔 고원초체산천격
雪虐風饕十二月 설학풍도십이월
可憐丹旐尋舊屋 가련단조심구옥

二백리 밖에서 외로이 베개 베고 누웠어도
손을 잡고 가슴을 어루만져도 친척만이 아니었지。
귀신도 영험치 않고 하늘도 도우지 않아
기백이와 편작이가 손을 못 쓰니 좋은 약 없었네。
북쪽 땅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 고향 아닌데
누가 자네를 보내어 오래 살지 못하게 재촉했는고?
슬프다! 의중이여 그것도 명일진저。
고향은 멀고 멀어 산천도 막히었네。
눈은 사납고 바람은 몹시 부는 섣달에
가련하다! 상여는 살던 옛집을 찾는구나。

有親在堂有兄老 (유친재당유형노)
孝友至誠難瞑目 (효우지성난명목)
有子有子一未冠 (유자유자일미관)
有女有女號天哭 (유여유여호천곡)
嗟嗟吾道重天去 (차차오도중천거)
欲上蒼蒼訴我臆 (욕상창창소아억)
有足忍踏西州路 (유족인답서주로)
有耳忍聽山陽笛 (유이인청산양적)
九原如作吾從君 (구원여작오종군)
世上誰與開心曲 (세상수여개심곡)

아직 부모님은 살아계시고 늙은 형도 있는데
효도와 우애가 지극하니 진실로 눈감기가 어렵겠구나。
아들은 있어도 아들 하나는 아직 미성인데
딸이 있어 하늘보고 부르며 통곡하네。
슬프고 슬프다! 우리의 길이 멀고 먼 하늘나라로 가니
푸른 하늘에 올라가서 나의 마음을 호소코자 하네。
발이 있어도 서쪽으로 가는 길을 밟는 것을 참았고
산 남쪽에서 부는 피리소리 귀가 있어도 듣는 것을 참았다。
저승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나도 자네를 따를 것이며
세상에서 누구와 함께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을 열겠는가?

萬事嗚呼空已矣(만사오호공이의) 만사가 아! 슬프다 비어 있을 뿐인데

五十年光一風燭(오십년광일풍촉) 오십년 나이가 하나의 바람 앞의 등불인 것을

從古修短皆是命(종고수단개시명) 옛부터 길고 짧은 것 이것이 모두 명인데

終要必死亦何慽(종요필사역하척) 끝내는 반드시 죽으니 또한 어찌 슬퍼하겠는가?

悲來聊寫寂廖詞(비래료사적료사) 슬픔이 오기에 오로지 쓸쓸한 글을 쓰니

嗟哉毅仲何時覿(차재의중하시적) 슬프다! 의중이여 어느 때에 다시 볼 수 있을꼬?

【주(註)】

①산사(山寺) : 절。 사찰(寺刹)。

②계사(溪舍) : 백불암선생께서 강학(講學)하시던 정자(北溪精舍)。

③삼팽악(고복) : 죽은 사람의 혼이 돌아오라고 세 번 복을 부르는 것。

明洞曉吟(명동효음)

명동(現在 대구 동구 도동)에서 새벽에 읊음

聽溜驚殘睡(청유경잔수) 물방울소리 듣고 놀라 덜 깬 잠에서 일어나

開窓雨始晴(개창우시청)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개이기 시작하네。

澗松猶臘色(간송유납색) 시냇가 소나무는 아직 겨울 빛깔 같은데

山鳥已春聲(산조이춘성) 산새는 이미 봄소식을 전해주네。

狎鷺亭送別趙佑汝(압로정송별조우여)

압로정에서 조우여를 송별하면서

携過長郊到狎亭(휴과장교도압정) 손잡고 넓은 들길을 지나 압로정에 도착하니

老來分手倍餘情(노래분수배여정) 늙어가며 서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니 남은 정이 배가 되네。

多病近年常掩戶 (다병근년상엄호)
乘閑相訪勖諸兄 (승한상방욱제형)

병이 많아 근년엔 항시 대문을 닫아 놓았는데
한가한 틈을 내어 제형들이 서로 찾아 와 주었지。

聖學十圖 (성학십도)

太極圖 (태극도)

恭惟上天載 (공유상천재)
元亨而利貞 (원형이이정)
易前元有易 (역전원유역)
形上卽無形 (형상즉무형)

삼가 생각하니 하늘에 실린 것은
원(元)과 형(亨)이며 이(利)와 정(貞)이다。①
역서(易書)가 있기 전에 원래 역(易)이 있었고
형체(形體) 위에는 곧 형체(形體)가 없었다。

馬圖嗟迹矣 (마도차적의)
龜書誰復成 (구서수복성)
孔聖贊羲畫 (공성찬희화)
始以太極名 (시이태극명)
雖然沒貌狀 (수연몰모상)
造化無由明 (조화무유명)
混淪神妙體 (혼륜신묘체)
濂翁覰得精 (렴옹처득정)
立象無中象 (입상무중상)
天機太露呈 (천기태로정)

마도(馬圖)②는 먼 것을 슬퍼하고
귀서(龜書)③는 누가 다시 이루겠는가?
공자가 복희씨(伏羲氏) 그림을 도와
처음으로 태극이라 이름 지었네。
그러나 모양이 없어서
조화(造化)④를 밝힐 수 없네。
혼돈된 신통한 모습은
렴옹⑤께서 엿보고 정미함을 얻었네。
상(象)⑥을 세웠으나 중상(中象)⑦은 없고
하늘의 기밀이 크게 드러나는구나。

變合二互根(변합이호근) 변(變)과 합(合) 둘이 서로 근간이 되어

生成五爲行(생성오위행) 오행(五行)⑧을 만들어 사물이 생겨나게 되었네。

氣化與形化(기화여형화) 기(氣)가 화(化)해서 같이 형(形)이 되고

各正這性情(각정저성정) 각각 이것이 성(性)과 정(情)이구나。

分明揭極圈(분명게극권) 분명하게 태극권을 걸어서

萬古開昏盲(만고개혼맹) 만고(萬古)에 어리석어 사리에 어두운 것을 개화시켰네。

【주(註)】

①원형이정(元亨利貞) : 하늘이 갖추고 있는 네 가지 덕。 즉 사물의 근본도리。

②마도(馬圖) : 黃河에서 龍馬가 가지고 나왔다는 그림。

③귀서(龜書) : 洛水에서 나온 거북의 등에 쓰여 있었다는 글。

④조화(造化) :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신통하게 된 사물。

⑤렴옹(濂翁) : 周濂溪。

⑥상(象) : 형상。

⑦중상(中象) : 가운데 상。

⑧오행(五行)：우주 만물을 형성하는 다섯 원기。金木水火土。

西銘圖(서명도)

茫茫兩儀間(망망양의간)
渾是一理氣(혼시일리기)
稟賦無物我(품부무물아)
分殊有賤貴(분수유천귀)
孰非乾坤子(숙비건곤자)
君相摠經緯(군상총경위)
親親及人物(친친급인물)

넓고 넓은 하늘과 땅 사이에
이름은 다르나 본래 같은 것
타고나기를 물아(物我)가 없는데
신분에 귀천이 있네。
누구나 다 건곤(乾坤)①의 아들이지만
군(君)과 상(相)②이 모두를 거느리네。
어버이를 친함으로부터 딴 사람에게 미치는 것은

鄒聖曾有謂(추성증유위)
四海皆兄弟(사해개형제)
其理隱且費(기리은차비)
鰥寡彼可哀(환과피가애)
疲癃吾所慨(피륭오소개)
盡道求道地(진도구도지)
聖賢能事旣(성현능사기)
事天如事親(사천여사친)
竭誠致兢畏(갈성치긍외)
萬殊元一本(만수원일본)

맹자(孟子)께서 일찍이 말씀 하시기를
온 천하가 다 형제인데
그 이치는 은미하면서 또한 광대하도다。③
홀아비 과부 모두 슬프고
나는 병들어 피곤하여 한숨짓네。
도(道)를 다하여 도(道)를 구하는 곳에
성현께서 능히 일을 다 하셨네。
하늘 섬기기를 어버이 섬기듯 하면
정성을 다하여 삼가하고 두려워함을 이를 것이다。
여러 가지로 달라도 근본은 한 근본이니

聖訓誠有味 (성훈성유미)
성인의 가르침은 참으로 진미가 있네。

仁體惟在此 (인체유재차)
어진 몸뚱이는 오직 여기에 있는데

世人知也未 (세인지야미)
세상 사람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주(註)】

①건곤(乾坤) : 하늘과 땅。

②군(君)과 상(相) : 임금과 정승。

③중용(中庸)에 비이은(費而隱)에서 나온 말。

小學圖 (소학도)

嘗觀大易訓 (상관대역훈)
일찍 대역훈(大易訓)①을 보니

蒙養作聖功 (몽양작성공)
계몽하고 교양하는 일은 성인들의 공로이고

孩提彼何知(해제피하지)
秉彝自降衷(병이자강충)
因物與物化(인물여물화)
蚩蚩擧世同(치치거세동)
聖人有憂之(성인유우지)
設敎將發蒙(설교장발몽)
稚齡甫八歲(치령보팔세)
入學牖其聰(입학유기총)
灑掃應對節(쇄소응대절)
明倫敬身工(명윤경신공)

어린이 저들이 무엇을 알겠는가?
따뜻한 천성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내려왔다。
물건으로 인하여 물건과 함께 변하고
어리석고 추함은 온 세상이 똑같도다。
성인께서 걱정하시여
가르침으로 어리석음을 깨우쳤도다。
어린 나이 팔세가 되면
입학시켜 그 총명함을 인도 하여
물 뿌리고 쓸며 읍하고 대하는 예절과
인륜을 밝히고 몸을 공경하는 공부를 시켰도다。

長無捍格憂(장무한격우)
幼作孝悌童(유작효제동)
明新雖大道(명신수대도)
德業由此崇(덕업유차승)
培根達枝法(배근달지법)
本之胎敎中(본지태교중)
嗟嗟紫陽翁(차차자양옹)
千古敎不窮(천고교불궁)

자라며 서로 싸우는 걱정 없게 하고
어려서부터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에 우애 있는 어린이로 키웠도다。
밝고 새로운 것이 비록 사람이 지켜야할 바른 길이나
덕과 업은 이것으로 연유하여 높아지도다。
뿌리를 북돋우고 가지를 잘 가꾸는 법은
본시 태교부터가 중요하도다。
아! 아! 자양옹이여
오랜 세월에 걸친 가르침은 끝이 없도다。

【주(註)】

①대역훈(大易訓): 周易의 가르침。

大學圖 (대학도)

大人有大學 (대인유대학)
其道何處在 (기도하처재)
修明一身上 (수명일신상)
治平四海內 (치평사해내)
由天氣不齊 (유천기부제)
致人性或昧 (치인성혹매)
君師立教法 (군사립교법)
牖彼蚩蚩輩 (유피치치배)

덕이 높은 사람에게 대학이 있으니
그 도는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몸을 밝게 닦아
온 세상을 잘 다스리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라。①
하늘에 연유한 기는 같지 않으며
사람 되게 하는 성은 혹 어둡기도 하네。
군사(君師)②께서 가르치는 방법을 세워서
저 어리석고 어리석은 무리들을 인도하도다。

綱三體用備 (강삼체용비)
條八知行對 (조팔지행대)
知止方能得 (지지방능득)
始終不相悖 (시종불상패)
聖學惟在此 (성학유재차)
天下寧復晦 (천하영부회)
紫陽一敬字 (자양일경자)
昭昭詔千載 (소소조천재)

삼강(三綱)③은 체용(體用)④이 갖추어 있고
팔조(八條)⑤는 지행(知行)⑥이 짝을 이루었네。
그침을 알고 방법을 능히 얻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어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성인의 학문이 오직 여기에 있으니
천하가 어찌 다시 어두워지리오。
주자의 공경할 경자(敬字) 하나는
천년을 두고 밝게 가르쳤도다。

【주(註)】

①치평(治平) : 治國平天下。
②군사(君師) : 임금과 스승。
③삼강(三綱) : 明明德、 親民、 止於至善。

④체용(體用)：사물의 본체와 그 작용。
⑤팔조(八條)：①格物 ②致知 ③誠意 ④正心 ⑤修身 ⑥齊家 ⑦治國 ⑧平天下
⑥지행(知行)：지식과 행위。

白鹿洞規圖(백록동규도)

聖人教人術(성인교인술) 성인의 사람 가르치는 방법은
不出天之秩(불출천지질) 하늘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契敷已云邈(설부이운막) 설이 펴낸 오교(五教)는 이미 멀어졌는데
孟訓餘方冊(맹훈여방책) 맹자의 가르침은 책자에 아직도 남았도다。
晦翁惟斯惻(회옹유사측) 회옹께서는 오직 이것을 슬피 여겨
思革詞章學(사혁사장학) 사장학(詞章學)①의 혁신을 생각하셨다。
睠彼南康北(권피남강북) 저 멀리 남강(南康)의 북쪽을 돌아보니

有洞名白鹿(유동명백록) 동리(洞里)가 있어 백록동(白鹿洞)이라 하도다。

遠述三代法(원술삼대법) 멀리 삼대법(三代法)을 지었고

條列五敎目(조렬오교목) 오교목(五敎目)의 조례(條例)를 만들었도다。

窮修有要訣(궁수유요결) 궁리수신② 하는 것은 요결(要訣)이 있고

篤行在事物(독행재사물) 독행은 사물에 있도다。

規模旣纖悉(규모기섬실) 규모도 아주 섬세하게 다 갖추었고

次第自有別(차제자유별) 차례도 스스로 차별이 있었다。

是乃爲學則(시내위학칙) 이것이 배움에 대한 규칙이 되어

彝倫從此立(이륜종차립)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는 이를 따라 세웠도다。

奚徒學者習(해도학자습) 어찌 한갓 학자의 익힘 뿐 이리요?

亦爲帝王式 역위제왕식
이 또한 제왕(帝王)의 법(法)과 제도가 될 것이니。

煌煌揭楣側 황황게미측
번쩍번쩍 빛나게 문설주 곁에 걸어두고

諸君須勉力 제군수면력
제군들은 모름지기 힘써 노력하게나。

【주(註)】

①사장학(詞章學)：文章과 詩歌。

②궁리수신：사물을 깊이 연구하고 몸을 닦는 것。

心統性情上圖 심통성정상도

惟皇降衷理 유황강충리
오직 임금님이 내려주신 착한 이치는

虛靈主一躬 허령주일궁
마음이 한 몸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五德體已具 오덕체이구
오덕(五德)①을 몸에 이미 갖추었으니

四端用不窮(사단용불궁) 사단②은 아무리 사용해도 끝이 없다。
靜時鏡面寂(정시경면적) 고요할 때는 거울의 비치는 면도 조용하고
感處天下通(감처천하통) 감동할 때에는 천하에 통한다。
方塘半畝開(방당반무개) 네모진 연못이 반 이랑 정도 열리니
月星涵其中(월성함기중) 달과 별이 그 속에 잠긴다。

【주(註)】

①오덕(五德): 온화 양순 공손 검소 겸양。
②사단(四端): 인의예지(仁義禮智)에서 우러나는 측은 수오 사양 시비의 네 가지 마음씨。

心統性情中圖(심통성정중도)

有生卽有性(유생즉유성) 생(生)①이 있으면 곧 성(性)②이 있다고

鄒聖每稱善(추성매칭선)
맹자님은 매번 성선(性善)을 말씀하셨다。

旣具虛靈體(기구허령체)
이미 허령(虛靈)의 몸을 갖추고 있으니

是有知覺顯(시유지각현)
여기에 스스로 깨달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善機始摭發(선기시척발)
좋은 기틀을 비로소 어루만져 드러낸다면

天理不曾舛(천리부증천)
하늘의 이치가 일찍이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四七動靜妙(사칠동정묘)
사단칠정(四端七情)③의 행동의 묘미는

揭以方寸圈(게이방촌권)
마음속에 걸어 놓고 있다。

【주(註)】

①생(生)：삶。

②성(性)：마음。

③사단칠정(四端七情)：인의예지(仁義禮智)와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

心統性情下圖(심통성정하도)

靈臺澹而虛(영대담이허)
마음은 담백하게 비어있어

自有性與情(자유성여정)
스스로 성(性)①과 정(情)②을 가지고 있다。

是性本一理(시성본일리)
이 성(性)은 근본이 하나의 리(理)인데

因氣有二名(인기유이명)
기(氣)로 인하여 둘이 되었다。

理發氣發際(이발기발제)
이(理)가 발(發)하고 기(氣)가 발(發)할 때

或乘或隨行(혹승혹수행)
어쩌면 타고가고 어쩌면 따라간다。

惟其有所統(유기유소통)
오직 거기에 통제하는 곳이 있으면

中和能致亨(중화능치형)
중화③되어 능히 모든 일 뜻과 같이 잘 되어 갈 것이다。

【주(註)】
①성(性): 마음。
②정(情): 뜻。
③중화: 성정이 치우침이 없이 올바름。

仁說圖 (인설도)

赤心滿腔子 (적심만강자)
中和全德備 (중화전덕비)
至公無己私 (지공무이사)
體元涵庶類 (체원함서류)
斯爲萬善長 (사위만선장)
首居四德位 (수거사덕위)

붉은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찼으니
속이 화하여 모든 덕을 갖추었다。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고
체(體)의 근원은 여러 종류들을 천천히 키워갔다。
이것이 온갖 착한 일의 으뜸이 되어
사덕(四德)①의 첫째 자리에 있도다。

孝悌則其一 (효제즉기일)
惻隱貫乎四 (측은관호사)
渾全無不統 (혼전무불통)
其理原天地 (기리원천지)
坱圠生物心 (앙알생물심)
溫厚愛人意 (온후애인의)
性情動靜殊 (성정동정수)
偏專分合異 (편전분합리)
聖人答問間 (성인답문간)
言殊旨一致 (언수지일치)

효제(孝悌)②가 바로 그 하나이고
측은(惻隱)③이 사덕을 꿰었도다。
전부가 뒤섞여도 통일되지 않음이 없으니
그 이(理:이치)는 근본이 하늘과 땅에 있다。
한없이 넓고 아득한 모양은 생물의 마음이요
온후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뜻이로다。
성(性)과 정(情)은 움직이고 고요한 것이 다르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온전한 것은 나뉘고 합하는 것이 다르도다。
성인들께서 묻고 답하는 사이에
말은 다르지만 그 뜻은 일치한다。

克服是工夫(극복시공부) 이겨내는 것 이것이 공부요

俯仰同純粹(부앙동순수) 하늘을 우러러 보고 땅을 굽어 보아도 순수함은 한가지라。

自說又自圖(자설우자도) 스스로 설명하고 또 스스로 그려서

發明人道秘(발명인도비) 사람의 도리의 신비함을 알았도다。

【주(註)】

①사덕(四德)：인의예지(仁義禮智)。

②효제(孝悌)：효도와 우애。

③측은(惻隱)：가엾고 애처로움。

心學圖(심학도)

古聖垂至訓(고성수지훈) 옛 성인들이 지극한 훈계를 전하되

爲學惟在心(위학유재심) 학문을 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다고 하였다。

心兮本虛靈 (심혜본허령)
마음은 본시 허령(虛靈)하여

實與天地三 (실여천지삼)
실로 천지와 함께 삼재가 되었도다。

寂感殊地頭① (적감수지두)
정적(靜寂)과 감응(感應)은 다르나

體用從可尋 (체용종가심)
체와 용은 따라서 가히 찾겠도다。

赤子是良知 (적자시양지)
갓난 아이는 이를 잘 알고

大人全本忱 (대인전본침)
어른은 오로지 정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端由道與人 (단유도여인)
단유하는 도와 사람은

精一然後堪 (정일연후감)
아주 세밀하고 순수하여 그러한 뒤에 참고 견딘다。

工夫在何處 (공부재하처)
공부는 어디에 있는가?

克己是頂針 (극기시정침)
극기(克己)②가 제일 좋은 방침이다。

靜觀靈臺妙(정관영대묘)　조용히 영대(靈臺)③의 교묘함을 보고
期遏人欲侵(기알인욕침)　사람이 욕심의 침입함을 막아야 한다。
爾心豈敢貳(이심기감이)　너희 마음은 어찌 감히 둘이냐?
儼若上帝臨(엄약상제임)　의젓하고 엄전한 것은 상제(上帝)④를 보는 것 같도다。

【주(註)】
①지두(地頭) : 지위、 위치、 영역 등을 말함。
②극기(克己) : 자기의 욕망을 의지의 힘으로 눌러 이김。
③영대(靈臺) : 마음。 ④상제(上帝) : 하느님。

敬齋箴圖(경재잠도)

聖學傳心訣(성학전심결)　성인(聖人)의 학문이 전하는 마음의 비결은
一字貫終始(일자관종시)　한 글자로 시종 관철하였다。

傳稱執事要(전칭집사요)
易贊直內以(역찬직내이)
靜中旣不違(정중기불위)
動中靜亦是(동중정역시)
容貌辭氣間(용모사기간)
粲然存天理(찬연존천리)
衣冠勅其外(의관칙기외)
思慮整其裡(사려정기리)
惺惺存此心(성성존차심)
要活不要死(요활불요사)

경전에서는 일을 처리하는데 요긴함을 일컫고
주역에서는 안을 곧게 하는 까닭을 밝혔다。
조용할 때에도 이미 어기지 않았으니
움직일 때도 조용할 때와 같이 역시 어기지 않는다。
얼굴 모습과 말하는 기운 사이에도
조촐하고 산뜻한 천지자연의 이치가 있다。
의관은 그 외면을 신칙하고
생각은 그 이면을 정리한다。
깨달아서 이 마음을 보존하면
삶을 구하고 죽음을 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儼然如畏地(엄연여외지)
虛明萬變視(허명만변시)
莫敎慢慢了(막교만만료)
須令緊緊底(수령긴긴저)
毫釐或間差(호리혹간차)
天壤換尺咫(천양환척지)
排列示工程(배열시공정)
煥然敬字旨(환연경자지)

엄연히 두려운 곳 같아서
환하게 밝아서 만 가지 변화를 보도다。
천천히 느리게 하도록 하지 말고
모름지기 긴장하게 할 것이다。
털끝만큼의 차가 혹 생기면
하늘과 땅도 짧고 가까운 거리로 바뀐다。
배열(排列)하여 공정(工程)①을 보이니
경자(敬字)의 뜻이 환하게 드러난다。

【주(註)】

①공정(工程)：일이 진척되어 가는 과정。

夙與夜寐箴圖 (숙여야매잠도)

古人作聖功 (고인작성공)
옛날 사람들이 성스러운 공적을 만든 것은

無時匪工夫 (무시비공부)
때를 정하지 않고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聞鷄大舜孜 (문계대순자)
닭 우는 소리 들으면 대순(大舜)①은 부지런히 일하였고

惜陰夏禹懼 (석음하우구)
시간 아끼는 것은 하우씨②도 두려워 했는데

方寤思漸馳 (방오사점치)
바로 잠이 깨이면 생각은 점점 달아나고

旣興心或麤 (기흥심혹추)
이미 일어나서는 마음이 혹 거칠고 조잡해지기도 하겠지。

道在日用間 (도재일용간)
도(道)는 날마다 쓰는 사이에 있는데

寧可間須臾 (영가간수유)
어찌 가히 잠시라도 사이를 두겠는가?

枕邊省己愆 (침변성기건)
案上求聖謨 (안상구성모)
整襟齊思慮 (정금제사려)
對越一誠孚 (대월일성부)
虛明一腔裡 (허명일강리)
湛然體用符 (담연체용부)
萬變當理酬 (만변당리수)
事已卽古吾 (사이즉고오)
齊莊振夕昏 (제장진석혼)
待夜方舒軀 (대야방서구)

베개 가에서 나의 허물을 반성하고
책상 위에서는 성인의 하시는 일을 구하네。
옷깃을 여미고 생각을 바르게 하며
천지신명에 대하여는 정성과 믿음을 한결같이 하네。
허명한 이 몸속에
즐겁게 체(體)와 용(用)이 부합하였도다。
만 가지 변화를 이치에 맞게 수작하니
일을 마치니 곧 옛날의 나이로다。
엄숙하고 단정하여 저녁의 어두움을 떨치고
밤을 기다려 이제 몸을 펴려고 하네。

澹澹萬慮息(담담만려식) 담담하게 많은 생각을 쉬려고 하니
谷神宅靈郛(곡신택령부) 곡신(谷神)③과 택령(宅靈)④이 사는 성곽 밖이라네。

【주(註)】
①대순(大舜)：舜임금。
②하우씨：하임금과 우임금。
③곡신(谷神)：골짜기신。
④택령(宅靈)：집귀신。

輓族兄草廬公(만족형초려공) 興漸(흥점) 일가 형 초려 공을 애도함

臺峀蒼蒼揷半空(대수창창삽반공) 대암은 푸르고 푸르러 반공에 꽂혔는데
幾年停毓降生公(기년정육강생공) 몇 해를 머무르고 길러 공(公)을 낳았는고?
眉間剗盡英豪氣(미간잔진영호기) 눈썹 사이에는 영호한 기운을 깎아 다하고

좌처단성예법궁
坐處端成禮法躬
앉은 자리에는 단정하게 예법의 몸을 이루었네。

성본백원향당경
性本百源鄕黨敬
성품은 백원(百源)①을 근본으로 하여 시골 마을에서는 존경 받으며

학론천성제형동
學論千聖弟兄同
학문은 많은 성인들을 토론하되 형제가 함께 하였도다。

청산일와경륜사
靑山一臥經綸士
청산에 경륜 있는 선비가 한번 누우니

인세공유식자통
人世空留識者恫
인간 세상에서 아는 사람의 슬픔을 머물게 하네。

【주(註)】

①백원(百源)：孝行。

차남촌송공이석진사회방운 병소서
次南村宋公履錫進士回榜韻 並小序

남촌 송공 이석①이 진사(進士)에 급제(及第)한지 예순 돌의 차운과 짧은 서문(序文)

연향지락가침이하경지시서작언자당송이하소인지주타이옥음
燕饗之樂歌寢而賀慶之詩序作焉自唐宋以下騷人之珠唾而玉音

者자俱구不불過과七칠八팔十십壽수觴상而이已이曾증未미見견贊찬美미回회榜방者자則칙回회榜방之지慶경豈기非비罕한有유於어今금古고者자乎호進진士사梅매陽양宋송公공早조喜희古고書서以이詞사賦부擅천肅숙廟묘辛신丑축登등上상庠상

今금上상五오年년卽즉其기周주甲갑也야是시年년月월日일其기伯백胤윤進진士사以이稱칭慶경聞문於어知지舊구少소長장咸함集집絃현歌가秩질作작眞진盛성事사也야公공以이青청衫삼幞복頭두將장奠전廟묘伯백胤윤亦역如여之지諸제弟제諸제子자先선後후舞무而이陪배之지人인之지望망之지若약神신仙선焉언公공拈념挑도字자韻운敍서其기懷회和화而이歌가之지者자甚심衆중月월城성崔최興흥岦립聞문而이壯장之지曰왈人인生생百백年년之지間간能능免면苦고海해光광景경康강寧영而이好호德덕者자誠성難난矣의獨독公공有유之지而이又우添첨一일慶경若약使사能능辭사者자善선鳴명當당日일之지盛성美미鏗갱鏘장而이爲위音음則즉可가以이補보笙생鏞용之지治치可가以이贊찬鳶연魚어之지化화也야獨독恨한夫부李이杜두韓한柳유輩배生생不불並병時시如여吾오蚓인呌규之지響향猶유能능濡유雕조虫충之지毫호豈기不불爲위盛성事사之지一일大대欠흠也야耶야詩시曰왈

잔치의 즐거운 노래 소리가 잠잠해지고 경사를 축하하는 시(詩)와 서(序)를 짓게 되었다。 당(唐)나라와 송(宋)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주옥(珠玉)같은 시(詩)를 짓는 사람은 모두 七八十세의 오랜 삶을 축하하는 수연잔치 뿐이고 회방(回榜)②을 찬미하는 사람은 아직 못 보았으니 회방(回榜)의 경사가 어찌 고금(古今)에 드물게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진사매양송공(進士梅陽宋公)은 일찍 고서(古書)를 즐겨 사(詞)③와 부(賦)④로써 드러나서 숙종(肅宗) 신축(辛丑: 一七二一年)에 진사(進士)가 되었으니 지금 상감(正祖)의 五年(一七八一年)이 六十年이 된다。 이 해 어느 날 그 맏아들 진사(進士)가 경사 날이라 하여 친구들에게 알리니 젊은이와 늙은이들이 모두 함께 모여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차례대로 부르니 참으로 성대한 행사였다。 공(公)이 푸른 적삼에 복두를 쓰고 곧 사당에 전(奠)⑤을 올리려하니 맏아들도 또한 같이 하였으며 여러 아우들과 여러 아들들이 앞뒤로 춤을 추며 따라가니 사람들이 바라보기를 신선과 같다고 한다。 공(公)이 자운(字韻)을 집어내어 글을 지어 회포를 푸니 여기에 화답하여 노래 부르는 자가 아주 많았다。

경주최(慶州崔) 흥립(興岦)은 듣고 장(壯)하다며 말하기를 『인생(人生)

은 백년(百年) 그 사이에 능히 괴로운 인간 세상의 광경을 면하고 편안하고 건강하며 덕(德)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는 참으로 어려운데 유독 공(公)만이 있으며 또한 경사가 겹쳤으니 만약에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을 시켜 그 날의 성대한 아름다움을 잘 설명하고 금옥(金玉)의 소리를 낸다면 가히 생용(笙鏞)의 정치에 보조가 될 것이며 가히 연어(鳶魚)의 조화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유독 한스러운 것은 이태백(李太白) 두보(杜甫) 한퇴지(韓退之) 유자후(柳子厚) 등과 같은 시대(時代)에 태어나지 못하였으니 나와 같이 인두(蚓蚪)⑥같은 사람의 소리가 오히려 능히 어찌 성사(盛事)에 하나의 큰 흠이 되지 않겠는가?』

시(詩)로 말하니、

연옥당시공연단
研玉當時共研丹 옥을 갈던 당시에 같이 마음 수련을 하였는데

십년경가일등도
十年瓊架一燈挑 십년의 구슬 시렁에는 한 등잔을 돋우었다네。

절연구축회신축
折蓮舊丑回新丑 연꽃 꺾던 옛날 신축년(辛丑年)이 새 신축년(辛丑年)에 돌아오니

독발신조감구조
禿髮新朝感舊朝
대머리된 새 아침에는 옛날 아침을 느끼게 되네。

삼대영광청자수
三代榮光靑子袖
삼대의 영광은 젊은 아들의 소매에 있고

일당화기채손포
一堂和氣彩孫袍
한 집안의 화기(和氣)는 손자의 도포(道袍)를 빛나게 하네。

빈상우작결
賓觴友酌缺 ○○
손님의 술자리 친구의 대작……

공이공령갱축요
公以公齡更祝堯
공(公)은 공(公)적 나이로 오래오래 살도록 축원합니다。

【주(註)】

①송이석(宋履錫) : 一六九八(肅宗二四)~一七八二(正祖六)。 號는 南村 。 生員 宋命基의 아들。
②회방(回榜) : 과거 시험에 합격한지 육십년을 말함。
③사(詞) : 글로 된 말。
④부(賦) : 漢文體의 한 가지로 감상을 적은 글。
⑤전(奠) : 죽은 조상에 몸소 제사 지내는 일。
⑥인두(蚓蚪) : 지렁이 올챙이。 미천한 사람을 가리킴。

輓南村宋公 (만남촌송공)

남촌 송공을 애도함

泗上淑氣多 (사상숙기다)
사상(泗上)에 맑은 기운 많아서

運復嶠之陽 (운복교지양)
운(運)은 교남(嶠南)에 다시 돌아왔도다。

珍重梅里丈 (진중매리장)
진귀하고 소중한 매리(梅里) 어른은

維嶽降厥祥 (유악강궐상)
오직 높은 산이 그 상서를 내려주셨도다。

清氷出萬壑 (청빙출만학)
맑은 얼음은 깊은 골짜기서 나오고

寶玉生荊岡 (보옥생형강)
보옥은 형산의 언덕에서 나왔도다。

早趨詩禮庭 (조추시례정)
일찍이는 시서(詩書)와 예도(禮道)를 배웠고

壯遊道義方 (장유도의방)
장성하여서는 도의(道義)있는 지방에 유학하였도다。

與物心無競 (여물심무경)
對人顔有光 (대인안유광)
氣宇符以德 (기우부이덕)
榮華露粹盎 (영화로수앙)
工夫探實地 (공부탐실지)
餘事卽文章 (여사즉문장)
百年南州土 (백년남주토)
其聲大而長 (기성대이장)
閑閑老窮廬 (한한노궁려)
髭髮好蒼蒼 (자발호창창)

물질에는 전연 관심이 없고
사람을 대하면 얼굴에 기쁜 빛이 나도다。
기개와 도량은 덕으로 증명을 하고
영화는 성하고 순수하게 드러나도다。
공부는 실지를 탐색하고
여가로 하는 일은 글을 짓는 것이라。
백년간 남주(南州)① 땅에서
그 명성은 대단했고 또한 오래갔도다。
한가로운 늙은이 곤궁한 집에서
머리털과 윗수염이 좋게 창창하였도다。

養眞八十載 (양진팔십재)
戀疎名利韁 (연소명리강)
洞澈眞珠惠 (형철진주혜)
蕭蕭幾白楊 (소소기백양)
吾道長夜近 (오도장야근)
筮謙君子亡 (서겸군자망)
道孤咎翁哭 (도고구옹곡)
文喪泮儒傷 (문상반유상)
可惜牕前雨 (가석창전우)
梅花獨自香 (매화독자향)

정신 수양하기 八十年이었으며
생각은 명리 있는 곳에 성글었도다。
맑고 통달함은 진주와 같이 빛나고
바람소리 쓸쓸한데 백양나무는 몇 그루 인고?
우리의 길은 긴긴 밤이 가까워 오는데
점치는 괘는 군자(君子)가 죽게 되도다。
도(道)가 외로워 수구옹(數咎翁)②이 통곡을 하고
문장이 없어지니 반유(泮儒)③들 마음이 상하네。
아깝구나! 창 앞의 비에
매화만 홀로 향기를 풍기네。

【주(註)】

①남주(南州) : 남쪽지방。

②수구옹 : 백불암 선생을 말함。

③泮儒 : 옛날에 成均館에서 유숙하며 학업을 닦던 유생。

차이만각진여동급무릉동팔선시 차운
次李晚覺進汝東汲武陵洞八仙詩 次韻

이만각 진여(동급) 무릉동 팔선시에 차운

가야지동유무릉동즉문창후소유지처진여형제여동지팔인유상기중

伽倻之東有武陵洞卽文昌候所遊之處進汝兄弟與同志八人遊賞其中

갱이팔선동위명이귀향여언기기절여역불승기경상지사인차이증

更以八仙洞爲名而歸向余言其奇絶余亦不勝其傾想之思因次以贈

가야의 동쪽에 무릉동이 있는데 즉 문창후(文昌候)①가 노시던 곳이다。 진여형제(進汝兄弟)와 동지(同志) 팔인(八人)이 그곳에서 놀고 구경하고서는 다시 팔선동(八仙洞)이라 부르고는 돌아와 나에게 그 경치의 아름다움을 말하기에 나 역시 그 생각으로 기울어짐을 이기지 못하여 이 글을 지어 보냈다。

仙鄕何處是(선향하처시)
仙客晩相逢(선객만상봉)
仙月懷中照(선월회중조)
仙雲袖上濃(선운수상농)
仙狵吠隱壑(선방폐은학)
仙鳥啼歸峯(선조제귀봉)
仙分同漁子(선분동어자)
仙源恐或封(선원공혹봉)

선향은 어디에 있는가?
선객②은 서로 늦게 만났도다。
선월③은 마음 속을 비치며
선운④은 소매 위에 농후하도다。
선방⑤은 골짜기에서 숨어 짖어대고
선조⑥는 울며 산으로 돌아간다。
선분⑦은 고기 잡는 어부와 같으니
선원⑧을 혹 봉할까 두렵다。

【주(註)】

①문창후(文昌候) : 최치원선생(崔致遠先生)。
②선객 : 손님。
③선월 : 달。

④선운：구름。
⑤선방：삽살개。
⑥선조：새。
⑦선분：선계의 연분、 도연명의 「도화원기」의 고사인용。
⑧선원：근원。

足成一律 (주성일율)

더하여 일율(一律)을 이루다。

頭白年來世味慵 (두백연래세미용)
머리가 희게 될 나이가 되면 세상 맛이 게을러지고

夢魂時入樹雲中 (몽혼시입수운중)
꿈속의 넋은 때때로 수운(樹雲)① 속으로 들어가네。

何天鶴返仙翁柱 (하천학반선옹주)
어느 하늘에 학이 신선노인의 기둥에 돌아올고?

別界苔封學士峰 (별계태봉학사봉)
딴 세상의 이끼가 학사봉을 봉하였네。

幽色暗看溪蘚碧 (유색암간계선벽)
그윽한 빛은 어둡게 시냇가 이끼의 푸른 것을 보겠고

春光晩折澗花紅 (춘광만절간화홍)
봄빛은 늦게 시냇가에 피는 붉은 꽃에 알맞도다。

藤蘿古逕人烟隔 (등라고경인연격)
담쟁이 넝쿨 엉킨 옛길에는 인적이 막혔으니

許子眞襟一線通 (허자진금일선통)
자네의 참된 속마음이 일직선으로 통하는 것을 기약하겠도다。

【주(註)】
①수운(樹雲) : 나무와 구름 (雲樹之思 :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

次狎鷺亭韻 (차압로정운)

압로정에서

松老遺墟肯構家 (송노유허긍구가)
송담선생(松潭先生)①의 옛 터(遺墟)에 지은 집이

爛柯靈境劫三過 (난가영경겁삼과)
신선이 노는 곳과 같은 좋은 터에 위협이 세 번 지났도다。

軒臨北渚迎風好 (헌임북저영풍호)
추녀 끝은 북쪽 물가에 닿으니 바람맞이 좋으며

簷遠東天得月多(첨원동천득월다)
처마는 멀리 동쪽 하늘을 보니 달빛을 많이 받네。

烟樹幾村朝景媚(연수기촌조경미)
연기에 덮인 마을은 아침 경치가 아름답고

雲霞萬峀曉粧羅(운하만수효장라)
구름과 노을은 여러 산골짜기를 끼고 새벽녘을 아름답게 꾸미네。

遊人日日忘歸興(유인일일망귀흥)
놀던 사람들이 날마다 흥겨워 돌아갈 줄 모르는 것은

最是斜陽鷺點沙(최시사양노점사)
저녁 노을 진 모래 위에 드문 드문 앉아 있는 백로 때문이라네。

【주(註)】

①송담(松潭)：채응린을 말함。

北溪感舊用先師贈諸生韻(북계감구용선사증제생운)

북계에서 지난 날을 생각하며 선생님께서 여러 제자에게 보낸 운을 사용함。

削出層層磵上臺(삭출층층간상대)
골짜기 층층이 깎아낸 듯 간수위에 있는 대(臺)위에 서니

青山舊面向人開(청산구면향인개)
청산은 옛 모습으로 사람을 향해 열렸네。

追思往迹俳徊久(추사왕적배회구)
지난 날을 추억하며 천천히 이리저리 거닐은 지 오래되니

流水聲中謦咳來(류수성중경해래)
흐르는 물소리 가운데 기침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네。

樹老苔殘舊釣臺(수노태잔구조대)
나무는 늙고 이끼는 남아 옛날 낚시질하던 대(臺)인데

此中何日講筵開(차중하일강연개)
이런 가운데 어느 날 강(講)하는 자리를 개최(開催)할꼬?

烟霞物色渾如昨(연하물색혼여작)
안개와 노을 좋은 경치는 별다름 없이 지난날과 같은데

夢裡時陪杖屨來(몽리시배장구래)
꿈속에서 때로는 스승님이 오시더라。

送別從弟士敎(송별종제사교) 興壁(흥벽) 丁巳(정사) (一七九七年)

사촌 동생 사교를 떠나 보내며

人生離別最難情(인생이별최난정)
인생살이에서 이별은 가장 어려운 정인데

雙鬢垂垂況雪莖 쌍빈수수황설경
三歲夢魂懷想苦 삼세몽혼회상고
一句詩酒笑談清 일구시주소담청
歌生驪曲求賓友 가생려곡구빈우
愁着雲眠憶弟兄 수착운면억제형
江上小亭秋興足 강상소정추흥족
西山留約待君成 서산유약대군성
携到甕巖一路岐 휴도옹암일로기
停笻脈脈問前期 정공맥맥문전기
濕雲欲雨回鞭促 습운욕우회편촉

두 귀밑머리 드리우고 드리워 하물며 허옇게 쉬었네。
삼년의 꿈과 혼은 회상하기가 괴로운데
열흘간의 시와 술은 웃으며 말하는 것이 맑기만 하네。
노래는 여곡①에서 나와서 손님과 친구를 찾으며
근심은 멀리 구름 속으로 잠재우며 형제를 생각하네。
강 위에 있는 작은 정자에서 가을 흥취 만족하니
서산(西山)에서 머물 언약은 자네를 기다려 이루겠네。
손잡고 옹암②에 도착하니 한 길이 갈리는데
대 지팡이 멈추고 마주보며 앞날을 기약하네。
습기어린 구름 비 오려고 하니 빨리 돌아가도록 독촉을 하고

歸雁牽情解手遲(귀안견정해수지) 돌아가는 기러기 정을 끌며 붙잡은 손、놓기를 더디게 하네。

征袂飄颻追不及(정몌표요추불급) 소매를 경쾌하게 팔랑거리며 걸어가니 따라갈 수 없고

行塵迢遞立如癡(행진초체립여치) 길 위에 이는 먼지 바라보며 섰노라니 바보같도다。

計程今日西江渡(계정금일서강도) 날짜를 계산하니 오늘쯤 서강(西江)을 건넜을 것이니

懶步長郊黯黯思(나보장교암암사) 느린 걸음으로 긴 들길을 걸으니 서러운 생각이 나네。

【주(註)】

①여곡 : 아름다운 곡조。

②옹암 : 옹기바위。

輓郭善伯(만곽선백) 元澤(원택)

곽선백을 애도함

適來今世上(적래금세상) 마침 이 세상에 와서

了債獨吾君(요채독오군)
자기 할 일을 다 한 사람은 홀로 자네뿐일세。

孝思追先祖(효사추선조)
효도의 생각은 조상을 추모하였고

家謨裕後昆(가모유후곤)
가정의 규모는 후손들을 넉넉하게 하였도다。

超然輕薄俗(초연경박속)
경솔하고 천박한 세속을 벗어나고

謹厚自天眞(근후자천진)
근엄하고 돈후하며 스스로 천진난만하였다。

疎布常安體(소포상안체)
성긴 베옷에도 항상 몸을 편안히 하고

淡蔬不厭貧(담소불염빈)
맛없는 나물에도 가난을 싫어하지 않았다。

槐老千年隧(괴노천년수)
괴헌공(槐軒公)①의 천년의 무덤길이요

雲仍萬古宅(운잉만고택)
후손들의 만고의 유택이로다。

也應泉下樂(야응천하락)
응당 지하의 즐거움은

晨夕陪笻屐(신석배공극) 아침저녁으로 작지와 신을 모시는 것이라。

出門携一杖(출문휴일장) 문을 나설 때 지팡이 하나 끌고 가며

無處不追塵(무처불추진) 어느 곳이고 쫓아가지 않는 곳이 없어라。

明歲看花伴(명세간화반) 내년에 꽃구경 같이 가려고 하였는데

那堪少一人(나감소일인) 어찌 한사람이 적은 것을 견디어낼까?

【주(註)】

①괴헌공(槐軒公)：곽재겸(郭再謙)。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음。 寒岡門人。

感懷(감회)

己未夏種茗場畔旱甚高者燥而焦汗者敷而榮七月雨連日燥者榮而秀(기미하종명장반한심고자조이초한자부이영칠월우연일조자영이수)

敷者困而厭忽然有翻覆之象(부자곤이염홀연유번복지상)

기미년(己未年 : 一七九九年) 여름에 밭이랑에 차(茶)를 심으니 가뭄이 심하여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말라서 타고 낮은 곳에 있는 것은 펴져서 무성하였으나 七月 들어 비가 계속 와서 말라 있던 것은 살아나 솟아나고 펴져 있던 것은 시들었으나 갑자기 되살아날 기미가 있었다。

一場翻覆物何知(일장번복물하지) 한바탕 번복할 것을 물건이 어찌 알겠는가?
擧世炎凉我獨悲(거세염량아독비) 온 세상 사람들의 인심을 나는 홀로 슬퍼한다。
倚杖楸陰嗟咄久(의장추음차돌구) 지팡이에 의지해서 나무 그늘에서 탄식한 지 오래되니
稚孫恠我問胡爲(치손괴아문호위) 어린 손자들이 이상해서 나에게 왜 그러느냐고 묻는다。

庚申除夜 (경신제야)

경신년(庚申年一八〇〇年)섣달 그믐날 밤에

一點孤燈耿耿懸 (일점고등경경현)
한점의 외로운 등불 깜박깜박 걸려 있는데

涔涔無寐數行年 (잠잠무매수행년)
눈물 흘리며 잠 못 이루어 지난 해를 헤아려 보네。

鬢邊白髮成何事 (빈변백발성하사)
구레나룻 주변의 흰 털은 무슨 일을 이루었나?

腔裡青天負昔賢 (강리청천부석현)
마음속 푸른 하늘은 옛 성현들을 저버렸네。

計拙送窮身轉苦 (계졸송궁신전고)
생계가 옹졸하여 궁하게 살며 몸은 괴로우나

心存知命性能全 (심존지명성능전)
마음은 타고난 천명을 알고 천성(天性)①은 능히 온전하네。

詩書枉費平生志 (시서왕비평생지)
시서(詩書)에 빠져 평생(平生)의 뜻을 허비하였으니

爆竹聲中倍悵然 (폭죽성중배창연)
폭죽소리 속에 섭섭하고 서운함이 갑절이 더 되네。

【주(註)】

①천성(天性): 타고난 성품。

研經觀逝樓前古松爲風雨顚仆 (연경관서루전고송위풍우전부)

연경 관서루 앞에 있는 고송(古松)이 비바람에 넘어졌다。

盤錯枝條古 (반착지조고)
이리저리 뒤섞인 가지와 줄기가 오래되어

孔明廟柏同 (공명묘백동)
제갈공명(諸葛孔明)의 사당에 있는 측백나무와 같았다。

經來長者手 (경래장자수)
덕망 있는 사람의 손으로 길러져서

老去先生風 (노거선생풍)
늙어 갈수록 선생님같이 위엄이 생겼다。

虎倒苔文碧 (호도태문벽)
호랑이가 엎어진 듯 이끼 문채 푸르고

龍顚雨血紅 (룡전우혈홍)
용이 구른 듯 피비(雨血) 내려 붉구나。

巋然樓獨立(규연누독립) 우뚝하게 관서루는 홀로 서 있지만
顔色一朝空(안색일조공) 그 모습은 하루아침에 허전해졌다。

賀贈孫肅玉(하증손숙옥) 星岳(성악) 辛酉(신유)

축하하며 손숙옥 성악에게 보냄(一八〇一年)

白帽蓮池儘有緣(백모연지진유연) 흰 사모와 연못은 다 인연이 있어
日邊歸路智溪邊(일변귀로지계변) 해 따라 돌아가는 길 지묘동 시냇가일세。
詞垣已了平生債(사원이료평생채) 글 짓는 공부방 이미 평생 빚을 마쳤으면서도
口氣何嫌學少年(구기하혐학소년)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젊었을 때 배움을 싫어한다고 하는가?

輓趙叔章(만조숙장) 鎭奎(진규)

조숙장을 애도함

天意茫茫杳莫推(천의망망묘막추)
叔章胡遽此行爲(숙장호거차행위)
班衣縱爲趍庭去(반의종위추정거)
隻雁那堪弔影時(척안나감조영시)
談笑風裁好好姿(담소풍재호호자)
文章五十鬼神欺(문장오십귀신기)
詞垣志氣都消了(사원지기도소료)
要許天君遠道期(요허천군원도기)

하늘의 뜻은 넓고 넓어 추측할 수 없이 아득한데
숙장이! 어찌 그리 바쁘게 이 걸음을 하게 됐는고?
어린이들은 비록 마당을 달려가나
짝 잃은 외기러기 상여 나갈 때 어찌 감내 할꼬?
웃으며 말하는 그 모습은 좋고 좋은 자태였고
문장은 오십년(五十年)간 귀신도 속았다네。
글 짓는 자리에 뜻과 기백은 다 소모되었는데
천군(天君)①의 허락을 받아 먼 길을 기약하네。

상두난묵총방흔
狀頭亂墨摠芳痕
책상머리 흩어져있는 글씨는 모두가 꽃다운 흔적이고

팔자단기만고원
八字丹旗萬古寃
팔자(八字)의 날리는 붉은 기②는 만고의 원통함이다。

만경금기유자만
晩景襟期留自輓
늘그막에 가슴에 품은 생각은 자기의 만사(輓詞)에 머물게 하고

동인처처곡성탄
同人處處哭聲呑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곳곳에서 곡하는 소리를 삼키네。

【주(註)】

①천군(天君)：천신(天神)에 제사지내는 제관(祭官)。

②붉은 기：단기(丹旗)、상여 나갈 때 앞에 들고 가는 깃발。

만정유휘 동섭
輓鄭幼輝 東[illegible]

정유휘를 애도함

만계정우밀
晩契情尤密
늦은 계의는 정이 더욱 가깝고

쇠령고색거
衰齡苦索居
늙어가는 나이에는 흩어져 사는 것이 괴롭네。

春風和氣味(춘풍화기미) 봄바람은 온화한 기미이며
寒水好襟裾(한수호금거) 찬물은 좋은 마음씨로다。
門積嘉賓轍(문적가빈철) 문 앞에는 반가운 손님들의 수레가 쌓이고
牀堆古聖書(상퇴고성서) 책상에는 옛날 성현들의 책이 쌓여있네。
難兄難弟宅(난형난제택) 형도 훌륭하고 아우도 훌륭한 집에
裕後慶有餘(유후경유여) 후손들을 넉넉하게 하는 경사가 남아있네。

步族姪士矩(보족질사구) 華鎭(화진) 載藥山韻(재약산운)

族姪士矩 華鎭과 걸으며 재약산에 운하다

人自載藥山中歸(인자재약산중귀) 사람이 재약산에서 돌아오니
忽似喬鶯出幽谷(홀사교앵출유곡) 문득 큰 나무에 있던 꾀꼬리가 깊은 골짜기서 나오는 것 같더라。

眉睫之間得眞境 (미첩지간득진경)
눈썹 사이에 참다운 지경을 얻었고

滿袖烟霞濃且煜 (만수연하농차욱)
소매에 가득한 노을이 두텁고 또한 빛났도다。

自言南國知音多 (자언남국지음다)
스스로 말하기를 남쪽지방엔 음악을 아는 사람이 많아서

白雪陽春吟郢曲 (백설양춘음영곡)
백설과 양춘을 영곡(郢曲)①으로 읊었다 하네。

且有心書一部訣 (차유심서일부결)
또 심서(心書)②가 있는데 비결(秘訣)의 일부이고

向我欲矯南山竹 (향아욕교남산죽)
나를 향해 남산의 대나무를 바로 잡으라 하더라。

禪室靜寂談至理 (선실정적담지리)
선실(禪室)③은 고요하고 적막한데 지극한 이치를 담론하니

襟期許照山月燭 (금기허조산월촉)
마음은 산월(山月)④의 밝음을 비치게 하네。

活潑洗心魚躍水 (활발세심어약수)
활발하게 마음을 씻는 것은 고기가 물에서 뛰는 것이나

喫緊穌腸羊踏菽⑤ (끽긴소장양답속)
요긴하게 창자를 소생시키는 것은 고기를 먹는 것이네。

百八紅珠時共話(백팔홍주시공화)
興味淡泊隨僧粥(흥미담박수승죽)
況値空山春事爛(황치공산춘사란)
媚人花木交紅綠(미인화목교홍록)
時時游泳臨流峙(시시유영임유치)
月下閑聽鵑歸蜀(월하한청견귀촉)
我知鶴翎在啄菢(아지학령재탁포)
休言越鷄難伏鵠(휴언월계난복곡)

百八염주 돌리며 때론 같이 화답하니
흥미가 담박하여 스님과 같이 죽을 먹었네。
하물며 공산의 봄이 찬란할 때를 만나
고운 사람과 꽃나무가 서로 섞여서 붉고 푸르네。
때때로 헤엄쳐 놀며 흐르는 물과 우뚝한 산에 다다르며
달밤에 한가롭게 뻐꾹새 우는 소리 듣네。
나는 학이 깃으로 알을 품고 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닭을 넘어서 고니를 감추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게。

【주(註)】

①영곡(郢曲)：중국 초(楚)나라 지방의 노래。
②심서(心書)：심경(心經)。

③선실(禪室)：절의 선방(禪房)。
④산월(山月)：산위에 있는 달。
⑤양답속(羊踏蔌)：양이 채소밭을 망쳐놓았다는 뜻。 평소 채식하던 사람이 육식하는 것을 비꼬는 말。

先齋與士矩會話 (선재여사구회화)

선조의 재사에서 사구(족질 화진)와 같이 모여 이야기한 것

林霏三月帶嵐青 (임비삼월대람청)　삼월인데 숲에는 눈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아지랑이가 끼었는데
留得情親話盡情 (유득정친화진정)　정다운 친척과 함께 모여 이야기가 끝이 없었네。
爲說南州風景好 (위설남주풍경호)　남쪽지방의 경치 좋은 것을 설명하니
藥山消息十分清 (약산소식십분청)　재약산의 아름다움이 넉넉하게 맑아지더라。

壬戌七月旣望敬次從先祖臺巖先生秋字韻
임술칠월기망경차종선조대암선생추자운

임술(一八〇二年)七月十六日 종선조 대암선생의 추자운(秋字韻)에 공경하며 차운(次韻)

蜉蜉天地幸今秋 (부부천지행금추)
하루살이 세상이 다행히 금년 가을인데

山月江風卽舊秋 (산월강풍즉구추)
산 달과 강바람은 바로 옛날 같은 가을이로다。

千古斯遊關造物 (천고사유관조물)
천고의 이 놀음이 조물에 관계되니

莫敎簫語咽淸秋 (막교소어인청추)
퉁소 소리로 시원한 가을에 목 메이게 하지 말지어다。

輓李巴江仲綏 經祿
만이파강중수 경록

이파강을 애도함

忽聞巴江叟 (홀문파강수)
갑자기 들으니 파강(巴江) 노인이

不起無妄疾 (불기무망질) 뜻하지 않는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도다。

刼界人隔晨 (겁계인격신) 저 세상에 사람이 갑자기 가게 되니

河山杳蕭瑟 (하산묘소슬) 산하(山河)가 아득하고 으스스 쓸쓸하네。

故人崔山甫 (고인최산보) 오래 사귄 친구 최산보(崔山甫)는

痛哭驚且怛 (통곡경차달) 통곡하며 놀라고 또 슬퍼하네。

出門西望立 (출문서망립) 문을 나서서 서쪽을 바라보며 섰으니

茫然若有失 (망연약유실) 멍하니 무언가 잃은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이네。

殷勤平生誼 (은근평생의) 은근한 평생의 정의는

欲言哽先咽 (욕언경선인) 말을 하려고 하니 먼저 목이 메이네。

休休老成名 (휴휴노성명) 아름답고 노성한 이름은

已聞童子日 (이문동자일)
이미 동자 때부터 들렸도다。

生長古家世 (생장고가세)
옛날 문벌 집안에서 생장하여

服習華胄烈 (복습화주열)
빛난 자손의 일을 복습하였도다。

吾師百弗翁 (오사백불옹)
나의 스승 백불옹(百弗翁)께서

閨養窈窕質 (규양요조질)
따님을 행동이 아름답고 얌전하게 기르셨도다。

爲君虛甥館 (위군허생관)
자네를 위하여 사위방을 비우게 하고

戒之奉巾櫛 (계지봉건즐)
머리 빗고 손 씻고 받드는 것을 훈계하셨도다。

先生教人術 (선생교인술)
선생께서 사람 가르치는 방법은

躍如示彀率 (약여시구율)
뛰어나기가 과녁을 보이는 것 같도다。

煌煌敬字牌 (황황경자패)
공경할 경자(敬字)패는 번쩍번쩍 빛나고 있어

儼然旗四勿 (엄연기사물)
公以近道姿 (공이근도자)
觀感親且切 (관감친차절)
孜孜志惜陰 (자자지석음)
兢兢誠立雪 (긍긍성립설)
伊洛講道書 (이락강도서)
姚姒傳心訣 (요사전심결)
求道在邇是 (구도재이시)
時習不亦悅 (시습불역열)
藏修遊息工 (장수유식공)

엄연히 사물①의 기와 같도다。
공(公)은 도(道)에 가까운 자질로서 보고
느낌은 친하고 또한 간절하였도다。
부지런히 뜻을 세워서 공부하며 촌음을 아끼고
항상 두려워하며 정성으로 형설지공(螢雪之功)을 세웠다。
이락 서당에서 도서(道書)를 강(講)하고
순임금과 우임금의 심결(心訣)을 전하였다。
도(道)를 구하는 것은 가까운 데 있는데
때로 익히는 것도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간직하고 닦고 놀고 쉬는 공부는

晨夕恒兀兀 (신석항올올)
出入時雨中 (출입시우중)
門路洞開豁 (문로동개활)
喫緊爲學工 (끽긴위학공)
理義克飢渴 (리의극기갈)
詩書活計優 (시서활계우)
花竹經綸密 (화죽경륜밀)
故步烟波長 (고보연파장)
新得平林苑 (신득평림원)
沉靜色自莊 (침정색자장)

새벽이나 저녁이나 항상 동요하지 않았도다。
철 맞춰서 내리는 빗속을 드나드니
문 앞길이 환하게 열리었도다。
매우 긴요한 학문을 위한 공부는
이치(理致)와 도리(道理)가 배고프고 목마름을 극복할 수 있었도다。
시와 서는 생활계책이 넉넉하고
대나무와 꽃나무를 가꾸는 것은 계획이 세밀하였도다。
자연 속에 오래도록 지내면서
새로 얻은 것은 숲 속의 태평이도다。
마음이 가라앉아 고요하면 빛깔이 스스로 의젓하고

審密辭若訥 (심밀사약눌)
자세히 살펴보면 말이 약간 더듬거리는 것 같도다。

座右揭箴戒 (좌우게잠계)
자리 우측에 잠계(箴戒)를 걸어 놓고

怠慢不曾設 (태만불증설)
게으름은 일찍이 짓지 않았도다。

動靜由素性 (동정유소성)
행동은 본래의 성품에 연유하고

云爲自有節 (운위자유절)
언행(言行)은 스스로 절의(節義)와 기개(氣槪)가 있었다。

頎然貌若心 (기연모약심)
헌칠한 모양은 마음과 같아

玉成而溫栗 (옥성이온율)
옥같이 이루어져 따뜻하고 공손하였도다。

陰鶴九皐音 (음학구고음)
숨어있는 학이 구고에서 우는 소리는

徒然上天徹 (도연상천철)
공연히 하늘에 통했도다。

自愧樗櫟質 (자괴저력질)
스스로 부끄럽게도 몹쓸 나무의 바탕이

早年托膠漆 조년탁교칠
同庚旣不偶 동경기불우
執志又相匹 집지우상필
逢場執手坐 봉장집수좌
寒暄叙阻濶 한훤서조활
論文晝盍簪 논문주합잠
講誼夜促膝 강의야촉슬
摳衣函丈席 구의함장석
餘論及滅裂 여론급멸렬
莫逆綢繆意 막역주무의

젊을 때 친밀한 교제를 부탁하였도다。
한동갑인 것이 이미 우연이 아닌데
뜻을 잡는 것이 또한 서로 같았도다。
만나는 장소에서는 서로 손을 잡고 앉았고
안부를 물으며 서로 막히고 멀었던 것을 말하였도다。
글을 논할 때는 낮에 서로 만나고
정의를 강할 때는 밤에 서로 무릎을 맞대고 앉았다。
선생님 좌석에는 공경히 예 올렸고
그 밖의 의론은 있을 수 없었도다。
서로 허물없이 썩 친한 것은

澹澹如水潔 (담담여수결)
瞻彼公山下 (첨피공산하)
磨崖空自屹 (마애공자흘)
遺風猶襲人 (유풍유습인)
典型將蕪沒 (전형장무몰)
誰將眞珠惠 (수장진주혜)
侈竪一片碣 (치수일편갈)
千秋嶺海外 (천추령해외)
難借潞公筆 (난차로공필)
倀倀後學痛 (창창후학통)

담담하기는 물과 같이 정결하였다。
저 팔공산 아래를 우러러 보니
깎인 낭떠러지가 공연히 우뚝 솟았다。
전해오는 풍습은 사람을 오히려 덮치는데
떳떳한 모범은 장차 어지러워 없어질 것이다。
누가 장차 진주 같은 은혜를 가지고
사치하게 한 조각 비석을 세우는고?
영원히 영남지방 외에서는
노공의 필력을 빌리기 어렵게 되었도다。
길을 잃은 후배 학자들의 통한은

那忍棟樑折 (나인동량절)
江山古宅裡 (강산고택리)
謾留盈箱帙 (만유영상질)
修文地下深 (수문지하심)
幾時了點綴 (기시료점철)
叩缶歌昃離 (고부가측리)
期君躋大耋 (기군제대질)
嗚呼馬融笛 (오호마융적)
淚灑空梁月 (루쇄공량월)
去年哭遲庵 (거년곡지암)

어찌 훌륭한 인재가 일찍 죽는 것을 참겠는가?
고향의 옛날 집 상자에는
가득 찬 책들이 게으르게 머물러 있네。
글을 닦는 데는 땅속이 깊으니
어느 때 흩어진 것을 이어 내는 일을 마치는고?
장구 두드리며 측리를 노래하며
자네가 八十 늙은이에 오를 것을 기약하였는데。
아! 마융(馬融)②의 피리소리인가?
빈 대들보 달을 보고 눈물 뿌리네。
지난해에는 지암을 보냈고

撫躬痛少一 (무궁통소일)
몸을 어루만지며 한사람 적음을 통곡하였네。

今年又哭君 (금년우곡군)
금년에 또 자네를 곡하게 되니

嗟嗟吾道子 (차차오도혈)
우리의 도(道)가 외롭게 된 것이 아! 슬프도다。

多少心中事 (다소심중사)
많으나 적으나 심중에 있는 일을

於何相諮決 (어하상자결)
어떻게 서로 수의하고 결정하겠는가?

長嘯宇宙間 (장소우주간)
우주 간에 길고 세차게 휘파람부니

喘喘餘白髮 (천천여백발)
숨이 차서 허덕거리고 백발만이 남았네。

詩禮鯉庭趨 (시례리정추)
시례(詩禮)의 이정(鯉庭)③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猗彼三蘭茁 (의피삼난줄)
저 세 포기의 난(蘭)이 새싹을 뾰족이 내밀었네。

詞藻餘力事 (사조여력사)
시가(詩歌)와 문장(文章)은 남은 힘이 있을 때 일이고

孝友善繼述 (효우선계술)
種德百世家 (종덕백세가)
遺芳賴不絶 (유방뢰불절)
九原難可作 (구원난가작)
餘生徒汨汨 (여생도골골)
窮廬馬卿臥 (궁려마경와)
爲作峨洋闋 (위작아양결)
薤露白楊路 (해로백양로)
和歌聊相紼 (화가료상불)

부모에 효도하고 동기간의 우애는 잘 이어나갔도다。
덕을 심은 오래된 가문에
꽃다운 명예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승에서는 일어설 수 없으니
내게 남은 인생은 한갓 흐르는 물과 같도다。
궁한 집에 고요하게 누워서
아양(峨洋)의 곡조를 지으려고 하네。
상여가 나갈 때 부르는 노랫소리는 백양로에서 나고
노래에 맞춰 오로지 상여 줄을 붙잡네。

【주(註)】
①사물(四勿)：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 것。
②마융(馬融)：중국의 학자。
③이정(鯉庭)：아들이 아버지의 교훈을 받는 곳。

次李進汝人道吟(차이진여인도음) 이진여의 인도음에 차운

十六言傳二聖經(십육언전이성경) 열여섯 자의 말은 두 성경에 전했는데
一心便有兩般名(일심편유양반명) 한마음은 문득 두 가지의 이름이 있도다。
器形上面元同道(기형상면원동도) 그릇의 윗면은 원래 도(道)가 같은데
理欲關頭郤異情(이욕관두극이정) 이(理)와 욕(欲)의 관두(關頭)①에는 문득 정이 다르도다。
危處克來先妥帖(위처극래선타첩) 위험한 곳을 이겨 와서 먼저 타협하고

微中探去卽分明 (미중탐거즉분명)
희미한 가운데 탐색해 간 것이 똑똑한 것이네。

幾從操舍毫釐間 (기종조사호리간)
몇 번이나 잠깐 사이에 잡고 놓고 하였는고。

允執工夫只在精 (윤집공부지재정)
진실로 공부에 집중하는 것은 다만 정미로운데 있을 것이로다。

【주(註)】
①관두(關頭) : 가장 중요한 지경。

又次四七吟 (우차사칠음)

또 사칠음(四七吟)에 차운(次韻)

從形原性四端情 (종형원성사단정)
얼굴에 따른 원성은 사단(四端)①의 정인데

發處乘隨却互行 (발처승수각호행)
생겨난 곳을 타고 따르는 것이 문득 서로 다르게 가더라。

諸說紛紛多錯認 (제설분분다착인)
여러 설(說)이 분분하고 잘못된 점이 많으니

果誰指掌打開明 (과수지장타개명)
과연 누가 지시해서 잘 처리하여 밝혀나가도록 하겠는가?

【주(註)】

①四端：仁 義 禮 智에서 우러나는 측은 수오 사양 시비의 네 가지。

忍睡 (인수)

졸음을 참음

昏昏竟夕睡魔侵 (혼혼경석수마침)
어두어둑 저녁 무렵이 되니 졸음이 쏟아지고

五月炎蒸正鑠金 (오월염증정삭금)
오월의 무더위가 정말 쇠를 녹일듯하네。

放脚偃牀還傲態 (방각언상환오태)
다리를 뻗쳐 평상에 누우니 오만한 태도가 돌아오고

支頤倚枕亦勞心 (지이의침역노심)
턱을 지탱하여 베개에 의지해도 역시 마음은 괴롭구나。

强排不去渾無氣 (강배불거혼무기)
강제로 물리쳐도 가지 않으니 기운이 없어 흐릿해지고

抵敵歸來却爽襟 (저적귀래각상금)
서로 겨루다가 잠을 깨니 문득 가슴이 상쾌하도다。

案上易圖能穩閱 (안상역도능온열)
책상 위의 주역(周易)의 그림을 능히 편안하게 살펴보니

邵翁千載有餘吟 (소옹천재유여음)
소옹(邵翁)①은 千年이 지나도 여음(餘吟)②이 있더라。

【주(註)】

①소옹(邵翁)：中國 宋代의 大學者。

②여음(餘吟)：시를 읊은 나머지。

偶吟 (우음) 우연하게 읊음

櫻桃初熟早梅黃 (앵도초숙조매황)
앵두가 처음 익고 일찍 핀 매화는 노랗게 되고

處處新鷄上桀鳴 (처처신계상걸명)
곳곳에서는 햇닭이 홰에 올라가 울고 있다。

紅日隱簷山晝永 (홍일은첨산주영)
붉은 해가 처마 끝에 숨으니 산속의 낮이 길어지고

靑茅抽葉眼花生(청모추엽안화생) 푸른 잔디 잎을 뽑으니 눈병이 생기네。
門前暮過炎涼客(문전모과염량객) 날 저물어 나그네는 문 앞을 지나고
案上朝登葱麥罌(안상조등총맥앵) 이른 아침상 위에는 파국과 보리밥이 질그릇에 담겨 오르네。
虛堂無伴苦幽獨(허당무반고유독) 빈집에 짝이 없어 한적하고 외로워 괴로운데
喜聞嚶鳥三兩聲(희문앵조삼양성) 꾀꼬리 소리가 두세 번 즐겁게 들린다。

輓商山李公(만상산이공) 天慶(천경) 상산 이공을 애도함

同登函席事之兄(동등함석사지형) 함께 선생님 앞에 나아가 형(兄)을 섬겼으며
十載論交廩盡傾(십재론교름진경) 십년간 담론하고 교제하는데 모든 정성을 기울였네。
氣象好時秋月皎(기상호시추월교) 기상이 좋을 때는 가을 달같이 밝고

襟期開處活源清 (금기개처활원청)
白頭謾灑山陽淚 (백두만쇄산양루)
青眼遙懸雲樹程 (청안요현운수정)
往歲瓊函空古迹 (왕세경함공고적)
披來不覺涕縱橫 (피래불각체종횡)
商岑迢遞隔烟塵 (상잠초체격연진)
漆水風光異昔辰 (칠수풍광이석신)
畏壘有時終俟後 (외루유시종사후)
抛梁無地遠勞神 (포량무지원노신)
二三諸子難齊首 (이삼제자난제수)

속마음을 열어놓은 곳에 활수의 근원이 맑았도다。
흰머리 부질없게 산양(山陽)에서 이별의 눈물을 뿌리며
기쁜 마음의 눈초리는 멀리 벗을 그리는 데에만 매달아 놓고 있네。
지난 해 주옥같은 편지는 옛 자취가 비었으나
펼쳐보니 눈물이 흐름을 깨닫지 못하겠네。
상령은 멀고 멀어 연기와 티끌이 갈렸는데
칠수의 풍광은 옛날과 달랐도다。
서원에 봉안할 일은 때가 있으니 마침내 뒤로 기다리고
강당 지을 곳은 땅이 없으니 멀리 정신만 괴롭도다。
두셋 제자들이 함께 모이기 어렵고

九十衰翁奈促晨 (구십쇠옹내촉신)
구십 살 쇠한 늙은이가 어찌 새벽을 재촉 하였는고?

也識八公山下路 (야식팔공산하로)
알건대 八公山 아래 길에

應追杖屨暮朝臻 (응추장구모조진)
응당 선생님 따라 아침저녁 이르게 되겠네。

離索多年夢想頻 (이색다년몽상빈)
떨어져 있기 여러 해에 꿈속에도 생각을 여러 번 하고

追遊舊跡忽前塵 (추유구적홀전진)
따르며 놀던 옛 자취 갑자기 지난 일이 되었네。

遙知四皓瑤碁伴 (요지사호요기반)
멀리 상산 사호(四皓)①들의 바둑 두는 동료를 알아서

添一偉冠白髮人 (첨일위관백발인)
한 거룩한 갓을 쓴 백발노인 더하였겠네。

【주(註)】

①사호(四皓): 상산에 들어가 숨은 네 사람의 隱士。

避癘(피려) 염병을 피하며

剩得稀齡底事爲(잉득희령저사위) 여분으로 얻은 칠십 늙은이가 무슨 일을 하였는고?

同歸草木正堪悲(동귀초목정감비) 초목으로 같이 돌아가려고 하니 정말로 감당이 슬프네。

樂天乘化知吾分(락천승화지오분)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분수인줄 알고 있는데

只恐人間俗債遺(지공인간속채유) 단지 두려운 것은 인간 속세의 채무를 남겨 놓은 것일세。

時末兒未醮故有是語(시말아미초고유시어) 이때 막내아들이 혼인을 못했기에 이 말이 있었다。

輓李遲庵聖哉(만이지암성재) 이지암 성재를 애도함

溫栗奇姿用玉成(온율기자용옥성) 온후하고 공손하며 특출한 모습은 옥으로 이루어졌고

謫仙瑤籍早登名 (적선요적조등명)
시선(詩仙 : 李太白)의 자리에 일찍부터 이름이 올랐도다。

徽言學圃論眞訣 (휘언학포논진결)
학포에서는 아름다운 말로 참다운 비결을 논하였고

華藻騷垣擅主盟 (화조소원천주맹)
문장과 시부는 오로지 문단에서 주장이 되었도다。

山水膏肓耽動靜 (산수고황탐동정)
산수를 사랑하여 거닐기를 좋아했고

烟霞性癖養神精 (연하성벽양신정)
경치를 좋아하는 성벽은 정신을 수양하였도다。

化翁一理誠難測 (화옹일리성난측)
조물주의 한 가지 이치는 진실로 측량하기 어려우니

腆賦慳年孰敢爭 (전부간년숙감쟁)
두터운 품부에 나이를 아끼니 어느 누가 다투겠는가?

獨抱牙琴古調尋 (독포아금고조심)
홀로 거문고를 안고 옛 곡조를 찾으니

平生肝膽托知音 (평생간담탁지음)
평생의 속마음은 음악을 아는 이에 부탁하였도다。

來時切切携吾手 (래시절절휴오수)
만날 때는 간절하게 내 손을 끌었고

別處茫茫執子衿
별처망망집자금
이별할 때는 아득하여 자네의 옷 섶을 붙잡았었네。

牀上碁罇修晩契
상상기준수만계
상위의 바둑과 술통은 늦은 계의를 닦았고

匣中書釼負初心
갑중서일부초심
문갑속의 책과 칼은 첫 마음을 저버렸도다。

可憐白首呼兄哭
가련백수호형곡
가엾도다。 백발노인이 형님 부르며 통곡하니

堪使行人涕自淋
감사행인체자림
행인으로 하여금 눈물이 저절로 나게 하네。

鄕黨稱恭友
향당칭공우
향당에서는 공손하고 우애 있다고 칭하고

卯君髮亦童
묘군발역동
묘군(卯君)①의 머리도 또한 대머리가 되었도다。

論文墳籍盡
논문분적진
글을 논함에는 옛 서적을 다 보았고

探勝峙流窮
탐승치류궁
좋은 경치를 구경함에는 산과 물을 다 보았었도다。

聯袂開三笑(연메개삼소)

웃소매를 서로 잡고 세 사람이 웃음을 열었으며

追塵躡八公(추진섭팔공)

먼지 나는 뒤를 따라 팔공산(八公山)으로 올라갔도다。

吟呻違相紼(음신위상불)

괴로워서 앓는 소리 내며 상여 줄을 붙잡지 못하였으니

西望淚盈瞳(서망루영동)

서쪽을 바라보니 눈물이 눈동자에 가득 차 있네。

落拓遲庵丈(낙척지암장)

불우한 환경에 처한 지암 어른은

清癯氣味溫(청구기미온)

맑고 여위어도 기미는 온화하였도다。

鵾鵬早歲志(곤붕조세지)

곤붕(鵾鵬)같은 큰 새는 일찍 젊었을 때 뜻이요

山水晚年罇(산수만년준)

산과 물은 늦은 해의 풍류로다。

恭友難兄弟(공우난형제)

공손하고 우애함은 형 동생 하기가 어려웠고

謨猷裕子孫(모유유자손)

규모와 법도는 자손들을 넉넉하게 하였도다。

牀頭楓嶽藁(상두풍악고) 책상머리의 풍악②의 원고는

洗盡六塵根(세진육진근)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 욕정(慾情)의 뿌리를 씻어 없앴도다。

【주(註)】

①묘군(卯君)：토끼띠 사람。동생을 말함。

②풍악(楓嶽)：금강산。

平川入享日志喜寄士教(평천입향일지희기사교) 戊辰(무진)

평천 서원에서 제사 드는 날 기쁜 뜻으로 사교(士教)에게 부치다。一八〇八年戊辰

辰良日吉盛齊明(신양일길성제명) 때 좋고 좋은 날 받아 성하게 제사 지내니

長老遺謨始述成(장노유모시술성) 어른들의 남긴 계획이 비로소 이루어졌도다。

永世流芳先祖烈(영세류방선조열) 길이길이 후세에 남는 꽃다운 명예는 조상의 공덕이며

同心揭虔後孫誠
동심게건후손성
같은 마음으로 예를 차려 높이 내어 걸은 것은 후손들의 정성이다。

威儀濟濟祼將禮
위의제제관장예
위엄 있는 모습과 질서 있는 행동은 강신하고 제사 지내는 예이며

聲氣洋洋陟降精
성기양양척강정
음성과 기운이 넘칠 듯 가득한 것은 오르내리는 정령이로다。

病喘殘年躬獲覩
병천잔년궁획도
기침병으로 쇠잔한 나이에 몸소 보게 되어

聊題一律志欣情
료제일률지흔정
한 율(一律)을 지어 기쁜 마음을 표하도다。

尹方伯光顔次退陶先生研經書院韻余乃追和
윤방백광안차퇴도선생연경서원운여내추화

윤방백 광안의 퇴도선생의 연경서원 차운을 내가 따라 화답함。

道術元從學以成
도술원종학이성
도가(道家)의 방술(方術)은 처음에 남에게 배워서 이루어지는데

徒然華額揭研經
도연화액게연경
한갓 빛나는 액자는 연경이라고 걸었도다。

사군사측군몽취
使君斯惻群蒙醉

진중유시각환성
珍重留詩却喚惺

수방공부적루성
收放工夫積累成

장수유식귀궁경
藏修遊息貴窮經

선생유운침침고
先生遺韻浸浸古

적식군몽기일성
摘埴群蒙幾日惺

사군이 여러 어리석은 사람의 취한 것을 슬프게 여겨

귀중한 詩를 남겨 어리석은 사람을 문득 불러 깨우치게 하였도다。

수집하고 버리는 공부를 여러 번 쌓아야 이루게 되고

간직하고 닦고 놀고 쉬는 것은 경학을 깊이 연구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도다。

선생의 남기신 운(韻)은 아름답고 빛난 지가 오래되었으니

방향을 잃은 여러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느 날 깨겠는고?

書서 편지글

答답李이進진汝여 이진여에 답장

正정月월二이十십二이日일書서始시得득承승拜배於어三삼月월初초吉길滿만掬국長장幅폭不부但단爲위尋심常상寒한暄훤而이
已이其기繾견綣권之지意의謙겸許허之지辭사有유若약待대之지以이直직諒양資자益익之지友우顧고此차庸용陋루何하以이得득
此차旣기感감且차愧괴第제疎소懶나之지性성近근兼겸憂우故고不불能능趂진謝사厚후意의孤고負부實실多다陽양律율已이回회
伏복惟유棣체樂락履이序서陶도陶도興흥岦립寒한喘천恒항作작苦고入입處처楸추齋재而이衰쇠謝사精정力력甦소回회無무期기
又우無무喚환惺성相상益익之지人인至지於어尋심數수之지工공亦역可가謂위全전却각所소以이志지不불能능帥수氣기精정神신
思사慮려日일入입昏혼憊비舊구聞문漸점忘망新신得득無무些사可가言언時시思사朱주夫부子자工공夫부易이間간斷단義의理리
難난推추尋심之지語어未미嘗상不불悚송然연也야且차聞문士사敎교病병痢리甚심重중日일來래得득少소可가之지音음然연猶유

未釋懷奈何奈何晩覺名齋之意可知其所悟之超然與我先生並一時而未及質疑請益則雖若爲晩暮之恨然旣覺則先生平生用心處自在其所覺中然則吾兄所覺其非切於受用者耶顧豈於傳習之方無一可言是爲終始無覺底人念兄名齋自警之意豈不靦其面耶

정월 이십이일에 서신을 처음 받고 뵈옵기는 삼월 초하루였습니다。 긴 폭의 서신은 보통 안부를 물었을 뿐 아니라 그 마음 속에 굳게 서리어서 생각하는 마음이 못내 잊혀지지 않는 뜻과 겸허한 말씀이 솔직하게 양해하시고 자질이 유익한 벗인 양 대접하시니 돌아보건대 이 용렬하고 고루한 사람이 어찌 이것을 얻겠습니까? 이미 감동하고 또 부끄러우나 다만 엉성하고 게으른 성품으로 근심이 겹쳐 갑갑하기 때문에 능히 달려가서 두터운 마음에 사례하지 못하여 외로이 져버림이 실로 많습니다。 늦은 봄이 이미 돌아오니 형제간 즐거움이 절로 따라 흥겨우리라 생각합니다。

흥립(興岦)은 추위와 기침으로 항시 괴로움을 만들어 추재(楸齋)에 들어

가 거처하게 되나 쇠약한 근력이 다시 깨어나기는 기약이 없는데 또한 서로 유익하게 깨우쳐 줄 사람도 없습니다。 몇 가지 공부에 있어서도 이 역시 전부 물리치게 되니 그럼으로써 뜻이 기를 거느리지 못하여 정신과 생각이 날마다 혼미해져서 고달프고 옛날에 들은 것도 점차 잊혀지고 새로이 얻는 것은 말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으니 때로는 주부자(朱夫子)의 공부는 간단하기 쉽고 의리는 찾아내기 어렵다는 말을 생각하니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또 사교가 이질(痢疾)이 아주 심하나 요사이는 조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궁금증을 풀지 못했으니 어찌하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늦게야 깨달았다는 명재(名齋)의 뜻은 가히 그 깨달음이 세속을 벗어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선생님과 한 시대에 같이 나서 의심나는 것을 물어서 밝히고 도움을 청하는 데 못 미친 것은 비록 늦은 한은 있는 것 같으나 이미 깨달았으면 선생님의 평생 마음 쓰시던 곳이 스스로 그 깨달음 속에 있겠으니、 그렇다면 나의 형의 깨달은 바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간절함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건대 렵(岦)은 전하여 받아 익히는 방법에서 하나도 가히 말할 만

한 것이 없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깨달음이 없는 저속한 사람이 될 것이니 항차 명재(名齋)의 스스로의 경계한다는 뜻을 생각하면 어찌 무안해서 그 얼굴을 보겠습니까?

與朴定于(여박정우) 鼎洛(정락) 戊辰(무진)

박정우(정락)에게 보냄 一八〇八年

多病故人疎苦無盍簪之期卽聞旆戾漆溪忽不覺驚喜若可以執手敍
(다병고인소고무합잠지기즉문패려칠계홀불각경희약가이집수서)
阻而其奈筋力之不能何哉相別後已積許多年未審兄啓處之節看討
(조이기내근력지불능하재상별후이적허다년미심형계처지절간토)
之工氣貌之完僃俱何如吾人之歎阻濶道寒暄猶是等閑說話握手相
(지공기모지완비구하여오인지탄조활도한훤유시등한설화악수상)
墮淚哽咽不能語者有之未知兄何忍入其殯而哭其死也天之不佑仁
(타루경인불능어자유지미지형하인입기빈이곡기사야천지불우인)
賢之後如是理固不可測也其一身上擔負至重而無一事了得而逝生
(현지후여시리고불가측야기일신상담부지중이무일사료득이서생)

在者固當料理經紀曾知穉謙兄有一會之論今聞兄行果由此而其事
(재자고당료리경기증지치겸형유일회지론금문형행과유차이기사)
未免蒼茫無涯畔不得不收拾見在者以爲善後之道如此病蟄只當俟
(미면창망무애반부득불수습견재자이위선후지도여차병칩지당사)
僉君子處置耳商山丈喪事夫復何言吾輩不但有少一之歎前面凡事
(첨군자처치이상산장상사부부하언오배부단유소일지탄전면범사)
指揮無人尤爲痛悼不已也
(지휘무인우위통도불이야)

병이 많아 친구 간 소홀하여 만날 기회가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곧 들으니 걸음이 칠계(漆溪)에 온다하니 몹시 기뻐하여 가히 손을 붙들고 오랫동안 소식이 막힌 것을 말하려 했으나 기력이 되지 않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서로 헤어진 후 이미 많은 해가 쌓였는데 안부를 듣지 못했습니다。 형은 나가 계시면서 보고 토론하는 공부와 기운과 모양의 형편은 모두 어떠합니까? 우리가 탄식하는 소식이 끊어지고 왕래가 없는 것은 오히려 등한한 말이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목메어 말도 못하는 것이 있으니 알지는 못하지만 형(兄)은 어떻게 참고 그의 빈소에 들어가 죽음을 통곡하

였습니까? 하늘이 어진 사람의 후예를 돕지 않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이치(理致)는 참으로 측량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는 일신상 부담이 참으로 무거웠는데 한 가지 일도 끝내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으니 살아있는 사람이 마땅히 일의 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일찍이 알았지만 치겸형(穉謙：李載延)이 한번 모이자는 논의가 있었다는데 이제 들어보니 형의 걸음이 과연 여기에 연유되어 있다면 그 일은 아득하고 끝이 없는 발두렁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수습은 본 사람들이 뒷감당을 잘 처리함이 도리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병으로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니 다만 마땅히 모든 군자들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상산장(商山丈)의 상고 때는 그것을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다만 하나가 적다는 탄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모든 일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것을 더욱 통탄하고 슬퍼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答郭瑾 (답곽근)

以我有伯兄喪春間賜慰悲感實深而沒便稽謝卽聞兄遭季難慽同氣
이아유백형상춘간사위비감실심이몰편계사즉문형조계난척동기
摧割之痛推可及人友于至情何以寬遣也惟願深自節制無損天和岦
최할지통추가급인우우지정하이관견야유원심자절제무손천화립
白首相依者兄弟而竟不能保遣百年形單影隻無一悰況而又見女壻
백수상의자형제이경불능보견백년형단영척무일종황이우견녀서
冤逝老景腐腸幾何而不斷絶也窮八達八之語可想兄少時銳意猶有
원서노경부장기하이부단절야궁팔달팔지어가상형소시예의유유
存焉較此灰死精力無復有一分生意者可謂懸懸健羨
존언교차회사정력무부유일분생의자가위현현건이

곽(郭)근(瑾)에게 답함

나의 백형(伯兄)의 상(喪)이 있음으로서 봄철에 위문을 주시니 슬픈 감정이 참으로 깊으나 인편이 없어 답장이 늦었습니다。 즉 들으니 형(兄)은 끝에 동생의 슬픈 일을 당하였다고 하니 동기간의 살을 깎는 듯한 아픔이 미루어 남에게 미칠 것이니 우애 정리의 지극함을 너그럽게 가히 보내겠습니까?

오직 바라는 것은 깊이 스스로를 절제하여서 원기에 손실이 없도록 하소서。

렵(嶫)은 머리가 희도록 서로 의지하는 것이 형제(兄弟)인데 百年을 보전해 보내지 못하니 그림자는 하나이고 외짝이니 즐거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사위를 원통하게 보냈으니 늘그막에 썩은 창자가 어떻게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궁팔십(窮八十) 달팔십(達八十)①의 말은 형이 젊을 때 가진 단단한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이 재(灰:회)와 같이 죽은 정력이 다시 한 푼도 살 뜻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여 적이 잊지 않고 넓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註)】

①궁팔달팔(窮八達八):궁팔십달팔십(窮八十達八十)의 주린 말로서 팔십년(八十年)을 살면서 궁하고 달함을 관계하지 않는다는 것。

與士教 (여사교)

사교(士敎)흥벽(興壁)에게 보냄

風水之災便成一刼滄桑而無由得消息方念慮不置卽因小奚來叩
(풍수지재편성일겁창상이무유득소식방념려불치즉인소해래고)
伏審叔母體氣無損省況亦宜適稍慰紆菀廷侄爲諸人所挽做月餘之
(복심숙모체기무손성황역의적초위우울정질위제인소만주월여지)
工在渠雖不以是有大段功効之可言而旣是吾門盛事則百里外離居
(공재거수불이시유대단공효지가언이기시오문성사즉백리외리거)
之人偶來而同之者還似非偶然也今年年歉又是近古所無素窮之人
(지인우래이동지자환사비우연야금년년겸우시근고소무소궁지인)
萬無資食之策未知君如何料度也
(만무자식지책미지군여하요탁야)

풍수의 재해가 한꺼번에 빼앗아 가니 세상이 상전벽해(桑田碧海)①를 이루면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 바야흐로 염려를 놓을 수가 없던 차에 어린 여자 노비가 와서 소식을 전하여 주어、엎드려 살피건대 숙모님 기체가 아무 탈 없고 살펴보시는 모습도 적당하시다 하니 얽힌 궁금증이 풀려 조금

이나마 위안이 되네。

조카 정(廷)은 여러 사람이 만류함으로써 한 달 넘는 동안 공부를 하니 저에게 있어 비록 이것이 대단한 공부의 효과가 있었다고 가히 말할 수 없으나 이미 우리 문중의 큰일이라 즉 백리(百里) 밖에 떨어져 사는 사람도 우연히 와서 같이한 것은 도리어 우연이 아닌 것 같다。

금년도 보리 흉년은 또 이것이 옛날에 없던 바로서 평소 가난한 사람은 생활 대책이 전혀 없으니 자네는 어떻게 요량해 나갈지 알 수 없네。

【주(註)】

①상전벽해(桑田碧海)：뽕나무 밭이 바다로 변한 것。

答士教 (답사교)

사교에게 답함

豈曰無諸從輩相見只是翜時暄凉而已涔寂無聊無異孤寓之君所以
(기왈무제종배상견지시삽시훤량이이잠적무료무이고우지군소이)

懷君之念邇來益切廷侄遠到致君手滋忙手披閱無異對討伏審叔母
(회군지념이래익절정질원도치군수자망수피열무이대토복심숙모)

體체韻운近근獲획康강健건而이第제君군吐토痰담暈훈眩현之지症증極극甚심悶민然연須수十십分분加가愼신焉언從종頃경自자陶도山산還환大대小소家가眷권相상繼계染염痛통奔분走주於어智지枝지之지間간者자殆태七칠八팔日일幸행俱구無무事사踰유嶺령也야學학齋재設설接접之지擧거今금不불可가旋선止지然연實실無무興흥味미可가言언

어찌 여러 종반 간 사람들이 없으리오만은 서로 보는 것은 잠시 안부할 뿐이니 적막하고 무료함이 외롭게 남의 집에 임시로 사는 자네와 다름이 없으니 자네 생각이 근래에 더욱 간절하네。

조카 정(廷)이 멀리서 도착하여 자네의 편지를 주어 바쁘게 손으로 열어 보니 자네를 본 것과 다름이 없네。

엎드려 살피건대 숙모님의 기체가 요사이 건강을 되찾기는 했으나 다음으로 자네가 가래를 토하고 어지러운 증세가 극심하다니 민망스러우며 반드시 십분 조심하고 정양을 잘하게。 종형(從兄)인 나는 지난번 도산에서 돌아와 대소가 가족들이 서로 연달아 병이 전염되어 지묘와 갓골을 쫓아 다닌 지가 거의 七八日이나 다행히 모두가 무사히 고개를 넘은 것 같네。

학재(學齋)①에서 공부하는 일은 지금 갑자기 중지하지 못하나 실은 흥미가 없네。

【주(註)】

①학재(學齋)：學問을 공부하는 집。

與여士사敎교

사교에게 보냄

沒몰便편多다月월未미諳암哀애況황連연得득何하如여廷정姪질得득榜방奇기幸행奇기幸행祥상從종運운族족之지得득又우是시奇기幸행其기爲위門문戶호地지罷파寂적殊수不불少소第제其기治치行행之지節절何하以이爲위之지從종素소苦고寒한喘천入입冬동倍배作작氣기促촉神신疲피喘천喘천若약不불保보朝조夕석良양可가浩호歎탄毅의仲중客객地지之지逝서慘참惜석慘참惜석吾오輩배相상與여者자只지若약而이人인而이又우失실此차人인已이矣의已이矣의霽제山산翁옹復복官관吾오黨당可가同동慶경也야

여러 달 소식이 없어서 알지 못하겠네。 상중(喪中)생활이 연이어지니 어떠한가? 조카 정(廷)이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기특하고 다행하며 기특하고 다행하네。

상종(祥從)군과 운족(運族)군의 합격도 기특하고 다행하니 그것으로서 가문의 자리가 적적함을 그치게 됨이 적지 않으며 특히 그 행장을 차리는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종형인 나는 평소 추위와 천식으로 고생하는데 겨울이 들면서 배나 더하고 숨이 차고 정신이 피로하며 기침이 자주 나서 아침저녁으로 보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참으로 크게 한숨짓고 있네。

의중(毅仲)이 객지에서 사망한 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애석하고 비참하고 애석하더라。 우리들이 서로 함께하는 사람은 다만 몇 사람뿐인데 또 이 사람을 잃었으니 그만 이로다。 그만 이로다。

제산옹(齊山翁：金聖鐸)의 복관(復官)은 우리 유림들이 다같이 기뻐해야 할 일이네。

【주(註)】

①복관(復官)：관직을 파직 하였다가 복직하는 것。

答士敎

사교에게 답함

回便數字無異更接移時不能釋手也門少更會於前所將欲做去多少而獎程興起之道非復如君在之時雖陽尊我而旣無所工何以應其求也始知智困果非虛語也相對之際合有道情之詞而談話是耽不暇吟苦別後懷思益悵惘寄送四韻二首此寫情而已亦可以情相和耶

돌아오는 인편에 몇 자는 다시 옮겨 갈 때 받는 것과 다름없어 능히 손을 놓을 수 없었네。

문중의 젊은이들이 다시 전날에 모였던 장소에 모여서 다소라도 공부해 가려 하나 장려하고 일으키는 일은 다시 자네 있을 때와 같지 않으니 비록 겉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이미 공부한 바 없으니 어찌 그 요구에 응하겠는가?

처음 지혜가 없는 것을 안다는 것이 빈 말이 아닌 것이라 상대할 때 정(情)을 논할 글이 있었으나 이야기하고 이를 즐기며 읊음의 괴로움에 틈을 주지 않고 작별한 뒤에도 생각을 하며 몹시 섭섭하여 사운이수(四韻二首)를 보내니 이는 정을 쓴 것뿐이니 또한 정으로 서로 화답하지 않겠는가?

與여士사敎교

사교에게 보냄

憂우樂락齋재從종先선祖조事사蹟적今금日일始시出출乃내知지卓탁絶절之지跡적竟경不부至지湮인沒몰本본孫손數수次차呈정營영吾오輩배亦역當당有유助조成성之지道도與여此차中중諸제人인不불無무相상議의而이君군書서又우不불約약而이合합矣의玆자欲욕以이先선祖조事사並병呈정之지其기狀장文문煩번君군大대手수未미知지君군文문章장能능使사先선蹟적一일層층生생色색耶야

우락재(憂樂齋) 종선조(從先祖)께서 해놓으신 자취가 오늘에야 처음으로 나와 이에 남보다 훨씬 뛰어난 자취가 마침내 없어지지 않았으며 본손(本孫)이 여러 번 관찰사(觀察使)에 소장(訴狀)을 제출하였으니 우리들도 마땅히 도와 잘 되도록 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가운데 여러 사람과 서로 수의함이 없지 않았으나 자네의 편지가 또 약속은 아니 했는데도 합치됐네。

이제 선조(先祖)에 관계된 일을 함께 정정하려고 하니 그 문서의 글을 자네의 드는 솜씨에 맡기고자 하니 알지는 못하지만 자네의 문장이 능히 선조의 업적을 한층 빛나도록 하게 되겠는가?

答士敎(답사교)

사교에 답함

頃書中相勉之語頗不無警省之意但素稟慵懦於直前猛進處每患氣
(경서중상면지어파불무경성지의단소품용나어직전맹진처매환기)

力疎緩至於動心忍性增益其所未能者則尤未有平日之工若使古人
(력소완지어동심인성증익기소미능자즉우미유평일지공약사고인)

당지필유별반공부여군소유이고차비수궁고중견득무궁지미사불역내하
當之必有別般工夫如君所喩而顧此悲愁窮苦中見得無窮之味似不易奈何

요사이 보낸 서신 중에 서로 힘쓴다는 말은 매우 정신 차려 반성한다는 뜻이 없지 않으나 다만 평소 성품이 게으르고 나약하여 바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때 매번 기력이 빠져나감을 근심하였고 마음을 움직여 그 능하지 못한 곳을 더 하게 하는 것은 더욱 평소의 공부가 있지 않는 것이니 만약 옛날 사람으로 하여금 당하게 한다면 반드시 특별한 공부가 있었을 것이 자네의 깨우침과 같으나 돌이켜 보건대 이 슬프고 근심스럽고 가난에 고생 중에도 무궁한 맛을 얻어 볼 것이 쉽지 않으니 어찌하겠는가?

與士教 (여사교)

사교에게 보냄

前書後又有日客土無至親空手孤坐其懸望於此可想而此中所去物聞亦不能如意勢且奈何榜奴或已治送否到門將以何間爲之諸從中一人似當相邀於中路而姑未知果誰爲之也

먼저 서신 후에 또 몇 날이 되었는데 객지에서 부모와 형제도 없이 빈손으로 외롭게 앉아 있다고 하니 여기에 희망을 달아놓고 있음을 가히 상상할 수 있으나 이 중에서 보내는 물건도 또한 뜻과 같지 않다고 들리니 형세가 그런지라 또한 어찌 하겠는가?

방노(榜奴)는 혹 이미 치송하였는가? 도문(到門)① 행사는 장차 어느 때 하겠는고? 여러 종반간 중의 한 사람을 보내어 중도(中途)에서 맞이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아직 과연 누가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네。

【주(註)】

①도문(到門)：과거에 급제하여 홍패를 타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함。

여청언
與清彦

청언(百弗庵 孫子 崔湜)에게 보냄

적설엄호지중무연득소식일간문반우심벽지중생수필다궁산유형
積雪嚴沍之中無緣得消息日間聞搬寓深僻之中生受必多窮山幽夐

미필무익어간독지공시위구구위하처야치겸운근보이거이소무차
未必無益於看讀之工是爲區區慰賀處也穪謙韻僅步以去而素無此

공사의구법무일방불가괴신년재명유기일신기자신지공
工辭意句法無一彷佛可愧新年在明惟冀日新其自身之工

엄동설한에 인연이 없어 근간에 소식을 얻어 들을 수 없고 아주 궁벽한 오지로 옮겨 우거한다하니 살아가면서 얻는 것이 반드시 많을 것이며 깊고 깊은 산중이 반드시 보고 읽는 공부에 유익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조금 위로되고 축하하는 처지일세。

치겸(穪謙)의 운(韻)을 겨우 따라가나 평소 여기에 대한 공부가 없어 말

의 뜻이나 글귀가 하나도 비슷한 것이 없어서 가히 부끄럽네。

새해가 내일 모레인데 오직 바라는 것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 자신이 새로워지는 공부일세。

與淸彦 (여청언)

청언에게 보냄

苦戀中得覆書審奉侍僑居學味穩適雖其僻巷湫屋剩喫涔寂之愁而
(고련중득복서심봉시교거학미온적수기벽항추옥잉끽잠적지수이)

視諸在家群居役心冗瑣之時其所做工似十倍專一以是爲賀聞胤兒
(시제재가군거역심용쇄지시기소주공사십배전일이시위하문윤아)

爲經西疾入送本村可想其志氣牢確也僉從君各寓何處面面不可忘
(위경서질입송본촌가상기지기뢰확야첨종군각우하처면면불가망)

爲傳此意兼致其所望於篤業者頗不少也
(위전차의겸치기소망어독업자파불소야)

괴롭게 생각하던 중에 회답의 서신을 받아서 살피니 어른들 뫼시고 다른 곳에서 임시로 살면서 공부하는 재미는 편안하고 적당한가? 비록 그 궁벽

한 산골 좁은 집에서 쓸쓸하고 적막함을 달래는 것이 집에서 여럿이 있어 마음 쓰고 번잡할 때와 비교해 보면 공부하는 것이 열배는 마음을 한 곳으로 쏟을 수 있을 것이니 이를 축하하네。

듣건대 큰 아들을 두질을 지나기 위하여 본 마을로 들여보냈다 하니 그 지기와 정신이 굳으며 확실한 것을 알았네。

여러 종반 사람들은 각기 어느 곳에서 살고 있는고? 모두를 가히 잊지 못하겠으니 이 뜻을 전하여 주고 겸하여 생업에 독실하게 힘쓰는 자들도 소망을 이루었으면 하는 것도 자못 적지 않네。

與清彦 (여청언)

청언에게 보냄

無聞許久時時懷想不但爲新年之思而已爲問履況何似豈一味喘喘
(무문허구시시회상부단위신년지사이이위문리황하사기일미천천)

無況可言仲綏之喪久愈痛怛吾道自此益孤前頭多少經紀茫無涯畔
(무황가언중수지상구유통달오도자차익고전두다소경기망무애반)

尤可痛歎
(우가통탄)

소식 듣지 못한지가 오래 되니 때때로 회상되는 것이 다만 새해 생각만이 아닐세。 요사이 지내는 형편은 어떠한가? 립(岦)은 한결같이 천식이 차도가 없어 말할 만한 경황이 없네。

중수(仲綏)의 상사(喪事)는 오래도록 슬픔이 더해가고 우리의 도가 이제부터 더욱 외로워지고 앞으로의 많으나 적으나 계획하여 할 일이 아득하고 끝이 없으니 더욱 통탄할 일일세。

答淸彦 (답청언)

청언에게 답함

頃書無答方訝之今見示知所由矣歲暮寒緊啓處宜安是幸顧此病狀閱朔沉苦筋力精神澌鑠無餘奄奄若不保朝夕符到則可浩然而未知其期在何時是悶緬禮知已停止從後徐營豈不善耶仁洞事新官旣來而君拘痘不能躬下是可欠也

(경서무답방아지금견시지소유의세모한긴계처의안시행고차병상열삭침고근력정신시삭무여엄엄약불보조석부도즉가호연이미지기기재하시시민면례지이정지종후서영기불선야인동사신관기래이군구두불능궁하시가흠야)

지난번 서신에 답이 없어 의심스럽더니 이제 보니 그 사유를 알겠네。

세모(년말)에 추위가 몹시 심해지는 때에 편안하다니 이는 다행한 일일세。 돌아보건대 이 병든 모양은 한달이 지나도록 괴로움에 빠져 근력과 정신이 잦아지며 남는 힘이 없고 숨이 막혀 끊어질 것 같아 조석을 보전하지 못할 것 같으니 부적이 오면 가히 훨훨 갈 것이나 그 시기가 언제 될는지 알 수 없으니 이것이 민망하네。

면례(산소 옮기는 일)는 이미 정지했음을 알고 있으나 뒷날을 봐서 서서히 함이 좋지 않겠는가?

인동(仁洞) 일은 신관(新官)이 이미 왔으나 자네는 역질에 걸려서 몸으로 나가 변명하지 못하니 이것이 가히 흠이네。

與族孫穉善孝述
여족손치선효술

일가 손자 치선(효술)에게 보냄

五朔沈淹之餘精力耗盡身外之事念所不及惟以哀所遭情境橫在胸
오삭침엄지여정력모진신외지사염소불급유이애소조정경횡재흉

裡리中중夜야或혹不불覺각蹶궐起기泫현然연天천乎호鬼귀乎호何하其기舛천施시於어仁인善선之지後후若약是시其기甚심也야
念념其기一일身신擔담負부至지重중而이無무一일事사了료當당遽거爾이中중折절尤우極극痛통冤원所소望망惟유是시哀애萬만
加가自자保보兼겸謀모後후日일事사能능量량之지否부乎호

다섯 달 동안 들어앉은 나머지 정신과 기력이 다 소모되어 몸 이외의 일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바이나 오직 상주인 자네가 당한 슬픈 정경이 가슴속에 가로 놓여있어 밤중에 간혹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눈물을 줄줄 흘리니 하늘인가 귀신인가 어찌 그렇게 참혹한고? 어질고 착한 후손에게 이것은 너무 심한 것 같네。

그 한 몸을 생각하면 부담이 무겁고 한 가지 일도 해놓은 것이 없는데 갑자기 중도에 일찍 죽으니 더욱 원통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이 상주가 자신을 보호하고 아울러 후일을 위하여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일세。

答兒嵒鎭(답아암진)

아들 암진에게 답함

所讀今至幾篇而亦定其遍數耶汝之讀書不審其文義又不喜質問大
소독금지기편이역정기편수야여지독서불심기문의우불희질문대
是病痛凡讀書而無疑者是不知書者須字字不放過句句審意味有難
시병통범독서이무의자시부지서자수자자불방과구구심의미유난
解處必須問於人洞透其文義然後加其遍數而若大章必倍數而讀之
해처필수문어인동투기문의연후가기편수이약대장필배수이독지
至於三四五六百然後方見有一分會於心者朱子曰讀書千遍其義自
지어삼사오육백연후방견유일분회어심자주자왈독서천편기의자
見多讀最善然不究意味則亦歸於徒讀無效之地須以此書與永姪兄
견다독최선연불구의미즉역귀어도독무효지지수이차서여영질형
弟及同讀之人通觀之詳推吾所言之意而施之於身也
제급동독지인통관지상추오소언지의이시지어신야

읽는 것이 지금 몇 권에 이르렀으며 또한 그 읽는 번수를 정했느냐?
너의 독서가 그 글의 참뜻은 살피지 않고 또 의심나는 것을 묻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큰 병통이다。

무릇 독서는 의심나는 것이 없으면 이는 글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한 글자 한 글자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글귀마다 그 뜻을 살핀 뒤에 알기 어려운 곳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물어서 깊이 그 뜻을 밝힌 후에 그 번수를 더하며 큰 문장 같으면 반드시 배수로 하며 三 四 五 六百번 읽은 연후에 바야흐로 본 것 중에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오는 것이 있을 것이다。

주자(朱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독서를 천편하면 그 뜻이 스스로 보인다고 하였다。 많이 읽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뜻을 연구하지 않으면 즉 헛읽는 것이 되고 효과가 없이 된다고 하였으니 모름지기 이 글로서 조카 형제와 같이 읽을 사람들에게 돌려 보여서 자세히 내가 말하는 뜻을 미루어 보고 몸소 시행하라。

천옹선생문집권지일 종
喘翁先生文集卷之一 終

喘翁先生文集卷之二
(천옹선생문집권지이)

雜著(잡저)

부(賦) 표(表) 책(策) 잠(箴) 명(銘) 서(序) 기(記) 이외의 저서。

中庸箚記(중용차기)

性與道一理也其體之本然而具於心者曰性其用之當然而行於事者曰道其本然之體自有當然之用則其行於事者乃其具於心者
(성여도일이야기체지본연이구어심자왈성기용지당연이행어사자왈도기본연지체자유당연지용즉기행어사자내기구어심자)

천성(天性)은 도리(道理)와 하나의 이치(理致)이다。 그 체(體 : 根本)의 본연으로서 마음에 갖추어짐을 성(性)이라 하고 그 쓰임이 당연하게 행(行)하는 일을 도(道)라 한다。 그 본연의 몸에서 스스로 당연의 쓰임이 있은 즉 그 일에 행하는 것은 이에 그 마음에 갖추어 있는 것이다。

人인心심得득名명之지義의何하故고也야夫부人인者자五오行행之지秀수氣기也야萬만物물之지至지靈영也야聖성人인賢현人인之지人인皆개是시人인也야則즉人인之지得득名명以이人인字자者자初초非비不불好호之지名명而이至지如여對대道도心심之지人인心심以이其기自자人인形형氣기上상發발而이言언耳이所소貴귀乎호人인者자以이其기有유道도心심爲위之지主주而이聽청命명之지人인心심便편是시道도心심也야是시以이朱주子자曰왈單단說설人인心심都도是시好호對대道도心심說설便편是시勞노攘양物물事사

사람의 마음이 이름을 얻은 뜻은 무엇 때문인가? 사람은 우주간의 다섯 가지의 빼어난 기운이고 만물의 영혼이다。 성인이나 현인이란 사람도 모두가 다 사람이다。 사람이 이름을 인자(人字)로 얻은 것은 처음부터 좋지 않은 이름이 아니나 도심(道心)과 인심(人心)을 대하여 이르게 되면 거기에 스스로 사람의 겉모양과 기운이 위로 피어나 일어나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거기에 도심(道心)이 주가 되고 그 명을

들은 인심이 문득 이것이 도심(道心)이다。 이로써 주자(朱子)가 말씀하시기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인심(人心)이 도시 도심 (道心)을 좋게 대하는 것이라 하는 설명은 문득 이것이 일들을 수고롭고 요란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謾錄(만록) 붓 가는 대로 기록함。

梏喪此心者貧病尤甚每於己所獨知之中竊欲猛加自省之工而終未能除却可歎也已
(곡상차심자빈병우심매어기소독지지중절욕맹가자성지공이종미능제각가탄야이)

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구차함과 병이 더욱 심하니 매양 내 홀로 있어서 아는 것 중 남몰래 강하게 자기반성의 공부를 더 하려다 끝내 그 욕심을 제거 못 한 것을 탄식할 뿐이다。

自顧己病每在於此心偏重處日用事物之間多有所繫累固滯之端嘗構一屋子突石極難得自後於谿磵中見可用者則必生計度之心日觀心經見明道先生計度林木以戒學者之語乃覺其爲非因書以自警

자고기병매재어차심편중처일용사물지간다유소계루고체지단상구일옥자돌석극난득자후어계간중견가용자즉필생계탁지심일관심경견명도선생계탁임목이계학자지어내각기위비인서이자경

스스로 자기 병을 돌아보니 모두가 이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곳에 있었는데 날마다 쓰이는 물건과 일 사이에 많이 얽매이어 있고 성질이 고집스럽고 좁은 것이 폐단이다。

일찍이 집을 한 채 짓는데 구들장 돌을 구하기가 극히 어려웠다。 그 후 산골짝 개울 속에서 가히 쓸만한 것을 발견하면 계획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반드시 생겼다。 어느 날 심경을 보고 읽으며 명도선생(明道先生)의 수풀과 나무를 헤아려서 학자들을 경계하는 말을 보고 이에 그릇됨을 깨달아 글을 써서 스스로 경계하노라。

日用之間或有一事無愧於人者輒欲使人知之是心纔發旋覺其非遂誦不知不慍之訓以自力焉而終是消磨極難

(일용지간혹유일사무괴어인자첩욕사인지지시심재발선각기비수송부지불온지훈이자력언이종시소마극난)

일상 생활하는 사이 혹 한 가지 일이라도 남에게 부끄럼이 없는 것이 있으면 문득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니 이 마음이 겨우 나려 하다가 돌려 그 그릇됨을 깨달아 드디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는 교훈을 외우고 스스로 힘쓰려 하였으나 끝내 소화하기가 극히 어려웠다。

思慮之病固難以一朝截斷思欲取古訓書之常目之物以爲坐立行步觀省之資一日李君聖哉訪余李君善隷書余以夙興夜寐箴首四句及思無邪心忽忘六字請書之扇面常常卷舒目寓而心記之亦足爲操存之一事也

(사려지병고난이일조절단사욕취고훈서지상목지물이위좌립행보관성지자일일이군성재방여이군선예서여이숙흥야매잠수사구급사무사심홀망육자청서지선면상상권서목우이심기지역족위조존지일사야)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생각이나 근심하는 병은 본래부터 하루아침에 끊기 어렵다。 생각은 옛날 사람의 교훈을 취하여 써서 항상 눈으로 보는 물건으로 삼아 앉으나 서나 걸어가면서 보고 살피는 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하루는 이군(李君) 성재(聖哉)가 나를 찾아 왔다。 이군(李君)은 예서(隷書)를 잘 쓰기에 내가 숙흥야매(夙興夜寐)①의 잠수(箴首)② 사구(四句)와 사무사심물망(思無邪心勿忘)③의 여섯 자를 부채 면에 써 주기를 청하여 항상 펴서 눈여겨보면서 마음에 새기니 또한 족히 몸가짐을 조심하는 한 가지 일이 되었다。

【주(註)】

①숙흥야매(夙興夜寐) :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자며 부지런히 일함。

②잠수(箴首) : 훈계하는 뜻을 붙인 글。

③사무사심물망(思無邪心勿忘) : 생각이 올바르다는 마음을 잊지 말라。

일일남초적핍시숙부소장쇄금반하장개지홀반사지부단유손어근
一日南草適乏視叔父所藏鎖金半下將開之忽反思之不但有損於謹

獨之工又自歸於事長不謹之科遂盡鎖之
(독지공우자귀어사장불근지과수진쇄지)

하루는 담배가 마침 떨어졌는데 숙부님이 간수하여 보관하는 상자의 자물쇠가 반쯤 열려있어 장차 열려다가 갑자기 돌이켜 생각하니 다만 몸을 조심하는 공부에 손상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스스로 어른을 섬기는 일에 근신하지 못한 벌 받을 일이어서 결국 모두 잠가버렸다。

晝寢聖人已有戒矣又聞有害於養生之道況白晝偃臥舒放四體尤是不敬之大者年來百倍加意雖當暑月體氣昏困堅坐不臥或盤旋於堂宇之間以爲禁制之方
(주침성인이유계의우문유해어양생지도황백주언와서방사체우시불경지대자년래백배가의수당서월체기혼곤견좌불와혹반선어당우지간이위금제지방)

낮잠은 성인들에게서 이미 경계함이 있었다。 또 들으니 양생(養生)①에도 해롭다 하니 하물며 대낮에 누워서 사체(四體)②를 벌려 놓으면 더욱 이

것은 불경(不敬)③이 큰 것이니 여러 해 이래 백배 마음을 더 써서 비록 더운 달을 당하여 몸이 노곤하여 고달파도 꼿꼿하게 앉고 눕지 말며 간혹 안채와 사랑채를 몇 바퀴씩 돌도록 하여 못 자게 하는 방법으로 삼았다。

【주(註)】

①양생(養生):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기를 도모함。
②사체(四體): 네 팔다리。
③불경(不敬): 예의를 지켜야할 자리에 경건하지 못함。

음영역시우유성정지일사재석선배개불폐차이부득격즉반귀졸야
吟詠亦是優游性情之一事在昔先輩皆不廢此而不得格則反歸拙野
아어차심소차타구비신기화평경물가관여부여인창수미상유일구
我於此甚踈且惰苟非神氣和平景物可觀與夫與人唱酬未嘗有一句
어
語

시를 읊는 것도 역시 태평하고 한가롭게 지내는 타고난 성격의 한 가지 일이다。 옛날 선배님들도 다 이것을 폐지하지 않았으며 품격을 얻지 못하

면 도리어 옹졸하고 야비하게 되니 나는 이런데 매우 소홀하고 또한 게으르니 진실로 정신과 마음이 온화하고 태평하지 못하면 좋은 경치를 보고 여러 사람들과 창수하는데 일찍이 한 구(句)의 말도 아니하였다。

日看朱書頗不無所得於心者而士敎書來問或有所得且勉之曰兄所處尤是逆境其自勉當有別般工夫時余有叩盆之慽故有是語得書益加警省深用排遣之工而終是爽豁此胸中不易耳

(일간주서파불무소득어심자이사교서래문혹유소득차면지왈형소처우시역경기자면당유별반공부시여유고분지척고유시어득서익가경성심용배견지공이종시상활차흉중불이이)

날마다 주서(朱書)[1]를 보고 마음에 얻는 것이 없지 아니하나 사교(士敎)의 서신(書信)이 와서 혹 얻은 바가 있는가 묻고 또 열심히 하라며 말하기를 형(兄)님의 처지가 더욱 더 불행한 경우인데 스스로 힘써서 당연히 별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하니 그 당시 나는 고분지척(叩盆之慽)[2]이 있기에 이 말을 듣고 독서에 더욱 힘써 조심하고 반성하여 깊이 물리쳐 보내는 공부를 하였으나 끝내는 이것이 가슴속을 상쾌하고 환해지게 하기는 쉽지 않

았다。

【주(註)】

①주서(朱書)：朱子에 관한 書籍。

②고분지척(叩盆之慽)：상처한 슬픔。

정미십월이십칠일야몽선생이소학제사정영교회기비아자수지도
丁未十月二十七日夜夢先生以小學題辭丁寧教誨豈非我自修之道
시전일회칙지의무일사발명시이경지어명막지중야
視前日誨飭之意無一事發明是以警之於冥漠之中耶

정미년(丁未年：一七八七年) 十月 二十七日 밤의 꿈에 선생님께서 소학①의 머리글(題辭)로서 정령하게 가르쳐서 깨우쳐 주시니 아마도 나 스스로 공부하는 도리가 전날의 부지런하라고 타이르던 뜻에 비추어 보면 한 가지 일도 밝게 펴놓은 것이 없으니 이것은 아득히 멀고도 넓은 지하에서 경계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註)】

①소학：옛날 중국에서 이이들을 가르치는 科目。

戊申秋設試場於醴泉時雨水連日與再從姪鎭泰同行到大谷聞水漲
무신추설시장어예천시우수연일여재종질진태동행도대곡문수창
船覆死者甚多及到江上自本官將數隻船拯溺死人念一場得失幾何
선복사자심다급도강상자본관장수척선증익사인념일장득실기하
而自犯危地乎且水底有死人而橫棹越涉有不忍之心遂與鎭泰歸
이자범위지호차수저유사인이횡도월섭유불인지심수여진태귀

무신년(戊申年: 一七八八年) 가을에 과거보는 장소를 예천(醴泉)에 설치하니 그때 비가 날마다 계속 왔었다。 재종질 진태(鎭泰)와 동행하여 대곡(大谷)에 도착하니 들리기를 물이 불어나서 배가 전복되어 죽은 사람이 아주 많았다고 하더라。

강가에 도착하니 그 고을의 영장(營將)이 수척의 배를 가지고 와서 죽은 사람들을 구제하더라。 같은 장소에서 살고 죽음이 얼마인가를 생각함에 스스로 위험한 곳을 범하겠는가? 또 물밑에는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위를 노를 저어 건너가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라 생각되어 드디어 진태(鎭泰)와 함께 돌아왔다。

借理學通錄於李表兄錫汝氏齋居潛寂之中以時披閱而聰明太減掩卷輒忘還與不曾見者無異玆撮錄其諸賢事實及講問精切處及平日憤悱疑貳處以爲要覽之資而其末附聖學十圖

(차이학통록어이표형석여씨재거잠적지중이시피열이총명태감엄권첩망환여불증견자무이자촬록기제현사실급강문정절처급평일분비의이처이위요람지자이기말부성학십도)

이학통록(理學通錄)을 표형(表兄 : 고종兄) 이석여씨(李錫汝氏)에게 빌려 재사(齋舍)에 살면서 고요하고 적적한 가운데 때로 펴보니 영리하고 좋았던 기억력이 크게 줄어서 책을 덮으면 금방 잊어버려 일찍 보지 못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이에 그 여러 현인들의 사실과 강문의 정밀하고 절실한 곳과 보통 때 뜻은 알고 있으나 말 못할 의심나는 곳을 베껴 기록하여 요람① 의 자료로 하고 그 끝에 성학십도를 붙여서 둔다。

【주(註)】

①요람 :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보게 하는 책。

吾門學齋之設蓋述先祖遺意而余以年老居長其教導之方自有先師所定節目規模詳悉無復有一事加損
(오문학재지설개술선조유의이여이년노거장기교도지방자유선사소정절목규모상실무복유일사가손)

우리 문중(門中)의 학재(學齋)①의 설치는 모두 다 선조의 남기신 뜻을 이은 것인데 내가 나이 많고 늙어 어른으로 있어 그 교도의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신 선생님께서 정하신 바 조목과 규모를 상세하게 모두 기록하였으니 다시 한 가지 일도 더하거나 빼내는 것이 없어야 한다。

【주(註)】

①학재(學齋): 학문을 공부하는 집。

壬子六月十四日李兄進汝委訪與汝直及李兄通讀心經至五六板七八板而後少止作話如是者殆七八日其所得不止於話舊故敍情素而已使此心神少留於一部心經上是爲自賀處也
(임자육월십사일이형진여위방여여직급이형통독심경지오육판칠팔판이후소지작화여시자태칠팔일기소득부지어화구고서정소이이사차심신소유어일부심경상시위자하처야)

임자(壬子：一七九二年) 六月十四日 이형(李兄) 진여(進汝)가 방문(訪問)하여 여직(汝直)과 이형(李兄)과 함께 심경(心經)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 달아 읽어 오육판(五六板) 칠팔판(七八板)에 이르러 조금 쉬었다가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와 같이 한지가 거의 七八日이니 그동안 얻은 것이 옛날 이야기와 평소의 정을 나누는데 그칠 뿐 아니라 이 마음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심경(心經)의 한 부분 위에 머물게 한다면 이것이 스스로 축하하는 바가 될 것이다。

從侄兒名鐵漢者卽祥從之子也年纔八歲能離其父母從我來學不但其才氣可愛天資穎悟不曾少違長者之命惟所教是從若因此善養導之以大人之學則似可不難而成之也進汝頗奇之

(종질아명철한자즉상종지자야연재팔세능리기부모종아래학부단기재기가애천자영오불증소위장자지명유소교시종약인차선양도지이대인지학즉사가불난이성지야진여파기지)

종질(從侄) 아이의 이름이 철한(鐵漢)인데 즉 상종(祥從)의 아들이다。나이가 겨우 八세에 능히 그의 부모를 떨어져서 나를 따라와 배우니 다만

그 재주가 사랑스러울 뿐 아니라 타고난 자질은 영민하고 민첩하여 조그만치라도 윗사람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오직 가르치는 바를 따르니 만약에 이것을 잘 가르치고 대인군자(大人君子)의 학문으로 지도한다면 가히 어렵지 않게 성공할 것 같더라。

진여(進汝)도 자못 기특하게 여기더라。

枝洞族叔有晩得兒年六歲爲其敎要我書孝經及童蒙須知余亦年來眼昏頗甚而其意不可孤不得已書之又於餘紙繼書箴銘等最關於心性者因小識于其末以呈

지동(枝洞)의 족숙(族叔)①이 늦게 아들을 얻어 나이가 六세인데 그를 가르치기 위하여 나에게 효경(孝經)과 동몽수지(童蒙須知)를 써 달라고 요청하기에 나도 역시 몇 년 전부터 눈이 매우 흐릿하나 그 뜻을 거역 못하여 부득이 썼으며 또 남은 종이에 계속해서 잠명(箴銘)② 등 가장 뜻 깊은 심

성(心性)에 관한 것을 썼으며 그 끝에 소지③를 하여 보내드렸다。

【주(註)】

①족숙(族叔) : 일가 아저씨。

②잠명(箴銘) : 행실을 경계하는 글과 마음에 간직하여 일상생활에 거울이 되는 글。

③소지(小識) : 조금 기록 하는 것。

十一月朔日會諸少於孝悌堂參謁廟庭進退揖讓一依節目設講於南房各以其所讀背講儀貌整整庶幾有感發興起之端

(십일월삭일회제소어효제당참알묘정진퇴읍양일의절목설강어남방각이기소독배강의모정정서기유감발흥기지단)

十一월 초하룻날 여러 젊은이와 효제당(孝悌堂)에 모여 사당(祠堂) 뜰에서 참배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서며 읍하고 사양하는 예절을 한결같이 절차에 따라하고 강(講)을 남쪽 방에서 설치하여 각기 그 읽은 바를 돌아앉아 강을 하니 그 모습이 단정하고 가지런하며 거의 감동되어 발전하고 일어나는 실마리가 있었다。

【주(註)】
강(講) : 배운 글을 외어 어른에게 들어보도록 하는 것。

癸丑春與兒輩避痘于理齋從侄鎭衡已先到矣余以朱夫子與劉平甫書出示之因使騰出以爲觀省之資蓋以衡侄早孤當幹疎於讀書故也
(계축춘여아배피두우리재종질진형이선도의여이주부자여유평보서출시지인사등출이위관성지자개이형질조고당간소어독서고야)

계축(癸丑 : 一七九三年) 봄에 아이들과 같이 마마 병을 피하기 위하여 이재(理齋)로 가니 종질 진형(鎭衡)이가 이미 먼저 도착해 있었다。 내가 주부자(朱夫子)와 유평보(劉平甫)의 글을 내보이고 이것을 베끼게 하여 이것을 잘보고 생각하며 살펴보는 자료로 삼게 하니 이것은 대개 진형(鎭衡) 조카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일을 맡게 되어 독서에 소홀해지는 까닭이다。

六月三日積雨新晴率冠童十餘人入北溪以齒相隨衣帶鮮潔步履井
(육월삼일적우신청솔관동십여인입북계이치상수의대선결보이정)

井油然有樂道人興味每日食後必先通讀近思錄二三板相難其疑義讀罷各受所業不敢有放怠之容褻慢之語若使諸君因此成習不失儒家氣味則萬一報先生立條之意耶

(정유연유락도인흥미매일식후필선통독근사록이삼판상난기의의독파각수소업불감유방태지용설만지어약사제군인차성습불실유가기미즉만일보선생립조지의야)

六月三日 오랜 장마가 그치고 새롭게 맑아짐에 따라 어른 아이 십여 명을 인솔하여 북계(北溪)로 들어가서 나이 순서대로 서로 따르니 옷과 띠가 밝고 깨끗하며 발걸음도 단정하여 여유있게 도를 즐기는 사람의 흥미가 있었으며 매일 식사 후에는 반드시 먼저 근사록(近思錄) 二 三板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달아 읽게 하고 서로 어렵고 그 의문되는 뜻을 알 때까지 읽어 마치도록 하였으며 읽은 뒤에는 각기 공부하는 일을 받아서 감히 게으른 모습과 무례한 말을 할 수 없게 하니 만일 제군들이 이를 습관을 이루어 유도(儒道)를 닦는 선비의 취미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즉 만에 하나라도 선생께서 조약을 세운 뜻에 보답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喘病是人所不可堪者而窮苦之中又兼此病者必天之所以疢疾我也樂天安分之外又何爲哉故自號曰喘翁

기침이 나는 병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고생을 다하는 중에 또 이병을 겸하게 되니 반드시 하늘에서 나에게 열병을 내린 것이다。

세상이나 인생을 즐겁게 생각하여 즐기고 자기 분수를 지켜 편안히 있는 것 이외에 또 무엇을 하겠는가? 그래서 스스로 호를 천옹이라 말한다。

戊午六月聞自東海神篋中出壬辰日記而吾先祖兄弟叔侄事蹟亦在其中乃與士敎增修先蹟於孝悌堂蓋自 上欲作海東名賢考異任之蔡參判弘遠蔡付之金佐郞熙洛而金書通于四長官以爲修送各家先

蹟之地也(적지지야)

무오(戊午：一七九八年) 유월에 들으니 동해변 고을에서 신기한 궤짝 안에서 임진일기(壬辰日記)가 나왔는데 우리의 선조 형제 숙질의 사적도 역시 그 속에 있으므로 이에 사교(崔興壁)와 같이 선조의 사적을 효제당(孝悌堂)에서 증보①하니 상부에서 해동명현고(海東名賢考)②를 저작하고자 달리 채참판(蔡參判) 홍원(弘遠)에게 맡기니 채참판(蔡參判)이 김좌랑(金佐郞) 희락(熙洛)에게 부탁하여 金이 글로 사장관(四長官)을 통하여 각 집에 선조의 사적을 닦아 보내도록 한 것이다。

【주(註)】

①증보：새로운 것과 미비한 것을 보충하는 것。

②해동명현고(海東名賢考)：우리나라의 이름난 현인들의 증거를 대어 설명함。

庚申(경신)

國恤心誠痛傷不覺涕淚潸然(국휼심성통상불각체루산연)

大行大王仁民愛物之心浹民(대행대왕인민애물지심협민)

肌기骨골沒몰世세而이不불能능忘망雖수知지其기服복色색自자有유常상制제竊절獨독念념旣기白백其기笠입則즉布포網망似사或혹無무悖패於어義의而이見견西서涯애先선生생答답李이叔숙平평別별紙지凡범喪상事사之지過과其기常상分분而이犯범其기所소不부得득爲위者자古고人인謂위之지佞녕哀애以이此차意의反반思사之지則즉獨독行행世세俗속所소不불行행者자無무乃내近근佞녕哀애乎호由유是시遂수止지國국恤휼之지後후俱구廢폐祭제祀사十십月월十십八팔日일先선妣비諱휘辰신也야是시日일不불忍인虛허度도略약設설素소饌찬以이紙지榜방行행事사墓묘祀사則칙 因인山산在재至지月월故고亦역一일例례廢폐之지耳이

庚申(一八〇〇年)에 국상(國喪)①을 당하여 마음이 참말로 상하고 아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대행대왕(大行大王)②은 국민에 인자하시고 만물을 아끼는 마음이 온 국민의 살과 뼈에 사무쳐 한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비록 그 옷의 색깔이 스스로 나라의 법이 있음을 알겠으나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미 그 립(笠:갓)을 흰 것으로 바꾸었으면 베 망건이 혹

도리에 거슬리지 않을 것 같은데 서애(西厓：柳成龍) 선생께서 이숙평(李叔平)에 답하기를 다른 종이에다가 무릇 초상이 날 때는 그 보통 분수에 넘치는 할 수 없는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녕애(佞哀)③라 하였으니 이런 뜻으로 돌이켜 생각한다면 홀로 세속이 행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이것이 녕애에 가깝지 않은가? 이로 인하여 국상이 난 후로는 제사를 모두 폐지하였으며 十月十八日은 선비(先妣)④의 제삿날이라 이날을 차마 그냥 넘기지 못하여 간단하게 음식을 장만하여 지방으로 제사를 지냈으며 묘사는 인산(因山)⑤이 지월(至月：동짓달 즉 十一月)에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같은 예로 폐지하였다。

【주(註)】

①국상(國喪)：왕이 돌아가심。
②대행대왕(大行大王)：왕이 돌아가신 후 시호를 올리기 전의 존칭。
③녕애(佞哀)：망령된 슬픔。
④선비(先妣)：돌아가신 어머니。
⑤인산(因山)：왕의 장삿날。

聞문 嗣사王왕體체貌모長장大대無무異이成성人인聰총明명叡예智지又우兼겸以이嚴엄威위朝조臣신入입侍시者자皆개汗한出출霑점背배以이十십一일歲세沖충年년有유儼엄然연人인畏외之지氣기像상歷력考고往왕古고未미嘗상見견之지矣의漢한之지昭소帝제可가謂위明명慧혜而이時시年년猶유十십四사惟유我아 嗣사王왕超초出출百백王왕 國국家가之지慶경臣신民민之지福복孰숙大대於어此차哉재且차聞문 因인山산時시期기於어臨임壙광此차又우誠성孝효之지出출天천也야

들으니 사왕(嗣王)①은 신체 모습이 길고 크시며 어른과 다름없고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또 위엄을 겸하셔서 조정(朝廷)②의 신하들이 대궐로 임금님을 뵈러 오면 모두 땀이 나서 등을 적신다고 하니 열한 살의 아주 어린 나이로 외모와 언동이 생기가 있고 점잖으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기상이 있다고 하니 역사를 살펴보아도 오랜 옛날부터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이다。

중국 한(漢)나라의 소제(昭帝)가 총명하다고 말하나 그때 나이가 오히려 열네 살이었으며 오직 우리 새 임금님이 여러 왕들 보다 뛰어났으니 나라의 경사요 신하와 백성들의 복이니 누가 이보다 뛰어나겠는가? 또 들으니

인산(因山)③ 때 기어이 광(壙)④에까지 오셨다니 이 또한 정성과 효도가 하늘에서 나온 것이다。

【주(註)】

①사왕(嗣王)：임금 자리를 이어받은 새 임금。
②조정(朝廷)：나라의 정치를 의논 집행하는 곳。
③인산(因山)：전 임금의 장례。
④광(壙)：시체를 묻는 구덩이。

敬경字자工공夫부固고知지其기不불可가須수臾유放방忽홀而이猶유未미得득其기用용工공之지驗험一일日일獨독坐좌忽홀若약有유悟오蓋개吾오咳해嗽수已이成성難난治치之지疾질而이或혹定정心심調조息식則즉喘천痰담亦역不불頻빈數수又우於어祭제祀사之지時시則즉自자祼관至지辭사神신不불復복發발作작始시知지敬경工공爲위然연夫부齊제勅칙心심神신調조養양氣기息식整정齊제嚴엄肅숙無무或혹肆사慢만乃내是시爲위敬경方방法법而이患환不불能능接접續속耳이程정子자主주一일謝사氏씨惺성惺성之지訓훈若약有유所소契계悟오者자

경자(敬字)의 공부(工夫)는 진실로 그것을 잠시라도 소홀하지 못함을 알겠으며 공부한 것을 이용하는 경험을 얻지 못하여 하루는 홀로 앉았더니 갑자기 깨우쳐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았다。 나의 해수병이 이미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 되어있기에 혹 마음을 안정시키고 숨을 고르게 하면 즉 기침과 가래도 역시 자주 안할 것이며 또 제사 때에도 강신(降神)으로부터 사신(辭神)까지 다시 솟구쳐 일어나지 않으니 처음으로 경(敬)의 공부임을 알게 되었다。

무릇 심신을 조절하고 기운을 고르게 다듬으며 내들이는 숨기운을 고르게 하여 엄숙하며 혹 방자하고 거만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경(敬)의 방법이 되나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다。

정자(程子)의 주일(主一)공부와 사씨(謝氏)①의 깨닫는다는 훈계는 깨닫는 바가 있는 것 같다。

【주(註)】

①사씨(謝氏):良佐。 程子의 門人으로 上蔡學派의 鼻祖。

遷怒貳過固人之病也以此二者常自隱括蓋遷怒處雖不大段加意而
천노이과고인지병야이차이자상자은괄개천노처수불대단가의이
自不至於遷至於貳過則常自省察而猶不免焉二者有難易而然耶
자부지어천지어이과즉상자성찰이유불면언이자유난역이연야

성냄을 옮기고 과실을 두 번 하는 것은 본래 사람의 병이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스스로 휘게 하고 감싸는 것이니 대개 성냄을 옮기는 곳에는 비록 크게 힘쓰지 않아도 스스로 옮기며 과실을 거듭하는데 이르러서는 항시 스스로 살펴도 오히려 면하지 못하게 되니 두 가지는 쉽고 어려움이 있어 그러는가?

性命之說古人言之詳矣其所論析雖不無言之於口者而反求諸吾身
성명지설고인언지상의기소론탁수불무언지어구자이반구제오신
則無一分所得者嘗見張子養則付命於天道則責成於己之語始覺其
즉무일분소득자상견장자양즉부명어천도즉책성어기지어시각기
言之約而有味似有得於身心上用力之方矣
언지약이유미사유득어신심상용력지방의

인성(人性)과 천명(天命)의 학설(學說)은 옛날 사람들이 상세하게 말하였다。 그 논하는 바를 분석한 것은 비록 입으로는 말한 것이 없지 않으나 반대로 내 몸에 구해 본다면 한줌의 소득도 없었을 것이다。

일찍이 장자(張子)의 가르침을 보니 운명을 천지자연의 도에 부탁한다면 책임은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을 보고 비로소 말이 간략하나 재미가 있음을 깨달아 몸과 마음에 힘쓰는 방법으로 얻은 것이 있는 것 같았다。

莫知其子之惡私自點檢於心曰此是私意過甚者之事苟我之權度精切以至公無私之心處於人己之間則豈有莫知其子之惡之理乎吾於兒輩之是非知之詳矣而求其知之之端則蓋由於不蔽私情然又反而求之則是亦難免於私也何也欲善之心有倍於人故有不善未嘗不知以此言之吾之無私便私也

그 자식의 악(惡)①을 알지 못하는 것은 사사로이 자신(自身)의 마음을 점검(날날이 검사)하니 이는 사사로운 뜻이 과하고 심한 사람의 일이라。 다만 나를 달고 재는 것이 세밀하고 간절하며 지극히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으로 사람과 자기 사이에 이르면 어찌 그 자식의 악(惡)을 알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나도 아이들의 옳고 그른 것을 상세히 알고 있으나 그것을 알려고 하는 실마리는 즉 모두가 사사로운 정을 덮어 가리지 못하는 데 이유가 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구하게 되면 이 역시 사사로움에서 면하기 어렵다。 어찌해서인가? 착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배로 있기 때문에 착하지 않은 것이 있어도 일찍이 알지 못하는 것이니 이로써 말한다면 나의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은 편벽되게 사사로운 것이다。

【주(註)】

①악(惡)：좋지 못함。

先生嘗曰不藏怒不宿怨不獨於兄弟爲然自兄弟可推於至親自至親
(선생상왈부장노불숙원부독어형제위연자형제가추어지친자지친)

可推於疎遠自承訓以來每留意於此十分用工旣久之後似不無多少得力

선생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성냄을 감추지 못하고 원망을 잠재우지 못하는 것은 형제(兄弟)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兄弟)들로부터 그렇게 되면 가히 지친(至親)에게까지 미치게 되고 지친(至親)으로부터 소원(疎遠)한 사람에게까지 미루어 나갈 수 있다 하시었다。

가르침을 이어받은 이후부터 항상 여기에 마음을 두고 충분히 공부를 하여 오래된 후에야 다소 힘을 얻은 것이 없지 않은 것 같다。

九月初四日夜夢仲兄語余曰汝可做理學工夫持理學通錄一帙往某齋(齋名忘不記得)做業余曰理學通錄吾有撮錄者可不用他求兄曰抄錄不可當以全帙可也訂頑書吾當手書以遺之大抵吾晩年窮苦倍

甚冥冥之中或慮其斲喪此心而來警耶
심명명지중혹려기착상차심이래경야

九月初四日 밤 꿈에 중형(仲兄)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학공부(理學工夫)를 하겠으면 이학통록(理學通錄) 한 질(帙)을 가지고 아무개 재사(齋舍：재사 이름을 잊어서 기록 못함)에 가서 공부(做業)를 하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이학통록(理學通錄)은 내가 사본(寫本)한 것이 있으니 다른 데서 구하지 않아도 된다。』 고 하였더니 형(兄)께서 말하기를 『초록(抄錄)①은 안 되고 마땅히 전질(全帙)이라야 된다。』 고 하였으며 『잘못된 글씨는 고쳐서 내가 직접 손으로 써서 주겠다。』 고 하였으니 대체로 보아 내가 늘그막에 궁하고 고생이 배로 심하니 지하에서도 혹시나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없앨까 염려하여 오셔서 경고하는 것인가?

【주(註)】

①초록(抄錄)：필요한 것만 가려 뽑아서 기록한 것。

衰喘漸苦獨坐呻吟取理學通錄反復披閱若得契心處則神氣頗爽不
쇠천점고독좌신음취리학통록반복피열약득계심처즉신기파상부

知呻唫之苦若遇語意艱澁處則用管子所謂思之又思鬼神將通之語思之思之又重思之自然有曉解處
(지신음지고약우어의간삽처즉용관자소위사지우사귀신장통지어사지사지우증사지자연유효해처)

쇠약한 기침으로 점점 괴로워서 홀로 앉아 신음하면서 이학통록(理學通錄)을 집어서 펴 보기를 되풀이하니 마음먹은 대로 얻은 것 같아 마음과 기분이 상쾌하여 괴로워 끙끙거리는 것을 알지 못하겠으며 말뜻이 어렵고 껄끄러운 곳을 만날 것 같으면 즉 관자(管子)①가 이른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귀신과 장차 통할 수 있다는 말을 사용하여 생각하고 생각하며 또 거듭 생각하니 자연히 깨달아 풀리는 곳이 있더라。

【주(註)】

①관자(管子)：管仲 中國春秋時代 齊나라 정치가。

兒時所聞者只是科臼之事榮進之說以爲此外無他事業自聞漆溪先生之訓始知有大人所爲之事遜志受敎期欲勉行而猶是先入之見每
(아시소문자지시과구지사영진지설이위차외무타사업자문칠계선생지훈시지유대인소위지사손지수교기욕면행이유시선입지견매)

每作程夫子肚中梁木終未能超然脫落悠泛過了今作稀二之人自念此生豈不悲哉
(매작정부자두중양목종미능초연탈락유범과료금작희이지인자념차생기불비재)

어릴 때에 들은 것은 다만 보통 사람의 할 일로는 과거를 보아 벼슬이 높이 되는 것만 말하고 그 외는 다른 사업은 없었다고 하였더니 칠계(漆溪)선생의 가르침을 듣고부터는 대인군자(大人君子)가 할 일이 있음을 비로소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힘써 실행하려 기약하였으나 오히려 먼저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매양 정부자(程夫子)①의 뱃속의 양목(梁木)②이 되었다가 초연히 탈락할 수 없는 것이 되어 한가롭게 지내고 있어 이제 칠십두살(稀二)③의 사람이 되었으니 스스로 이 삶을 생각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주(註)】

①정부자(程夫子): 程頤 中國北宋 때의 儒學者 理氣說을 주장함。
②양목(梁木): 대들보 나무 즉 쓸만한 인재。
③희이(稀二): 희년(稀年)에 둘을 보탬。 칠십이세(七十二歲)。

丙寅六月十五日夜夢與三從兄中賓氏論心體從兄曰各成一絶詩以
병인육월십오일야몽여삼종형중빈씨논심체종형왈각성일절시이

質先生何如余曰諾遂成一絶從兄極稱美之覺來只記上句坐看銀甕
질선생하여여왈낙수성일절종형극칭미지각래지기상구좌간은옹

燈一炷天下萬象籠其中
등일주천하만상농기중

병인(丙寅 : 一八〇六年) 六月十五日 밤 꿈에 삼종형(三從兄) 중빈씨(仲賓氏)와 같이 심(心 : 마음)체(體 : 모양) 즉 근본을 토론하다가 종형이 말하기를 『각자 한 절구(絶句)의 시(詩)를 지어 선생에게 질문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기에 내가 그렇게 하자고 승낙하고 드디어 한 절구(絶句)의 시(詩)를 지으니 종형이 참 좋다고 극찬을 하였는데 꿈을 깨고 나니 다만 글귀 윗부분만 기억하였는데 『앉아서 은빛 사기 등잔의 한 심지를 보니 온 세상의 온갖 물건의 형상이 그 안에 있네。』 였다。

近思錄家無所藏雖借人看過而旋卽茫然不省識每欲求置案上時時
근사록가무소장수차인간과이선즉망연불성식매욕구치안상시시

披閱而未就者有年丁卯春從甥李景祖印送一帙以爲觀省之資而積
피열이미취자유년정묘춘종생이경조인송일질이위관성지자이적
月吟病之餘氣息奄奄不過一二板輒昏瞀困苶遂掩卷閉目而思繹其
월음병지여기식엄엄불과일이판첩혼무곤날수엄권폐목이사역기
所觀則亦無不無所得
소관즉역무불무소득

근사록(近思錄)①을 집에 간수하여 보관해 둔 것이 없어 비록 다른 사람에게 빌려보고 지나면 즉시 아득하고 정신을 잃어 알아보지 못하며 항상 구하여 책상위에 두고 때때로 펴보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한지 여러 해 되었다。

정묘(丁卯:一八〇七年) 봄에 종생질(從甥姪) 이경조(李景祖)가 인쇄된 책을 한질 보내왔기에 보고 살피는 자료로 삼았으나 오랜 병으로 신음한 나머지 숨기운이 곧 끊어질 듯하며 불과 한 두장만 보면 문득 눈이 흐려지고 피곤하여 드디어 책을 덮고 눈을 감으며 거기서 본 것을 생각하면 또한 소득이 없지 않았다。

【주(註)】

①근사록(近思錄)：중국 宋나라 때 주자(朱子)와 그 제자 여조겸이 지은 성리학서(性理學書)로 송나라의 도학자 주렴계 정명도 정이천 장횡거 四人의 언행을 취(取)한 책으로 十四권이다。

戊辰五月霖雨連日潢流初下水皆渾濁暫時之間泥滓漸盡宛然是清
(무진오월림우연일황류초하수개혼탁잠시지간니재점진완연시청)
徹本色於是有悟于心曰人心亦如此也人欲淨盡天理自著觀水有術
(철본색어시유오우심왈인심역여차야인욕정진천리자저관수유술)
之訓亦在於斯乎
(지훈역재어사호)

무진(戊辰：一八〇八年) 五月에 장맛비가 날마다 계속해서 내려 처음에 내려오는 물이 별창해서 전부 다 혼탁하더니 잠깐 사이에 진흙 찌꺼기가 점차 가라앉아 완연하게 맑고 맑은 본색을 드러냈다。

이것을 보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도 역시 이와 같아서 사람이 맑고 깨끗해지면 천지 이치도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니 물을 보는 법이 있다는 가르침이 역시 여기에 있을 것이다。』하다。

年來竊有所得于心者自反二字是也七句經歷或不無求全之毁然反而思之在我無所失置之不較之地不爲辨白則不久自然消釋

연래절유소득우심자자반이자시야칠순경력혹불무구전지훼연반이사지재아무소실치지불교지지불위변백즉불구자연소석

여러 해를 지내오면서 가만히 살펴보니 마음에 얻은 바가 있으니 자반(自反) 두 글자가 이것이다。 칠십년을 살아오면서 혹시나 완전함을 구하는데 흐려짐이 없지도 않겠으나 반대로 생각해보니 나에게 있어 실수한 바 없으면 교계하지 않은 곳에 두고 변명을 하지 않는다면 즉 오래가지 않아 자연히 플려서 사라져 없을 것이다。

余自少至老不欲無事度日今七十三歲而非吟病對客而空然盡日則於心不安對食有瞿然之心是以精神若稍專則必披閱書冊而眼暗不過數三板而止不安之心減却分數矣

여자소지노불욕무사도일금칠십삼세이비음병대객이공연진일즉어심불안대식유구연지심시이정신약초전즉필피열서책이안암불과수삼판이지불안지심감각분수의

내가 젊어서부터 늙음에 이르기까지 무사안일하게 보내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七十三세로 병으로 신음하지 않으면 손님을 대하느라 헛되게 하루해를 보내게 되어 마음이 불안하여 식사를 대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 이것으로 정신이 만약 한곳으로 모여지면 반드시 서책을 펴보는데 눈이 어두워져 불과 두세 장이면 그치나 불안한 마음은 분수대로 물리쳐 감소되더라。

師門記聞(사문기문) 스승에 관한 것을 듣고 기록함

興岦嘗進候於北溪先生方患上氣證興岦曰夜已昏精神必益沈沈張燈如何曰人之精神自是昭昭室之昏明何與焉已而侍者燃燈先生以兩手按心而端坐矣因竊識視雖幽暗之中其敬謹寅畏不容少懈如此

(흥립상진후어북계선생방환상기증흥립왈야이혼정신필익침침장등여하왈인지정신자시소소실지혼명하여언이이시자연등선생이양수안심이단좌의인절식시수유암지중기경근인외불용소해여차)

흥립(興岦)이 일찍이 북계(北溪)에 나아가 문안을 드리니 선생께서 방금 병환으로 계시어 얼굴이 상기되어 있기에 흥립(興岦)이 말하기를 『밤이

이미 어두우니 정신이 반드시 더욱 흐리겠으니 등불을 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정신은 본래부터 밝은 것인데 방안의 어둠과 밝음이 어찌 나와 상관이 있느냐?』 하셨다。

모시는 사람이 등불을 밝히니 선생께서는 두 손으로 가슴을 어루만지며 단정하게 앉아계시더라。 가만히 알아보니 비록 그윽하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 삼가하고 공경하며 두려워하고 공경함에 조금도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으심이 이와 같으셨다。

一日進候先生有微恙曰吾氣力綿綴去夜欲自試精神默誦平日所熟諸箴則果了了無差錯處以此驗吾調養之力猶有存者

(일일진후선생유미양왈오기력면철거야욕자시정신묵송평일소숙제잠즉과료료무차착처이차험오조양지력유유존자)

하루는 나아가 문안을 드리니 약간 몸이 불편하신데도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력이 끊어지지 않고 여전해서 지난밤에는 나 자신을 시험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려 평소 익힌 여러 잠언(箴言)을 조용히 외우니 과연 그 경과가 착오된 것이 없으니 이로써 나의 조섭하고 수양하는 힘이 아직도 보존되

어 있음을 알았다 하셨다。

興岦嘗讀論語先生曰人之日用道理盡在此書而隨才施敎審證發藥夫所謂皆要切是實除語須從容翫味眞切體認

흥립(興岦)이 일찍이 논어(論語)를 읽었는데 선생(先生)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일상 쓰는 도리가 모두 이 책에 있으니 재능(才能)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증세를 살펴 효과를 거두니 이른바 모두 절실히 중요하다고 하셨다。 이는 실제로 맞는 말이니 반드시 종용하게 완미하며 진절하게 체인하여야 한다고 하셨다。

嘗進謁問曰方讀何書對曰書傳也曰心學工夫實發源於此而規模甚大然其事業莫非孝悌中推出來

일찍 나아가 뵈오니 물어 말씀하시기를 『요사이 무슨 책을 읽는가?』 하시기에 서전(書傳)①이라고 하였다。 말씀하시기를 『심학(心學)의 공부는 실로 여기에서 시작하였으니 규모가 아주 크나 그 사업은 효제(孝悌)②중에서 뽑아 내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셨다。

【주(註)】

①서전(書傳)：서경(書經)에 주해(註解)를 달아 편찬한 책。 송(宋)나라 때 주희(朱熹)가 제자 채침(蔡沈)을 시켜 만든 책。

②효제(孝悌)：부모에 대한 효도와 동기간에 대한 우애。

癸未冬興岦遭仲兄喪先生臨哭甚痛曰平日期仗今忽至此吾安得不痛又曰世人因哭人以洩其私者有之吾則否也痛惜此人也甚時先生有喪子之痛故云

(계미동흥립조중형상선생임곡심통왈평일기장금홀지차오안득불통우왈세인인곡인이설기사자유지오즉부야통석차인야심시선생유상자지통고운)

계미(癸未：一七六三年) 겨울에 흥립(興岦)은 중형(仲兄)의 상(喪)을 당

했는데 선생께서 오셔서 곡을 하고 매우 애통해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평소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어찌 애통하지 않겠는가?』 하며 또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남을 곡함으로 인하여 그 사사로움을 드러내나 나는 그렇지 않다。』 하시니 이 사람을 통석하게 여김이 심한 것은 선생께서 아들의 상을 당한 뒤라 비통했기 때문이다。

先生嘗到孝悌堂有狂病者來候先生微視良久曰看君眼瞳如有所見是何物也其人懼然更起而坐曰果有恠奇難狀之物森羅眼前先生曰然邪忘之念蒙蔽其心者例有此等病當先正其心
(선생상도효제당유광병자래후선생미시양구왈간군안동여유소견시하물야기인구연갱기이좌왈과유괴기난상지물삼라안전선생왈연사망지념몽폐기심자례유차등병당선정기심)

선생이 일찍이 효제당(孝悌堂)에 도착하시니 미친병이 있는 사람이 와서 문안을 하니 선생께서 조용히 보시더니 한참 만에 말씀하시기를 『자네의 눈동자를 보니 보이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하

시니 그 사람이 두려워 일어났다가 다시 앉으며 말하기를 『과연 괴기하고 모습을 알 수 없는 온갖 물건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하니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가! 요사스럽고 망령된 생각이 그 마음을 가리면 이러한 병이 있으니 마땅히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

九九日通九會堂文
구구일통구회당문

九月九日에 구회당(九會堂)에 보낸 글

竊念吾人稟賦旣異才氣各殊自非上智之姿孰不由學而致也亦無不
절념오인품부기이재기각수자비상지지자숙불유학이치야역무불
移之性實緣以敎而能之雖其成就之分數不齊同歸名敎中士蓋亦導
이지성실연이교이능지수기성취지분수부제동귀명교중사개역도
率之規模有術宜作心學上人顧今敎弛文衰先父老貽後之澤漸盡利
솔지규모유술의작심학상인고금교이문쇠선부노이후지택점진이
拏俗鶩諸子弟向前之方益踈沒沒於千聖之書語言無味貿貿於百家
나속무제자제향전지방익소몰몰어천성지서어언무미무무어백가
之技面目可憎雖然渠等豈獨當其誅抑亦吾輩不得辭其責年歲考校
지기면목가증수연거등기독당기주억역오배부득사기책년세고교

雖未及三代之規月朔講磨不妨爲一家之則苟不有截嚴條目無以立篤實課程三物敎人之方亦可移於家也八刑糾民之典豈獨用於鄕乎上講中講之儀縱有嫌於佛氏進學退學之法宜取則於禮經夫如是則學豈不興歟文亦在玆矣專意擧業之士亦可辨內外賓主之分留心經術之人又豈無格致誠正之効缺

(수미급삼대지규월삭강마불방위일가지즉구불유절엄조목무이입독실과정삼물교인지방역가이어가야팔형두민지전기독용어향호상강중강지의종유혐어불씨진학퇴학지법의취칙어례경부여시즉학기불흥여문역재자의전의거업지사역가변내외빈주지분유심경술지인우기무격치성정지효결)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품부가 다르고 재주와 기운이 각각 다르니 보통사람보다 뛰어난 지혜와 자질이 아니면 누구라도 배움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으리오。 또 성품은 바뀌기 때문에 가르침으로로 인연해서 가능한 것이니 비록 그 일을 처음 목표대로 이루는 분수는 고르지 않으나 함께 성인의 가르침 속에서 선비로 돌아가고 또한 인도해 통솔하는 규모와 기술이 있으면 마땅히 마음을 갈고 닦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돌이켜보면 오늘날 교육은 해이해지고 글은 쇠퇴하였으니 먼저 돌아가신 어른들이 물려주신 혜택이 점점 없어지며 이익에만 이끌리고 세상의 유행에만 치달리고 있으니 여러 제자들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법이 더욱 소홀해져서 여러 성인(聖人)들의 글에만 빠지니 하는 말도 맛이 없고 여러 학자들의 기능에 무무①하니 면목이 가증스럽다。

그러나 어찌 저희들만 홀로 그 꾸지람을 당할 것인가? 우리들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해마다 상고하고 바로 잡는 것은 비록 삼대(三代：夏 殷 周)의 규모에 못 미치나 매달 초하루에 학문을 강하고 공부하는 것은 한집안을 위하여도 무방하나 진실로 엄한 조목이 있지 않으면 독실② 한 과정을 세울 수 없으니 세 가지 물건이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을 또한 집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팔형(八刑)③으로 두민(斜民)④하는 법전을 어찌 홀로 시골에서만 사용하겠는가? 상강(上講) 중강(中講)의 예식은 비록 불씨(佛氏)⑤들의 의심이 있으나 진학 퇴학의 방법은 마땅히 예경(禮經)의 법도를 따라야 할 것이니 대저 이와 같이 한다면 학문이 어찌 흥성하지 않겠는가? 문장도 역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뜻을 과거보는 일에 전념하는 선비도 역시 내외와 손

님과 주인의 분수를 분변할 것이며 경서(經書)에 관계된 학문을 하는 사람도 또 어찌 격물치지와 성의정심의 효과가 없겠는가?

【주(註)】

①무무(貿貿) : 무식하고 예절이 어두워서 언행이 서투름。
②독실 : 열성 있고 진실함。
③팔형(八刑) : 여덟 가지 형벌。
④두민(斜民) : 백성을 고발하는 것。
⑤불씨(佛氏) : 부처님을 믿는 사람。

序서

머리말 서문

百백一일契계序서

백일계의 서문

人인家가有유三삼大대節절奉봉先선也야婚혼也야喪상也야自자吾오伯백從종祖조府부君군營영置치五오世세以이上상墓묘祀사之지田전又우有유伯백從종叔숙父부子자繼계述술之지高고曾증兩양位위奠전埽소之지節절式식遵준古고禮례不불肖초輩배不불能능永영久구典전守수且차今금兩양世세祧조遷천奉봉祀사之지道도不불能능從종心심恒항庸용憂우悶민乃내與여諸제從종及급宗종孫손拮길据거三삼十십餘여緡민銅동今금幾기得득數수百백貫관計계俟사一일二이年년擇택地지立립別별祠사買매土토備비庶서羞수之지資자且차吾오家가婚혼喪상雖수不불太태侈치亦역不불太태儉검自자百백弗불庵암先선生생倡창率솔之지後후以이尙상禮례之지家가聞문於어世세挽만近근以이來래一일切체剝박落낙婚혼娶취不불能능以이時시者자有유之지送송終종不불能능無무憾감者자有유之지此차非비細세故고也야若약通통力력合합聚취收수得득如여干간谷곡物물補보長장幾기許허年년而이俾비

爲兩大事諸用之資則庶可免失時有憾之歎諸從及諸侄輩莫不欣然相應余曰諸君之言旣歸一則其計家收合之方將奈何曰自今春始以三斗爲式而秋亦如之限五年收之十年長之則十年之後可以除用而不乏余曰然凡事始之非難終之爲難若其永久則百世可期也若其無改則如一可圖也其以百一名是契使後之人顧名思義無或廢墜也於是乎五斛五斗之穀一朝來聚人心之齊一可知因推周輔爲都檢穀伯魯觀其兩有司也

사람들 집에는 세 가지 큰 행사가 있는데 조상을 받드는 것、 혼인하는 것、 장례하는 것이다。 나의 백종조부군(伯從祖府君)으로부터 오세(五世) 이상은 묘사 지내는 땅을 두었으며 또 백종숙부자(伯從叔父子)①도 계속해 할 수 있으며 고조(高祖) 증조(曾祖) 두 분의 제사 지내는 절차는 옛날 예

법대로 따른 것이나 불초한 우리들은 영구히 법대로 지키지 못하며 또 지금 양세(兩世)②의 조천(祧遷)③ 제사를 모시는 도리도 뜻대로 따르지 못하니 항상 송구스럽게 여기고 고민하였는데 이에 여러 종반간과 종손으로부터 열심히 일하여 삼십여(三十餘) 꿰미의 돈을 내어 지금은 거의 수백 관을 얻었으니 계산해보니 一二年만 기다려보면 땅을 가려서 별도로 사당을 세우고 땅도 사서 제사지내는 자료를 구비하며 또 우리 집안의 혼사(婚事)나 상사(喪事)를 치를 때 비록 크게 사치하지 않고 또한 크게 검소하지도 않으며 백불암선생(百弗庵先生)께서 창솔하신후로부터 예의(禮儀)를 숭상하는 집안으로 세상에 소문이 났으나 몇 해 전부터 일체 몰락하여 혼인도 제때에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도 잘 지내지 못하여 한 맺힌 사람도 있었으니 이러한 일이 있었음은 작은 탈이 아니다。

만약 서로 협력하여 약간의 곡물을 거두어 들이어 몇 해를 보장하여 길흉양대사(吉凶兩大事)의 모든 비용을 충당하게 한다면 때를 놓친 한도 면할 것이라 하니 여러 종반간들과 조카들이 흔쾌하게 서로 응하지 않음이 없기에 내가 말하기를 『제군들의 말이 이미 하나로 모이게 되었으니 그 가구 수(家口數)를 계산하여 수합하는 방법은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하였더니 말하기를 『금년 봄부터 시작하여 삼두(三斗)식으로 하고 가을에도 역시 같게 하여 五년 한도로 거두어 十年을 기르면 十年 후에는 가히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부족이 없을 것이다.』 하니 내가 말하기를 『그러나 모든 일이 시작은 어렵지 않으나 나중이 어려운 것이니 만약 영구히 한다면 백대 후(百代後)까지를 기할 수 있으며 만약 그 규정을 고치지 않고 시종 여일하다면 그 계획은 옳은 것이다. 백세일심(百世一心)이 되라고 계(契)를 백일(百一)로 이름 짓고 후세(後世) 사람들이 돌아보고 이름의 뜻을 생각하게 하여 혹시나 폐지되고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 하였다.

이제야 오석오두(五石五斗)의 곡물이 하루아침에 와서 모이니 사람 마음이 하나같이 고르다는 것을 가히 알았다. 그로 인하여 주보(周輔)를 도검(都檢)으로 하고 의백(毅伯)과 노관(魯觀)을 양유사(兩有司)로 하였다.

【주(註)】

①백종조부군(伯從祖府君) : 부군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백부 또는 종조부의 존칭.

②양세(兩世) : 두 세대.

③조천(祧遷) : 위패를 사당에 모시는 일.

與여浮부屠도義의沾첨序서

중 의첨의 서문을 보냄

東동方방佛불學학之지盛성自자羅라始시其기中중亦역必필有유奇기才재殊수質질之지拔발乎호萃췌者자而이俱구未미免면坐좌
亡망立립脫탈無무補보於어世세教교可가勝승惜석哉재公공山산桐동藪수之지菴암有유號호義의沾첨大대師사者자自자齠초齔츤
以이才재藝예聞문書서史사子자說설涉섭獵렵殆태盡진因인受수佛불學학西서遊유於어湖호之지名명勝승當당時시以이佛불學학
名명者자未미能능或혹之지先선也야歲세辛신丑축窮궁律율之지月월余여寓우其기寺사一일見견眉미睫첩得득其기爲위人인焉언
其기徒도數수十십各각執집冊책整정袈가裟사相상向향拜배揖읍以이次차列열坐좌正정所소謂위僧승室실人인人인滄창海해珠주
者자也야於어是시師사乃내對대案안說설般반若야楞능嚴엄儼엄然연有유嚴엄師사像상噫희楩편楠남杞기梓재不불遇우匠장則즉
不부得득爲위犧희樽준球구琳림琅랑玕간不불遇우工공則즉不부得득爲위琬완琰염是시故고仲중尼니歸귀歟여之지歎탄發발於어
在재陳진之지日일必필欲욕裁재度도其기狂광簡간者자以이此차也야惜석乎호今금世세無무聖성人인使사此차等등好호人인物물

墮落於清淨寂滅之境而莫之覺其返也韓昌黎之以縉紳先生之不告
타락어청정적멸지경이막지각기반야한창려지이진신선생지불고

吾道爲恨於文暢師者正獲我也且今師道之廢久矣不曾以聞道之先
오도위한어문창사자정획아야차금사도지폐구의부증이문도지선

後而徒計其年之上下獨於沾師之門有稱珠大師者長師四五年而能
후이도계기년지상하독어첨사지문유칭주대사자장사사오년이능

下其心屈其首惟以聞道爲尊是又可尚也已
하기심굴기수유이문도위존시우가상야이

동방 즉 우리나라의 불교학(佛敎學)이 번성한 것은 신라시대(新羅時代)부터 시작되어 그 중에는 또한 반드시 기이한 재주와 특수한 소질을 가진 사람이 모임에서 빼어날만한 사람이면서 모두 앉아서 망하고 서서 벗어나지 못하여 세상의 풍교에 도움이 없었으니 가히 애석한 일이다.

팔공산(八公山) 동화사(桐華寺)의 암자에 호를 의첨(義沾)이라는 대사(大師)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재능과 기예가 있다고 들었으며 서책(書冊)과 공자(孔子)의 가르침 등 온갖 책을 거의 다 읽어 보았으며 불교학(佛敎學)을 받기 위하여 서쪽으로 건너가 호남의 명승지를 유람하였으니 당시에 불교학(佛敎學)으로 이름난 사람도 별로 이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

하였다。

해는 신축(辛丑：一七八一年) 十二月 내가 그 절에 우거해 있을 때 그 사람의 눈썹을 한번 보고 그 사람됨을 알아보았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였는데 각자 책을 잡고 가사를 정제하여 서로 마주보고 절하며 읍하고 차례로 열 지어 앉으니 정히 이른바 스님방의 사람들마다 넓은 바다 속의 진주 같은 존재이다。 이에 스승이 책상을 마주보고 반야경 능엄경을 설교하는데 모습이나 언동이 생기 있고 점잖으며 엄숙한 스승의 모습이었다。

아! 편(楩) 남(楠) 기(杞) 재(梓)도 좋은 목수를 만나지 못하면 희준(犧樽)①을 얻지 못하며 구(球) 림(琳) 랑(琅) 간(玕)도 기술자를 만나지 못하면 완염(琬琰)②을 얻지 못하니 이렇기 때문에 공자(孔子)님께서 돌아가자는 탄식을 진(陳)나라에 있을 때 하셨으니 반드시 광간③한 사람을 바로잡고자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아깝도다! 지금 세상에 성인이 없어 이들 좋은 인물로 하여금 청정적멸(淸淨寂滅)④의 지경으로 떨어지게 해서 돌아옴을 깨닫지 못하게 했구나。

한창여(韓昌黎)가 학자 선생들이 우리 도(道)를 고하지 않은 것을 문창

사(文暢師)에게 한(恨)으로 여긴 것이 바로 내 마음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지금 스승의 도가 피폐된 지 오래여서 일찍 도를 듣는 것이 선후임을 말하지 않고 한갓 그 나이의 上下만 따지는데 홀로 의첨대사(義沾大師)의 문하생(門下生)⑤에 주대사(珠大師)라 칭하는 사람이 있어 스승보다 四五년이나 나이가 많으나 능히 그 마음에 굴복하고 머리를 숙여 오직 도(道)를 듣는 것으로 존경하였으니 이는 착하게 여기고 칭찬할 일이다。

【주(註)】

①희준(犧樽) : 제사에 쓰는 짐승모양으로 된 술 항아리。
②완염(琬琰) : 아름다운 옥구슬。
③광간(狂簡) : 뜻하는 바는 크나 행함이 없이 소홀하고 거칠음。
④청정적멸(淸淨寂滅) : 번뇌가 없는 열반의 경지。
⑤문하생(門下生) : 제자。

記기

기록한 것

遊公山記유공산기

팔공산(八公山)을 유람(遊覽)할 때 기록

赤적馬마清청和화節절十십二이日일李이聖성哉재與여仁인星성僉첨益익來래宿숙松송林림投투書서要요共공遊유公공山산而이期기自자架가巖암始시余여之지居거卽즉山산之지下하也야山산之지勝승槩개非비不불歷역覽람惟유其기心심交교神신會회曾증未미有유如여今금日일諸제君군子자也야乃내以이十십三삼早조策책笻공理리履리偕해之지者자三삼從종兄형仲중賓빈氏씨及급用용三삼從종也야遂수緩완步보至지架가城성門문外외綠록陰음交교翠취之지中중但단聞문㶁곽㶁곽之지流류出출於어巖암崖애若약將장行행人인聲성息식而이來래脚각疲피不불能능追추暫잠憩게于우道도傍방店점舍사直직向향天천柱주倚의枕침少소睡수而이起기夕석照조在재山산遊유人인下하笻공乃내相상邀요團단坐좌披피心심吐토膽담夜야久구乃내寢침夢몽魂혼清청爽상翌익日일使사識식路로僧승導도行행路로如여削삭壁벽杖장而이後후可가上상遂수命명僧승各각供공一일杖장通통彦언所소取취最최

勁경直직幼유輝휘請청見견而이通통彦언不부肯긍余여乃내引인寒한岡강先선生생遊유伽가倻야時시戲희言언郭곽存존齋재之지
說설以이供공一일笑소及급登등東동門문有유特특立립於어門문之지南남數수十십步보而이近근者자是시名명最최高고峯봉一일
逕경橫횡亘긍於어絶절頂정去거天천若약尺척北북顧고南남望망直직將장眼안力력爲위彊강界계但단見견遙요山산遠원水수隱은
見견於어雲운烟연之지表표而이已이相상戒계愼신步보東동迤이南남廻회縹표緲묘林임樹수之지間간忽홀見견有유清청淨정道도
場장卽즉佛불殿전也야雖수無무絶절特특怪괴奇기之지可가賞상高고處처山산陽양眼안界계豁활敞창遂수午오飯반至지把파溪계
汝여直직從종且차來래到도焉언因인向향聾농淵연亭정諸제君군曰왈百백弗불翁옹遊유息식之지所소豈기非비此차行행之지第제
一일大대觀관耶야未미至지亭정有유清청冷냉瀅형澈철之지聲성卽즉聾농淵연上상流류也야自자架가東동及급此차幾기三삼十십
里리之지間간峯봉巒만之지高고秀수巖암崖애之지盤반踞거奇기樹수異이木목之지蓊옹鬱울而이叢총薈회者자無무非비吾오目목
之지所소得득惟유其기清청聲성入입耳이神신爽상氣기清청物물累루自자消소者자始시見견於어此차矣의沿연溪계而이坐좌於어
淵연上상跳도波파散산落락鏡경面면照조人인顧고而이樂락之지不불覺각日일之지將장夕석遂수扶부杖장而이起기徧편觀관仁인

智堂基址及亭舍僧寮而上夫仁寺休宿翌朝轉向桐華山路逶曲升降甚艱而各自乘興或咏或歌寺之西有毗盧殿石佛甚大而一老緇在焉殿之東有一塔乃麗末所築而高可四五丈小轉東上有一柱門扁之曰八公山桐華寺鳳凰門卽寺之僧箕城大師筆也水口深長拱抱周疊一谷之中九房櫛比亦可爲山中一壯觀其古蹟則釋迦舍利齒在大雄殿其大如指長可數寸許寺之東有金堂地勢通敞尤可觀也聖哉曰此遊不可無記乃作同遊錄以作日後故事

적마(赤馬 : 丙午年의 異稱 一七八六年) 청화절(淸和節 : 음력二月) 十二日에 이성재(李聖哉)가 인성(仁星) 첨익(僉益)과 같이 와서 송림(松林)에 머물면서 서적(書籍)을 던지며 같이 팔공산(八公山)으로 놀러가자고 권하기에 가암(架巖)으로부터 시작하자고 약속하였다。 가암(架巖)은 내가 거

처하는 곳의 바로 산 아래이기 때문이다。

산의 아름다운 경치는 대강 역력히 보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오직 오늘과 같이 대인군자(大人君子)들과 그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사귀고 신명나는 모임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이내 十三日 일찍 지팡이를 준비하고 신발을 관리하여 함께 가는 사람은 삼종형(三從兄) 仲賓氏와 사촌(四寸) 용삼(用三)이다。 드디어 느린 걸음으로 가산성문(架山城門) 밖에 도착하니 녹음이 초록빛으로 서로 엉킨 가운데 다만 물소리만 들리며 바위 벼랑에서 흘러나오는데 장차 행인들의 습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다。

다리가 피로하여 따라가지 못하여 잠시 쉬기로 하여 길옆 점방(店房) 집에서 하늘을 바로 쳐다보고 베개에 의지하여 잠깐 졸다가 일어나니 석양빛이 산에 걸려 있는데 놀던 사람들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서로 마주보며 둘러앉아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밤이 오래되어 이내 잠이 드니 꿈속의 혼이 맑고 상쾌하였다。

이튿날 길을 아는 스님을 시켜 길을 안내하라고 하니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지팡이를 짚고 난 후에야 억지로 올라갈 수 있었다。 스님에게 부탁하여 각각 지팡이 하나씩을 공급하니 통언(通彦)이가 받은 것이 가장 튼튼

하고 곧았다。 유휘(幼輝)가 좀 보자고 청하니 통언(通彦)이가 안 좋아해서 내가 한강(寒岡：鄭逑) 선생이 가야지방(伽倻地方)에 놀러 갔을 때의 농담을 인용하고 곽존재(郭存齋)의 말을 하여 한바탕 웃음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동문(東門)에 올라가니 특별나게 건립(建立)되었으며 문의 남쪽 수십보 근처가 최고봉(最高峰)이란 이름인데 길 하나가 옆으로 갈라져서 산꼭대기로 가는데 자로 재는 것 같았다。 북쪽을 돌아보고 남쪽을 바라보니 눈에 보이는 곳까지가 경계이고 다만 멀리 산과 물이 숨었다 나타났다하는 것을 보며 산수화(山水畵)를 보는 것 같더라。 서로가 미리 방비해서 조심해 걷고 동쪽으로 가만가만 걸어서 남쪽으로 돌아가니 하도 넓어서 있는지 없는지 분간할 수 없는 나무가 우거진 숲 사이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있었는데 깨끗하여 더럽고 속됨이 없는 불도(佛道)를 닦는 도량 즉 부처님을 모셔놓은 불당(佛堂)이다。 비록 보통보다 뛰어나게 괴상하고 기이한 것은 없으나 칭찬할만한 것은 높은 곳 양지쪽에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범위 내가 넓어졌다 가렸다하는 것이더라。

드디어 점심을 먹고 파계(把溪)에 도착하니 여직사촌(汝直四寸)이 또 와 있었다。 그래서 농연정(聾淵亭)으로 향(向)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백불옹(百弗翁)께서 놀고 쉬시던 곳인데 어찌 이 행차(行次)에서 제일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 아니겠는가?』하였다。

정(亭)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맑고 시원한 물 흐르는 소리가 나니 즉 농연(聾淵)의 상류(上流)였다。 가암(架巖) 동쪽에서 여기까지 거의 삼십리(三十里) 사이에 산봉우리의 높고 아름다움이며 절벽이 굳게 뿌리박혀 걸터앉았으며 기이하고 이상한 나무들이 울창하며 풀들이 빽빽하게 무성한 것을 내 눈으로 본 것은 소득이 아닌 것이 없으며 오직 그 맑은 소리가 귀에 들어오니 정신이 상쾌하고 마음이 맑아져 세상의 여러 가지 얽매임이 자연히 사라짐을 여기서 처음 보았다。

시냇가에 앉아서 농연(聾淵)의 물결이 밀려왔다가 흩어지며 거울 같은 수면에 사람 얼굴이 비치는 것을 돌아보며 즐기다가 해가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었다。 저녁때가 되어 드디어 지팡이를 붙들고 일어나 인지당(仁智堂) 터와 정사(亭舍)① 승료(僧寮)②를 골고루 돌아보고 부인사(夫仁寺)로 올라와서 쉬며 숙박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동화사(桐華寺)를 향하여 산길을 비틀거리며 오르내리느라고 고생이 심했으며 각자 흥을 돋우기 위하여 혹 시(詩)를 읊고 혹은 노래를 부르고 했다。

절의 서쪽에 비로전(毘盧殿) 석불(石佛)이 있는데 아주 크며 한 늙은 스님이 있었다。 비로전의 동쪽에 한 탑이 있으니 고려말(高麗末)에 건축하였는데 높이가 四五길은 되고 동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다。 윗쪽에 一柱門이 있으며 편액에 팔공산동화사봉황문(八公山桐華寺鳳凰門)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 절의 기성대사(箕城大師)의 글씨다。

물이 흘러나오는 골짜기가 깊고 길어서 한 골짜기를 첩첩으로 둘러싸 안았고 큰 집들이 총총 들어섰으니 또 가히 산중의 하나의 볼만한 구경거리다。 그 고적은 즉 석가(釋迦)의 사리치(舍利齒)③인데 대웅전(大雄殿)에 있으며 그 크기가 손가락만하며 길이는 가히 몇 치 남짓 된다。 절의 동쪽에 금당이 있는데 땅의 생긴 모습이 높고 평평하여 더욱 볼만하다。

성재(聖哉)가 말하기를 이번 유람의 기록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이에 동유록(同遊錄)을 만들어 후일(後日)에 옛날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일로 하였다。

【주(註)】

①정사(亭舍) : 정자의 집。
②승료(僧寮) : 스님들이 거처하는 요사。
③사리치(舍利齒) : 부처님의 치아。

跋발

책의 끝에 그 책에 관하여 적은 글

書서趙조氏씨紫자石석硯연記기後후

조씨의 자석연에 관한 기록 뒤에 쓴 글

湘상江강硯연錢전塘당硯연硯연之지最최著저者자而이其기顯현晦회之지必필以이時시未미之지聞문也야巴파陵릉趙조公공紫자
石석硯연硯연之지奇기且차異이者자也야蓋개公공於어是시硯연也야初초以이七칠月월而이得득之지中중以이七칠月월而이失실
之지及급其기積적九구年년之지久구又우以이七칠月월而이得득之지則즉始시知지得득之지七칠月월非비偶우也야失실之지七칠
月월又우非비偶우也야終종得득之지以이七칠月월尤우非비偶우也야且차其기衝충濤도急급汰태疊첩石석狂광奔분之지中중轉전
走주亂난觸촉者자幾기數수百백武무而이無무一일傷상缺결處처端단州주紫자烟연色색眞진面면本본體체宛완然연復복歸귀於어
公공若약有유鬼귀護호而이神신保보者자存존焉언然연則즉是시硯연顯현晦회之지期기必필有유以이也야試시嘗상究구之지七칠
月월於어卦괘爲위否부否부者자泰태之지兆조也야四사友우之지中중硯연獨독壽수公공今금年년七칠旬순有유九구而이榮영衛위

豐潤氣力康健當偕是硯齊其壽而公之子孫之用是硯者又能繼公而得一泰之運夫誰謂無其理也是硯之顚末事實已悉於記者之手不復贅

(풍윤기력강건당해시연제기수이공지자손지용시연자우능계공이득일태지운부수위무기리야시연지전말사실이실어기자지수불복췌)

상강연(湘江硯)과 전당연(錢塘硯)이 벼루로서는 가장 뛰어난 물건이다。그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도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파릉(巴陵) 조공(趙公)의 자석연(紫石硯)도 벼루로서는 기이하고 또 이상한 물건이다。공(公)은 이 벼루를 처음 칠월(七月)에 얻었다가 중간에 七月에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구년(九年)이란 오랜 세월이 지났다가 또 七月에 얻었은즉 비로소 알건대 七月달에 얻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오 잃은 것도 칠월이 또 우연이 아니다。마지막에 칠월에 얻은 것이 더욱 우연이 아니다。또 그것이 급한 물살에 부딪치고 밀리며 돌에 겹쳐지고 미친 듯이 날뛰는 가운데 굴러다니다가 난폭하게 부딪친 것도 거의 수백 번 되었을 것인데도 한군데도 상하고 깨진 곳이 없으니 단주(端州)의 보랏빛 참모

습(端州紫烟硯의 참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公에게 돌아왔으니 귀신이 보호하고 보존하고 있는 것 같아 신기하였다。

그렇다면 이 벼루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한 것은 반드시 까닭 있는 일이다。 시험 삼아 일찍이 연구하여 보니 칠월의 점괘는 비(否)가 되니 비(否)는 태(泰)①의 조짐②이다。

사우(四友)③중에서 벼루만이 홀로 수명이 길으니 공(公)의 올해 나이가 칠십하고도 아홉이니 마음에 가지는 생기가 풍부하고 윤택하며 기력이 건강하니 마땅히 이 벼루와 같이 그 수명을 같이 하며 자손이 이 벼루를 사용하는 사람은 또 능히 공(公)의 뒤를 이어받아 일태(一泰)의 운을 얻을 것이니 그 누가 그러한 이치가 없다고 말하겠는가? 이 벼루의 내력은 이미 기록하는 사람의 손에 다 되었으니 다시 덧붙이지 않겠다。

【주(註)】

①태(泰):六十四卦의 하나 坤卦와 乾卦가 거듭된 것 하늘과 땅이 서로 사귐을 나타냄。

②조짐:일어날 동기가 보이는 변화현상。

③사우(四友):文房四友 글과 글씨에 관한 네 가지 물건 즉 종이 붓 먹 벼루。

觀관紫자巖암集집

자암집을 보고

昔석朱주夫부子자跋발魏위侍시郎랑集집曰왈建건炎염昭소興흥之지間간强강虜로憑빙陵릉兩양宮궁隔격絶절天천子자不불勝승
晨신夕석溫온凊정之지念념思사得득忠충智지敏민辯변之지士사往왕來래兵병間간以이通통和화好호而이見견大대夫부婾유媚미
畏외縮축無무肯긍行행者자獨독故고侍시郎랑建건安안魏위公공與여某모之지族족祖조秘비閣각公공以이諸제生생自자薦천慷강
慨개請청行행卒졸冒모白백刃인致치命명虜로庭정侍시郎랑公공尋심以이不불受수僞위官관握악節절以이死사而이族족祖조亦역
以이必필死사自자誓서偶우得득完완璧벽而이歸귀嗚오呼호今금紫자巖암公공當당時시所소遭조無무異리於어建건炎염昭소興흥
死사節절虜로庭정如여魏위侍시郎랑者자亦역有유其기人인而이偶우得득完완璧벽如여朱주秘비閣각者자惟유公공一일人인則즉
蓋개其기所소値치雖수有유生생死사之지不불同동然연其기捐연軀구殉순國국之지本본意의素소定정於어胸흉中중者자未미始시
不부同동於어朱주夫부子자所소云운云운故고余여有유感감于우懷회而이識지之지

옛날에 주자(朱子)께서 위시랑집(魏侍郞集)의 발문(跋文)에 말씀하시기를 건염(建炎)① 소흥(昭興)② 연대(年代)에 강력한 오랑캐가 세력을 믿고 남을 업신여겨 두 궁전(兩宮)이 연락이 끊어져 천자(天子)가 아침저녁으로 안부를 못해서 생각하기를 충성스럽고 지혜로우며 민첩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병사들 사이를 왕래하게 해서 서로 좋게 지내자고 하는 것을 생각하였으나 대부(大夫)를 보니 간사하고 아첨하며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시랑(侍郞)을 지낸 건안위공(建安魏公)이 아무개의 집안 할아버지인 비각공(秘閣公)과 같이 간다고 자천하여 한탄하며 가기를 청하여 서슬이 몹시 날카로운 칼날을 무릅쓰고 오랑캐의 뜰에서 목숨을 바치고 시랑공(侍郞公)이 구차하게 가짜벼슬을 받지 않고 절개와 지조를 지켜 죽었으니 족조(族祖)도 역시 반드시 죽음을 스스로 맹서하였으나 우연하게도 아무 탈 없이 돌아왔으니 오! 슬프다。 지금 자암공(紫巖公)께서 당시의 만난 경우가 건염(建炎) 소흥시대(昭興時代)와 같았으며 오랑캐의 뜰에서 죽으면서 절조(節操)를 지킨 것이 위시랑(魏侍郞)과 같은 이가 있을 것이나 우연하게 주비각(朱秘閣)과 같이 완전(完全)을 얻은 사람은 오직 공(公) 한사람뿐이니 즉 대개 그 만난 바는 비록 생(生)

과 사(死)는 같지 않지만 그 몸을 바쳐 순국하는 본뜻이 평소 가슴속에 정한 것은 주부자(朱夫子)께서 말 한 것과 같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나도 마음속에 느낀 바가 있어서 기록하노라。

【주(註)】

①건염(建炎)：중국 宋나라 때의 年號 一一二八~一一三○年。

②소흥(昭興)：중국 宋나라 때의 年號 一一三一~一一六三年。

箴 잠

훈계하는 뜻을 붙인 글

來雉箴 내치잠

꿩이 날아온 잠

歲甲辰元朝有二雉來止於漆溪別廟先生有恐懼修省之意命作箴戒之
(세갑진원조유이치래지어칠계별묘선생유공구수성지의명작잠계지)

해는 갑진년(甲辰年: 一七八四年) 正月 초하룻날 아침에 꿩 두 마리가 칠계사당(漆溪祠堂)에 날아와 앉으니 선생(先生)께서 송구하고 조심하며 반성하는 뜻이 있기에 잠(箴)을 만들어 경계하라고 명하였다。

恭惟古人日新其德聽鷄孜孜聞雷虩虩物來事至必究厥極祥焉加勉
(공유고인일신기덕청계자자문뢰혁혁물래사지필구궐극상언가면)

怪而益勑所以致物厥理不惑惟彼華虫有異鷄鶩耿介其性繡黻其色
(괴이익칙소이치물궐리불혹유피화충유이계목경개기성수불기색)

不恒近人遠避網弋月正元日咎翁齊沐翼翼以趨儼彼有侐是時疏趾
(불항근인원피망익월정원일구옹제목익익이추엄피유혁시시소지)

爰止廟脊愛同屋烏馴若庭鶴之來何故物意難測謂祥也宜語妖則忒
(원지묘척애동옥오순약정학지래하고물의난측위상야의어요즉특)

人曰卜爾翁則惕若曰惟咎翁無咎可革隨遇自警是爲篤學旣善又善
(인왈복이옹즉척약왈유구옹무구가혁수우자경시위독학기선우선)
然後聖域君子省察休咎皆福彼來文明示以取則終致譽命一矢之射
(연후성역군자성찰휴구개복피래문명시이취칙종치예명일시지석)
敢進數語庶効冥祝
(감진수어서효명축)

공손히 생각하니 옛날 사람은 날로 그 덕(德)을 새롭게 하도다。 새벽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부지런히 하였으며 천둥소리를 들어도 놀라 두려워하였도다。 물건이 오고 일이 이르게 되면 반드시 어떤 징조인가를 규명하였도다。 상서로우면 더욱 힘쓰고 괴이한 것이 있으면 더욱 신측하였도다。 그렇게 물건을 이루니 그 이치가 의혹되지 않도다。

오직 저 화충(華虫：꿩)은 닭과 집오리와 다른 데가 있어서 그 성질은 굳게 절개를 지키고 그 색깔은 예복같이 수(繡)를 놓아서 항상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멀리서 그물과 익(弋：주살)을 피한다。

정월 초하룻날 구옹(咎翁)①이 재계하고 목욕하였도다。 엄숙하게 앞으로 나아가니 엄연하고 고요한 사당이 있도다。 그 때 드문 발자취가 묘(廟：사당)의 지붕에 앉았도다。 사랑스럽기는 집 까마귀와 같고 길들기는 뜰

에 학과 같도다。 오기는 무슨 까닭인고? 그 뜻은 측량하기 어렵도다。 상서라고 일컬음이 마땅하고 요괴하다고 말하면 틀렸도다。 사람이 말하기를 점괴라고 하나 옹(翁)은 두려워하였도다。 말하되 오직 수구옹은 허물이 가히 개혁할 것이 없도다。 만남에 따라 스스로 경계하니 이는 독실한 학문인 것이다。

이미 착하고 또 착해진 연후에 거룩한 지역에 들어갈 것이다。 군자가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 살피면 허물은 없어지고 다 복이 될 것이다。 저기 온 문채 나고 밝은 것을 보고서 법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끝내 명예스러운 목숨을 이루는 것은 한 대의 화살이로다。 감히 두어 말을 바쳐 거의 명도의 축복을 본받고 권하노라。

【주(註)】

①구옹(咎翁) : 咎翁은 數咎翁인데 백불선생을 칭함。

銘 명

그릇 또는 쇠 돌 따위에 새긴 한문의 글귀

杖銘 장명

지팡이에 새긴 글귀

爾心虛用 이심허용
네 마음이 비어있어서 빈 것으로써

以虛受人 이허수인
사람을 받아들이고

爾體直用 이체직용
네 몸이 곧게 있어서

以直吾身 이직오신
내 몸도 곧게 하도다。

頌(송)

덕(德)을 찬양하는 글。

巡相尹公光顔遺愛頌(순상윤공광안유애송)

순찰사① 윤공광안(尹公光顔)의 국민에 대한 사랑을 남겨놓은 글。

皇華南國(황화남국) 황제의 권위와 덕망이 빛나는 남쪽지방에서

猗與召伯(의여소백) 아! 거룩한 소백과 같도다。

詢諮盡職(순자진직) 서로 물어서 수의하고 직무에 충실하여

奸貪遞魄(간탐체백) 탐관오리들의 혼(정신)을 바꾸어 놓았도다。

金剛玉潔(금강옥결) 금과 같이 강하고 옥과 같이 맑아

起廢革瘼(기폐혁막) 병폐를 일신하였도다。

興而賦也(흥이부야) (흥으로서 부하도다。)

【주(註)】

①순찰사(巡察使)：각(各) 도(道)의 군무(軍務)를 순찰하던 벼슬。

皇華原隰(황화원습) 황제의 권위와 덕망이 빛나는 높고 마른 땅과 낮고 젖은 땅에

召伯勞止(소백노지) 소백은 수고하였도다。

抑察眉忌(억찰미기) 눈썹으로 드러난 원망을 살피고

抑探肝忌(억탐간기) 마음에 있는 원망을 찾으며

抑化風忌(억화풍기) 풍기가 문란한 짓을 억제하여 감화시키고

抑禎邦忌(억정방기) 나라의 거리끼는 일을 제지하여 상서(祥瑞)롭게 하였도다。

興而賦也(흥이부야) (흥으로서 부하도다。)

皇華二章章六句 (황화이장장육구)

황제의 위덕 이장(二章)과 육구(六句)

天道循環 (천도순환) 천지자연의 도(道)가 쉬지 않고 잇따라 돌아

大寒陽春 (대한양춘) 대한(大寒)이 지나 따뜻한 봄철인데

克艱乂政 (극간예정) 어렵고 고생스러움을 이겨내고

上體聖神 (상체성신) 정사를 다스려 위로는 성신을 본받으며

百里塗炭 (백리도탄) 백리 아득히 몹시 곤궁한데

恫瘝乃身 (통환내신) 이내 몸이 병들고 아픈 것 같도다。

病弊積瘼 (병폐적막) 오래 묵은 병과 폐단은

一朝惟新 (일조유신) 하루아침에 오직 새로워졌도다。

比而賦也(비이부야) (비로서 부하도다。)

菀菀棠陰(울울당음) 울창한 아가위나무 그늘이

遍庇斯民(편비사민) 이 백성들을 가리어주니

翁歌童謠(옹가동요) 늙은이가 노래하고 어린이도 노래 부르며

樂此新年(락차신년) 이 새해를 즐기게 하였도다。

興而賦也(흥이부야) (흥으로서 부하도다。)

陽春二章一章八句一章四句(양춘이장일장팔구일장사구)

글 제목 양춘(陽春)은 이장(二章)이며 일장(一章)은 팔구(八句)이고 일장(一章)은 사구(四句)이다。

告由文(고유문) 큰일을 치르고 사당의 신명에게 보고하는 글

槐軒郭公廟宇開基告文(괴헌곽공묘우개기고문) 괴헌 곽공의 사당 터를 닦는 보고문

惟유靈령博박厚후其기質질直직方방其기德덕精정華화所소鍾종亘긍古고磅방礴박惟유天천是시慳간簡간人인乃내錫석物물固고
有유主주苞포山산華화族족杜두門문潛잠修수講강磨마聖성學학槐괴陰음滿만庭정軒헌號호乃내作작一일時시師사友우寒한旅여
慕모樂락奬장進진後후學학東동皐고沙사月월簞단食식萬만鍾종辭사受수必필擇택雲운視시軒헌冕면不불就취 徵징辟벽時시
値치龍용蛇사倡창義의山산北북世세代대寢침遠원尙상有유遺유馥복孝효孫손斯사怛달一일心심揆규畫획聿율來래胥서宅택於어
焉언則즉卜복地지旣기不불偶우時시亦역始시復복地지靈영人인賢현神신休휴是시測측潔결牛우之지執집洞형我아之지酌작肅숙
恭공齊제沐목有유儼엄單단席석終종始시允윤臧장惟유靈령之지澤택於어千천萬만年년保보佑우無무斁역

오직 존영(尊靈)께서는 넓고 후함은 그 바탕이요 곧고 방정한 것은 그 덕이로다。

정한 빛이 모이는 바로서 예전부터 방박하였도다。

오직 하늘이 이것을 아껴서 사람을 가려서 이에 주었도다。

본래 물건은 주인(主人)이 있으니 포산(苞山)의 빛나는 집안이로다。

문 닫고 가만히 수양하여 성인(聖人)의 학문을 갈고 익히며 공부하였도다。

느티나무 그늘이 뜰에 가득하여 집의 호를 괴헌(槐軒)이라고 지었도다。

한때 스승과 벗들은 후학들을 모아 학문을 권장하였으니 동고(東皐)와 사월(沙月)이로다。

도시락밥과 만금의 돈을 사양하고 받는 것을 반드시 가려 하였도다。

헌면(軒冕)①을 보아도 구름 보듯이 하며 벼슬을 주기 위하여 불러내도 나가지 않았도다。

때는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만나 의병(義兵)을 산북(山北)에서 모았도다。

세대는 멀고멀었으나 남은 향기는 아직 있도다。

효손들이 이에 슬퍼하여 한 마음으로 계획하였도다。

이에 와서 터를 보아 택지를 정하였도다。
땅이 이미 우연치 않으며 때도 또한 이미 회복되었도다。
땅이 영기롭고 사람이 어지니 신의 아름다움을 이에 칙량하겠도다。
조촐하게 소를 잡아 잔을 올리고 공손하게 목욕재계하여 자리가 엄연하도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으로 잘되는 것은 오직 존령님의 덕택이니 천만년(千萬年)이 가도록 오래오래 보우하시고 무너짐이 없도록 하소서。

【주(註)】

①헌면(軒冕) : 옛날 고관(高官)들이 타던 가마와 의관。

祭제文문 죽은 사람에 슬픔을 표하는 글

祭제百백弗불庵암先선生생文문 백불암선생에게 드리는 글

恭공惟유先선生생間간世세英영特특玉옥色색金금精정春춘溫온秋추肅숙弱약齡령志지學학着착脚각牢뢰卓탁見견善선勇용遷천
聞문義의則즉服복淵연冰빙戰전兢긍日일夕석惕척若약孝효悌제之지實실神신明명可가質질忠충信신之지積적豚돈魚어可가及급
惟유北북一일方방置치田전立립石석張장子자遺유制제呂여氏씨舊구約약以이此차行행道도亦역非비不부足족尙상志지潔결躬궁
孰숙知지陰음鶴학有유杞기西서方방包포瓜과以이葉엽

徵징之지寵총榮영戔전戔전玉옥帛백牢뢰守수東동岡강永영矢시薖과
軸축早조從종門문牆장竊절覸한平평日일乾건乾건體체穹궁潛잠心심對대越월夜야寐매夙숙興흥衣의帶대整정勅칙四사勿물三삼
省성自자强강不불息식敬경貫관動동靜정尤우嚴엄謹근獨독造조詣예精정密밀工공夫부純순熟숙面면背배粹수盎앙儼엄然연成성
德덕懋민玆자後후生생汨골沒몰擧거業업尋심常상詔조命명不불外외心심法법小소子자無무狀상未미效효萬만一일梁양木목遽거

折吾道寂寞後輩倀倀于何矜式一盃長痛九原難作
(절오도적막후배창창우하긍식일배장통구원난작)

공손히 생각하니 선생은 세상에 드문 재주로 뛰어났도다。

모습이 옥 같고 금같이 정하며 봄에는 온화하고 가을에는 엄숙하도다。

어린 나이에 학문에 뜻을 두어 다리에 굳세게 힘을 붙여 뛰어났도다。

선(善)을 보면 과감하게 옮기고 의(義)를 들으면 즉시 복종하였도다。

살얼음을 밟는 것 같이 조심조심하여 날과 저녁으로 조심하였도다。

부모(父母)에 효도(孝道)하고 형제(兄弟)간에 우애(友愛)의 진실은 천지(天地)의 신명(神明)이 가히 믿어주고 진심을 써서 거짓이 없는 것을 쌓으면 돼지와 물고기까지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오직 북쪽 한곳에 전지를 두고 돌을 세웠으니 장자 유제와 여씨의 옛 향약이로다。

이와 같이 도(道)를 행하니 또한 부족함이 없도다。

뜻을 숭상하고 몸을 깨끗이 하니 누가 숨어있는 학(鶴)을 알겠는가? 서쪽에 구기자(拘杞子) 나무가 있어 잎사귀로 참외를 덮어 쌌도다。

나라에서 부르는 은총이 옥백①으로 쌓이고 쌓였도다。

동쪽 언덕을 굳게 지키고 과축(薖軸)②을 영구히 맹세하였도다。

일찍이 문하에 나아가 가만히 평일을 엿보았도다。

조심조심 몸을 높이고 마음을 진정시켜 상대를 대하듯 하며 밤에는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옷과 띠를 정제하여 사물(四勿)③과 삼성(三省)④을 하고 스스로 힘쓰고 가다듬어 쉬지 아니하며 경(敬 : 공경)은 살아가는 형편에 따라 뚫어나가고 더욱 엄하게 홀로 있어도 삼가하며 학문과 기술이 깊은 지경에까지 나아가고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여 공부가 순수하게 잘 되었도다。

안면과 등이 순수하고 성하여 점잖게 덕(德)을 이루었도다。

응시하는 일에 골몰하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보통 가르치고 시키는 것이 마음법에 떠나지 않았도다。

소자(小子)⑤가 모양이 없어 만분의 일도 본받지 못하였도다。

대들보가 갑자기 꺾이어 우리 도(道)가 적막하였도다。

후배들이 마음이 초조하여 어느 곳에 모범을 보겠는가? 한잔 술에 길이 통곡하니 구원에서 일어나기 어렵도다。

【주(註)】

①옥백(玉帛)：고마운 뜻을 표하기 위하여 보내는 옥(玉)으로 된 예물。

②과축(薖軸)：서질(書帙)과 붓(筆)。은거(隱居)。

③사물(四勿)：하지 말라는 네 가지 일。곧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움직이지도 말라는 뜻。

④삼성(三省)：하루에 세 번씩 아침 점심 저녁때 잘못이 있나 없나를 돌이켜 보는 것。

⑤소자(小子)：제자들이 낮추어 일컫는 말。

祭一菴曺公采臣文 代作
(제일암조공채신문 대작)

일암 조공(채신)에게 드리는 제문。 대신 지음

龍圖一出龜書繼作乃天地間人物化化之妙而包含乎吉凶消長進退
(용도일출구서계작내천지간인물화화지묘이포함호길흉소장진퇴)

之機則聖人之開示後世可謂極矣自秦以下無一人得其眞訣者逮夫
(지기즉성인지개시후세가위극의자진이하무일인득기진결자체부)

周濂翁邵康節始覰得其太極之理詳說而明示以闡河洛之旨象數之
(주렴옹소강절시처득기태극지리상설이명시이천하락지지상수지)

妙程夫子作易傳以體用一原顯微無間之訓明之顧今之世能探其理
(묘정부자작역전이체용일원현미무간지훈명지고금지세능탐기리)

賾색其기妙묘者자有유幾기人인哉재公공性성氣기純순質질才재藝예超초邁매以이讀독書서律율身신爲위康강濟제事사業업聖성賢현經경傳전無무不불潛잠心심翫완索색而이至지於어一일部부羲희易역益익加가精정力력蓋개欲욕推추本본乎호天천人인性성命명之지理리窮궁到도底저眞진面면境경界계也야於어是시乎호結결茅모於어採채藥약山산中중以이雲운深심扁편其기亭정太태極극名명其기窩와常상嘐효嘐효然연自자樂락不불以이一일點점塵진累루介개於어胸흉中중則즉公공之지存존養양之지工공蓋개亦역有유得득乎호羲희畫획中중一일箇개理리而이已이也야嗚오呼호公공平평日일精정神신夢몽想상已이八팔於어先선天천混혼淪륜之지界계今금也야乘승化화而이歸귀必필先선訪방庖포羲희氏씨舊구墟허以이觀관日일月월星성辰신之지象상又우訪방塗도山산氏씨之지門문以이聽청其기彝이倫륜攸유叙서之지次차又우謁알周주公공孔공子자之지廟묘以이質질其기象상辭사繫계彖단之지旨지轉전而이遊유濂렴翁옹太태極극壇단康강節절安안樂락窩와拜배程정先선生생于우龍룡門문以이探탐一일原원無무間간之지妙묘而이倘당徉양於어天천根근月월窟굴之지間간夫부如여是시則즉公공之지歿몰與여世세間간人인醉취生생夢몽死사者자不불亦역異이乎호至지如여窮궁達달死사生생是시公공之지素소所소自자定정故고不불一일及급之지公공其기知지耶야

용도(龍圖)①가 하나 나오고 구서(龜書)②가 잇따라 나오니 이에 천지 사이에 사람이 변하고 변하는 신기함으로서 좋은 일과 흉한일 쇠하고 성하는 일 나아감과 물러나는 기틀 포함한 것인 즉 성인들이 후세 사람들에 열어 보인 것이 매우 지극한 일이라 하겠다。

진(秦)나라 이후부터는 진짜 비결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주렴계옹(周濂溪翁)과 소강절(邵康節)에 미쳐서 처음으로 그 태극(太極)의 이치(理致)를 엿보고 연어서 상세히 설명하여 명시하고 밝혀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의 취지와 형상과 수리의 신묘를 밝혔으며 정부자(程夫子 : 程頤)가 역전(易傳)을 지어 체용(體用)③ 즉 나타나지 않는 근본과 나타난 그 활동이 한 근원이며 들어남과 은미함이 간격이 없는 가르침을 밝혔으니 지금의 세상을 돌아보면 능히 그 이치를 찾아내고 그 신묘함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는가? 공(公)은 성품과 기질이 순박하고 정직하며 재주도 매우 뛰어나서 독서와 자기 자신을 단속하는 것으로서 강재 사업으로 삼으며 성인(聖人)과 현인(賢人)들의 가르침인 경전(經傳) 즉 사서삼경(四書三經)④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은 것이 없고 글의 깊은 뜻을 생각하여 찾으며 일부(一部) 복희씨(伏義氏)의 역학(易學)에 이르러서는 더욱 정력을 더하

니 대개 우주와 인생(人生) 인성(人性)과 천명(天命)의 이치(理致)를 잘 연구해서 궁극적으로 참된 면의 경계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채약산중에서 조그마한 초가를 짓고 그 정자(亭子)의 간판을 운심(雲深)이라 이름을 짓고 그 집은 태극(太極)이라 이름하여 항상 스스로를 즐기며 한점의 세상 일도 가슴속에 쌓아두지 않았으니 공(公)이 몸을 수양하는 공부가 대개 또한 복희씨(伏義氏)의 팔괘중의 하나의 이치에 얻는 것이 있을 뿐이다。

오! 슬프다。 공(公)의 평일 정신과 꿈과 생각이 이미 타고난 혼돈의 경계에 들어가 이제 세상을 떠나 돌아가니 반드시 먼저 복희씨(伏義氏)의 옛터를 찾아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며 또 도산씨(塗山氏)의 집을 방문하여 사람으로서 지켜야할 도리를 차례를 따라 설명하는 것을 듣고 다음으로는 또 주공(周公)과 공자(孔子)의 사당을 찾아뵈옵고 주역(周易)의 본문(本文)에 따른 설명(說明)의 글의 뜻을 물어보고 난 뒤에 주렴계옹(周濂溪翁)의 태극단(太極壇)과 소강절(邵康節)의 안락와(安樂窩)에서 놀고 정선생(程先生)을 용문(龍門)에서 배알하여 한 근원으로 간격이 없는 신묘(神妙)함을 탐구하면서 하늘 곧 달나라 사이에서 노니실 것이니 이와 같이

되면 공(公)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 뜻 없이 한평생을 꿈인 양 살아가는 것과 또한 다르지 않겠는가?

궁하고 달하고 죽고 사는데 이르러서는 공(公)이 평소 스스로 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도 미치지 못하였으니 공(公)은 그것을 알겠는가?

【주(註)】

①용도(龍圖) : 옛날 중국 복희씨(伏羲氏) 때에 황하(黃河)에서 용마(龍馬)가 지고 나왔다는 동서남북(東西南北) 중앙(中央)으로 일정한 수로 나뉘어져 배열된 다섯 점의 그림。 하도(河圖)라고도 한다。

②구서(龜書) : 옛날 중국 하(夏)나라의 우왕(禹王)이 홍수를 다스렸을 때 낙수(洛水)에서 나온 신령스럽고 기묘한 거북의 등에 쓰여 있었다는 글(洛書)。 서경(書經)의 홍범구주(洪範九疇)의 원본(原本)이 되었다하여 팔괘(八卦)의 법도 여기서 나왔다함。 홍범(洪範)은 중국 서경(書經)의 한편(篇) 기자(箕子)가 천지(天地)의 대법(大法)을 베풀어서 주(周)나라 무왕(武王)에게 준 것。 구주(九疇)는 서경(書經) 홍범(洪範)에 기록되어 있는 우왕(禹王)이 정한 정치 도덕의 아홉 가지 원칙 즉 구법(九法)이다。

③체용(體用) : 본체와 그의 운용。

④사서삼경(四書三經) :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대학(大學)의 사서(四書)와 시전(詩傳) 서전(書傳) 주역(周易)의 삼경(三經)。

祭제淸청彦언文문

청언(淸彦)을 위한 제문(祭文)

嗚오呼호天천之지生생淸청彦언何하豊풍其기賦부而이嗇색其기壽수也야淸청彦언天천姿자秀수美미生생長장於어禮예法법敎교化화之지庭정陶도鑄주其기才재器기薰훈炙자其기德덕性성而이斐비章장之지未미盡진餙식山산梁양遽거爾이頹퇴壞괴仰앙無무所소庇비覆부傍방無무所소憑빙依의若약使사魯노莽망者자當당之지必필將장駸침駸침乎호馳치驟취之지外외而이淸청彦언能능不불失실其기家가庭정典전型형守수己기有유度도應응事사有유節절明명於어義의理리之지分분辨변其기取취舍사而이執집守수之지蓋개確확如여也야且차勤근於어攝섭理리謹근疾질之지方방審심於어起기居거飮음食식之지節절則즉宜의得득遐하壽수張장大대我아先선師사遺유韻운而이卒졸中중途도短단折절彼피蒼창之지意의不불可가知지者자乃내如여是시乎호嗚오呼호瞻첨彼피北북山산有유亭정有유碑비睠권玆자漆칠溪계有유廟묘有유齋재無무非비淸청彦언之지所소用용心심處처也야況황師사門문大대事사一일未미有유頭두緖서而이平평日일之지遊유於어門문下하者자擧거老노病병且차死사落락落락星성散산成성就취無무期기

清彦其何能瞑目於地下也如豈只一未死屍耳平昔所聞於先師者一未能服膺而廓落窮廬草木同腐則歸拜先師之日不知何以爲顔也

청언기하능명목어지하야여렵지일미사시이평석소문어선사자일미능복응이곽락궁려초목동부즉귀배선사지일부지하이위안야

오! 슬프다。 하늘이 청언(清彦)을 낳으시니 그 소질(素質)은 풍부한데 어찌 그 수명(壽命)은 인색한가? 청언(清彦)은 타고난 모습이 아주 뛰어나게 아름다우며 예의와 법도를 가르쳐 감화시키는 가정에서 생장(生長)하였고 그 재주와 기량을 닦고 길러서 그 어질고 후한 성질을 빛나게 물려받았으며 아름다운 문장(文章)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산과 대들보가 갑자기 무너지니 우러러 보아 덮어줄 곳이 없으며 가까이에서 믿고 의지할 곳도 없으니 만약 노둔한 일을 시켜 당하게 한다면 반드시 빠르게 달아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나 청언은 능히 그 가정의 법도를 잃지 않고 모범적으로 자기 몸을 지키는 법이 있고 일에 응하는 데는 절도가 있으며 의리(義理)에는 사물의 갈지 않은 것을 알아내어 밝혔으며 그 쓸 것과 버릴 것을 가려내며 잡고 지키는 것이 다 이와 같이 확실하였으며 또 병을 조심하며 살아가는 방법에 부지런하였으며 음식을 알맞게 조절하는 것을 살펴서 즉 마땅

히 오래 살아서 우리의 먼저 가신 선생님의 남기신 운(韻)을 크게 벌려서 거창하게 하여야 하는데 갑자기 중도(中途)에 요수하여 죽으니 저 하느님의 뜻을 알지 못함이 이와 같은가?

오! 슬프구나。 저 북쪽 산을 바라보니 정자(亭子)도 있고 비석도 있으며 여기 칠계(漆溪)를 보니 사당도 있고 재사도 있는데 청언(淸彦)이 마음 안쓴 곳이 없는 곳이다。 하물며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 문하의 큰일은 하나도 두서가 없으며 평소 같이 놀던 제자(弟子)들도 거개가 늙고 병들어 또는 죽고 없어 별같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서 일을 계획대로 이루는 것을 기약할 수 없으니 청언(淸彦)이 어찌 땅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겠는가?

흥립(興岦)이 같은 것은 다만 하나의 죽은 시체일 뿐이라 평시나 지난날에 먼저가신 선생님께 들은 것을 하나도 마음에 간직하여 실천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있는 가난한 집에서 초목과 같이 썩어 없어진다면 저승에 돌아가서 선생님께 절하고 만나보는 날 어떤 얼굴을 하고 대하여야 할지 알지 못하겠도다。

祭제從종弟제景경日일 興旭흥욱 文문

사촌동생 경일(흥욱)의 제문

嗚오呼호景경日일之지氣기傑걸鷔오而이不불肯긍受수羈기靮적兮혜宜의若약可가以이成성就취而이遽거至지於어斯사乎호景경
日일之지志지曠광宕탕而이不불草초草초兮혜宜의若약可가以이永영壽수而이遽거至지於어斯사乎호二이十십二이年년之지幾기
何하多다兮혜何하厭염世세而이乘승化화無무迹적父부母모在재堂당上상春춘秋추尚상未미中중身신兮혜誰수謂위景경日일之지
先선逝서致치有유西서河하之지哀애哭곡空공閨규少소婦부之지殘잔縷루欲욕絶절兮혜哀애哀애乎호其기聲성之지不불忍인聞문
惟유其기必필死사則즉寧녕勿물生생兮혜胡호使사此차後후死사者자齎재咨자無무限한嗟차哉재景경日일兮혜其기志지甚심嘉가
能능知지孝효友우之지方방惟유玆자世세之지滔도滔도談담利리兮혜獨독景경日일之지不불曾증較교銖수兩양惟유吾오從종行행
之지僅근十십一일二이兮혜自자吾오仲중兄형之지逝서而이君군亦역甚심寃원雖수然연有유可가慰위於어景경日일兮혜哀애彼피
腹복中중遺유骨골頭두角각嶷억然연縱종景경日일之지寃원逝서兮혜尚상有유留류迹적人인間간魂혼氣기不불滅멸於어天천地지

兮倘能陰騭而長養日月荏苒兮易遷嗟景日兮漸遠其容嗚呼哀哉兮
혜당능음즐이장양일월임염혜역천차경일혜점원기용오호애재혜
言不可盡靈若有知庶幾來饗
언불가진영약유지서기래향

아! 슬프다。 경일(景日)이의 성질은 길들이지 않은 말과 같아 남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며 마땅히 큰일을 이루어 성공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경일(景日)이의 뜻은 넓고 개방되어 바쁘지도 않았으며 마땅히 수명이 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다니 二十二年의 세월이 어찌 많다고 하겠는가? 세상이 싫어서 없어졌는가? 자취도 없네。

부모님은 집에 계시고 나이도 아직 중년도 아니 되었는데 누가 경일(景日)이가 먼저 저세상으로 가서 서하(西河)의 슬픈 곡소리 이루고 있다고 하겠는가? 남편 없는 빈방의 젊은 아내의 몸부림치는 한숨이 실날같이 끊어지려 하는데 슬프고 슬프다。 그 소리 차마 듣지 못하겠네。

오직 그가 반드시 죽는다면 차라리 나지나 말 것이지 어찌 차후에 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이 없게 탄식하게 하는고?

슬프다! 경일(景日)이여! 그 뜻이 매우 아름다워서 능히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 우애의 방법을 알았고 오직 이 세상의 이해득실(利害得失)에 대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기세 있게 말을 잘 하지만 유독 경일(景日)이는 저울눈만큼도 교계하지 않았도다。

오직 우리 사촌형제(四寸兄弟) 사이는 겨우 열 한둘뿐인데 나의 중형이 사망한 뒤로부터 자네도 역시 매우 원통해 하였지。 비록 슬프긴 하나 경일에게는 위로가 될 만한 것이 있도다。 슬프다。 그의 배속에는 어린아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니 경일(景日)이는 원통하게 갔지만 머무른 자취가 있고 인간의 영혼은 천지(天地)간에 없어지지 않으니 혹시나 숨어서 도와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세월이 점점 흘러가니 슬프다! 경일이여 그 모습 점점 멀어지네。

오호! 슬프다。 말을 다하지 못하니 만약 혼령이 이것을 알고 있다면 와서 제사음식을 받아 들게나。

誄뢰文문

죽은 사람의 생전의 공덕을 말하는 글

誄뢰毅의中중文문

의중(毅仲)의 공덕을 위한 글

士사之지有유誄뢰非비古고也야然연達달善선之지實실而이不불爲위飾식誄뢰之지義의也야則즉吾오於어毅의仲중誄뢰其기可가
已이耶야嗟차乎호毅의仲중之지生생天천果과無무心심乎호果과無무心심也야胡호爲위乎호好호其기姿자好호其기性성而이生생
之지又우必필於어賢현父부兄형家가嗟차乎호大대賢현之지迹적熄식久구矣의道도學학不불明명俗속尙상貿무貿무百백弗불先선
生생崛굴起기南남服복奬장進진後후學학毅의仲중濡유染염詩시禮례之지訓훈若약可가副부其기姿자性성之지好호而이何하心심
腹복之지症증反반作작孼얼而이嗇색其기年년也야歲세甲갑寅인十십月월作작花화山산行행是시寒한極극候후也야非비有유病병
者자遠원役역時시節절而이花화山산乃내毅의仲중姊자與여女녀所소適적鄕향也야豈기不불顧고其기身신徒도爲위情정所소使사
哉재命명也야已이嗟차乎호毅의仲중毅의仲중於어吾오以이族족誼의而이有유友우道도焉언規규箴잠之지際제言언語어必필遜손

抑不以已是有自矜色話情好則怡怡焉其色和也講文義則切切焉其辨明也是故梁摧後相與之情惟毅仲是已今焉已矣吾將何以爲懷惟茲丙辰十一月二十九日乃毅仲終祥也過是日則無日可哭而病喘之身怕寒入山吟苦難出茲構數行誄借人告靈几毅仲知耶嗟呼毅仲

선비가 죽은 사람의 생전의 공덕을 치하하는 것은 옛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주 잘한 일의 진실을 치장하지 않는 것이 죽은 사람의 공덕에 대한 바른 행동이다。 곧 내가 의중(毅仲)이를 칭찬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이다。

슬프다! 의중(毅仲)의 난 것이 하늘이 과연 무심하였는가? 과연 무심했다면 어찌하여 좋은 그 모습 좋은 그 성품이 타고나기를 또 훌륭한 부형(父兄)의 가정(家庭)에서리오。

슬프다! 뛰어나게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의 자취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는데 도덕과 학문이 밝혀지지 못하고 풍속과 숭상하는 것이 어두워 무무하다。

백불선생(百弗先生)이 남쪽 지방에서 우뚝 나타나서 뒤에 배우는 사람들을 힘써 나가도록 권장하니 의중(毅仲)이 시문(詩文)과 예도(禮道)의 가르침에 물들어서 그 타고난 모습과 성품의 좋은 것에 부응할 것인데 어찌하여 마음과 배안에 있는 증세가 도리어 화가 되어 그 나이에 가게 했는가?

그 해 갑인(甲寅:一七九四年) 十月에 화산(花山)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몹시 추운 계절이었다。 병(病)없이 성한 사람도 먼 길 가기에는 고역(苦役)인 계절인데 화산(花山)에는 의중(毅仲)의 누님과 딸이 함께 시집간 지방이다。 어찌 그 몸을 돌보지 않고 정을 위하여 걸어가라고 시켰는가? 이것도 운명인가?

슬프다! 의중(毅仲)아 의중(毅仲)이는 나와 친척의 정의와 친구로서 사귀는 의리도 있었다。 규칙과 잠언(箴言)을 말할 때는 말은 반드시 공손히 하고 내가 옳다고 하여 스스로 자랑하는 빛이 있지 않으며 정 있고 좋은 이와 말할 때는 기쁘고 즐거우며 그 얼굴빛은 평화롭고 글의 뜻을 강론할 때는 몹시 지성스럽고 간절하며 그 옳고 그름을 밝혔으니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서로 함께하는 정이 오직 의중(毅仲)이 뿐이더니 이제는 그뿐이로다。 내가 장차 어떻게 회포를 풀리오? 오직 이 병

진(丙辰: 一七九六年)十一月 二十九日은 의중(毅仲)이의 삼년상(三年喪)을 마치는 날이다。 이날이 지나고 나면 곡할 날이 없으며 병들어 기침하는 몸이 추위가 두려워 산속으로 들어와 괴로움으로 신음하며 출입하기가 어려워서 여기 몇 줄의 뢰문(誄文)을 지어 사람을 시켜 혼령을 모신 책상 앞에서 고하니 의중(毅仲)이는 아는가?

아! 슬프다。 의중(毅仲)이여!

行행狀장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평생의 행적을 적은 글

仲증兄형崇숭崖애公공行행狀장

둘째형인 숭애공(崇崖公)의 행장(行狀)

公공諱휘興흥義의字자方방甫보號호崇숭崖애本본慶경州주人인世세系계在재五오代대祖조茶다川천府부君군墓묘碣갈高고王왕父부諱휘翊익南남曾증王왕父부諱휘慶경濡유王왕父부諱휘壽수天천考고諱휘文문錫석妣비密밀陽양朴박氏씨重중榮영女녀龍룡巖암先선生생雲운後후也야 英영廟묘丙병午오十십二이月월十십八팔日일生생公공于우智지妙묘里리第제幼유時시見견隣인兒아受수讀독歸귀告고請청學학先선考고許허之지時시平평山산申신公공益익晋진能능文문善선敎교授수且차儀의貌모嚴엄重중眞진師사表표長장者자先선考고遂수托탁以이公공公공日일早조起기課과讀독未미嘗상有유愆건於어納남誦송之지節절尋심常상動동作작惟유敎교是시聽청申신公공曰왈此차兒아才재而이遜손頗파似사顏안子자之지愚우旣기冠관詞사藻조大대進진志지尙상超초俗속時시百백弗불庵암先선生생講강道도於어漆칠溪계公공從종先선生생遊유得득知지吾오道도自자灑쇄掃소應응待대可가

至於精義入神日講磨而不懈退而與先生之子公普氏講學於溪舍或山寺
(지어정의입신일강마이불해퇴이여선생지자공보씨강학어계사혹산사)

공(公)의 휘(諱)①는 흥의(興義)요 자(字)②는 방보(方甫)이며 호(號)③는 숭애(崇崖)이다。 본관(本貫)은 경주(慶州)니 세계(世系)④는 오대조(五代祖)이신 다천부군(茶川府君)⑤의 산소(山所) 앞에 있는 비석에 있다。 고조부(高祖父)의 휘(諱)는 익남(翊南)이요。 증조부(曾祖父)는 휘가 경유이며 조부(祖父)의 휘(諱)는 수천(壽天)이고 아버지의 휘(諱)는 문석(文錫)이며 어머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중영(重榮)의 딸이니 용암(龍巖)선생 운(雲)의 후손(後孫)이다。

영조(英祖)⑥ 병오(丙午：一七二六年) 十二月 十八日에 공(公)은 지묘리(智妙里) 집에서 나셨다。 어릴 때 이웃집 아이가 글을 배우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서당에 가게 해달라고 청하니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 그때 평산신공(平山申公) 익진씨(益晋氏)가 글을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예의범절과 행동이 엄중하여 참으로 학식과 인격이 뛰어나 모범이

되는 어른이시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드디어 신공(申公)에게 부탁하시니 공(公)이 날마다 일찍 일어나서 배우고 읽어서 일찍이 납송(納誦)⑦의 절차에 잘못이 없고 보통 때 행동도 오직 가르침만을 듣고 실천하니 신공(申公)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재주가 있고 겸손하며 흡사 안자(顔子)의 고지식함과 같다고 하였다。

이미 어른이 되니 시가(詩歌)와 문장(文章)이 크게 발전하여 뜻은 오히려 세상풍속을 뛰어넘었으니 그 때 백불암선생(百弗庵先生)이 칠계(漆溪)⑧에서 도(道)를 강의하고 설명하게 되니 공(公)은 선생을 따르고 사귀어 우리의 도(道)가 물 뿌리고 쓸고 응하고 대답함으로부터 가히 경서(經書)의 교묘한 사리가 천지신명(天地神明)에 통한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학문(學問)을 갈고 닦아 게으르지 않았고 물러나서는 선생(先生)의 아들 공보씨(公普氏)와 함께 계사(溪舍)⑨나 산속에 있는 절에서 학문을 연구하였다。

【주(註)】

①휘(諱):죽은 사람의 이름。

②자(字):본 이름 이외에 부르는 이름。

③호(號)：별명처럼 부르는 딴이름。 택호(宅號)。
④세계(世系)：대대(代代)의 계통(系統)。
⑤부군(府君)：돌아가신 아버지 또는 남자 조상의 존칭。
⑥영조(英祖)：朝鮮 二十一代 王。
⑦납송(納誦)：배운 것을 뒤로돌아 앉아 어른들께 외어서 보고하는 것。
⑧칠계(漆溪)：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옻골。
⑨계사(溪舍)：시냇가에 있는 집。 북계정사。

歲戊辰冬余年十三往從於夫仁之仙菴諸公晨起相揖各就座看書公
세무진동여년십삼왕종어부인지선암제공신기상읍각취좌간서공

之所讀乃心經也有所疑義必講究而辨之又以朞三百及天命新舊圖
지소독내심경야유소의의필강구이변지우이기삼백급천명신구도

討論不撤且其筆格不凡酷好退陶眉叟兩先生手分模倣極肖觀者莫
토론불철차기필격불범혹호퇴도미수양선생수분모방극초관자막

不稱美嘗語先妣曰鶴沙筆甚奇玅因自書於前蓋其筆路回回連絡有
불칭미상어선비왈학사필심기묘인자서어전개기필로회회연락유

如一條線藤纏蘿結其後自仙菴上書先妣而用其體先妣還書責之曰
여일조선등전라결기후자선암상서선비이용기체선비환서책지왈

諺書亦有鶴沙體乎何其尚奇如是
언서역유학사체호하기상기여시

그해 무진(戊辰：一七四八年) 겨울 내 나이 十三세 때 부인사(夫仁寺) 선암(仙菴)에 따라가니 여러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 서로 읍을 하고 각자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는데 공(公)이 읽는 것은 심경(心經)이었다。 의문나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방법을 궁리하여 판단하고 또 기삼백(朞三百)과 천명신구도(天命新舊圖)로서 토론하여 그치지 않았으며 또 그 글씨의 품격은 보통이 아니어서 퇴도(退陶)와 미수(眉叟：許穆) 두 분 선생님을 몹시 좋아했으며 솜씨도 본떠서 매우 닮았으니 보는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다。

일찍이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학사(鶴沙)의 글씨가 매우 기묘하다 하여 스스로 내 앞에서 썼는데 대개 그 붓의 놀림이 돌리고 돌리면서 서로 연결이 되고 가로와 세로가 서로 얽히면서 끝맺는 것이 하나같았다。 그 후에 선암(仙菴)에서 어머니께 글을 보냈는데 그 필체(筆體)를 사용(使用)하니 선비(先妣)께서 글을 돌려보내면서 꾸짖어 말하기를 『언문(諺文) 글씨도 역시 학사체(鶴沙體)가 있는가? 어찌하여 그 기묘함을 숭상함이 이와 같은가。』 하셨다。

【주(註)】

퇴도(退陶): 陶山書院 李退溪 先生。

公普氏聞其所由歎曰族叔才分志尚蓋有自來矣金持平宗敬以同門
공보씨문기소유탄왈족숙재분지상개유자래의금지평종경이동문
高足識見已高公與之講大學日日論辨若芻豢之悅口也平居敬以律
고족식견이고공여지강대학일일론변약추환지열구야평거경이율
身禮以刑家動容出辭不問可知爲先生弟子也配孺人盧氏系出安康
신예이형가동용출사불문가지위선생제자야배유인노씨계출안강
校理敬菴先生景任之後慶運之女也婦兄盧澺及金潤慶兄弟朴思濬
교리경암선생경임지후경운지녀야부형노억급김윤경형제박사준
洪天休鄭彦修金淳諸人俱是江右之一代知己也
홍천휴정언수김순제인구시강우지일대지기야

공보씨(公普氏)가 그 사실을 듣고 감탄하면서 말하기를 족숙(族叔)①의 재주와 뜻은 대개 옛날부터 내려온 바가 있다고 하였다。

김지평(金持平) 종경(宗敬)은 동문(同門)들 중에서 가장 학문이 뛰어나고 사물을 식별하고 관찰하는 능력이 높았다。 공(公)도 같이 대학(大學)②

을 강(講)하는데 하루하루 토론하고 변명하는 것이 추환(芻豢)③ 같은 음식이 입맛에 맞는 것 같았으며 (아주 잘 한다는 뜻) 평상시에는 경(敬)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고 예(禮)로써 가정(家庭)을 다스리니 움직이는 모습과 말하는 것은 묻지 않아도 가히 선생(先生)의 제자(弟子)임을 알 수 있었다。

아내는 유인(孺人)④ 노씨(盧氏)이니 집안의 계통은 안강(安康)의 교리(校理)를 지낸 경암선생(敬菴先生) 경임(景任)의 후손(後孫)인 경운(慶雲)의 딸이다。 부인(婦人)의 오빠인 노억(盧澺) 및 김윤경(金潤慶) 형제(兄弟)와 박사준(朴思濬) 홍천휴(洪天休) 정언수(鄭彦修) 김순(金淳) 등 여러 사람 모두가 강(江)의 우측(右側)에 사는 한 세대(世代)의 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이었다。

【주(註)】

①족숙(族叔)：일가 아저씨。
②대학(大學)：사서(四書)의 하나。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대학(大學)。
③추환(芻豢)：개 말 소 돼지 등을 기름。
④유인(孺人)：남편의 직위에 따른 계급。

以이道도義의相상責책勉면滄창海해翁옹鄭정瀾란亦역落락拓척高고士사周주遊유多다聞문公공見견而이悅열之지遂수移이居거
作작隣인然연曠광候후師사門문懼구志지業업或혹惰타以이時시來래候후聽청受수多다日일時시海해平평朴박某모遭조其기本본
生생喪상不불遵준降강制제知지舊구多다非비之지猶유堅견執집不불回회公공往왕哭곡靈영牀상而이直직出출曰왈君군非비名명
敎교中중人인自자此차相상絶절朴박雙쌍然연而이拜배曰왈無무以이報보生생育육之지恩은敢감違위先선王왕之지制제徑경情정
而이直직行행今금公공規규之지旣기峻준安안敢감守수拗요滯체之지見견卽즉從종禮례而이變변之지僑교寓우有유年년以이爲위
交교遊유雖수樂락猶유不불若약親친戚척決결意의撤철還환使사余여先선歸귀公공則즉姑고留유癸계未미十십二이月월十십八팔
日일歿몰于우水수月월村촌之지僑교舍사臨임化화之지際제精정神신不불亂란告고訣결於어伯백氏씨公공無무一일分분悲비苦고
色색享향年년三삼十십八팔以이明명年년正정月월奉봉柩구而이還환先선生생臨임哭곡極극其기痛통曰왈斯사人인也야而이至지
斯사耶야吾오之지所소期기待대者자斯사人인而이斯사人인而이至지斯사則즉吾오將장何하以이爲위懷회也야

도덕상의 의리로 서로가 나무라며 부지런히 공부하여 창해옹(滄海翁) 정난(鄭瀾)도 또한 역경에 빠진 고결한 선비로 두루 돌아다녀 유람하여 보고 들은 것이 많으니 공(公)이 보고는 좋아하여 드디어 거처를 옮겨 이웃이 되었으나 선생님께 안부 묻는 것이 멀어져서 뜻과 일이 혹시 게으르지 않을까 걱정하여 수시로 와서 문안드리고 학문을 배우고 듣는 일이 많았다。

그때 해평(海平)에 사는 박모(朴某)가 그의 본생가(本生家)①의 상(喪)을 당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제도를 따르지 아니하니 아는 사람들이 많이 그르게 여기는데도 오히려 고집을 부려 되돌리지 않아 공(公)이 가서 영위(靈位)를 모신 책상 앞에서 곡을 하고는 곧바로 나오면서 말하기를 『자네는 인륜의 명분을 밝히는 가르침을 받는 중인 사람이 아닌가? 이제부터는 서로 절교를 하겠다。』 고하니 박(朴)이 두렵게 여겨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낳고 기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서 감히 선왕(先王)②의 제도를 어기고서 곧이곧대로 행하였으나 이제 공(公)이 말한 법규(法規)는 이미 엄중하니 감히 고집스럽게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즉시 예법(禮法)에 따라 변경하였다。

임시로 우거한지 몇 해를 서로 사귀어 놀아서 비록 즐거웠으나 오히려

친척 갈지 않아 짐을 싸서 돌아올 것을 결심하고는 나로 하여금 먼저 돌아가라고 하였고 공은 잠시 머물다가 계미(癸未: 一七六三年) 十二月 十八日에 수월촌(水月村)의 임시 집에서 돌아갔으며 세상을 떠날 때도 정신이 어지럽지 않아서 백씨(伯氏)에게 이 세상 마지막 이별을 고하는데도 슬프고 괴로운 표정은 조금도 없었으니 한평생 살아온 나이가 三十八세이다。 그러므로 명년 正月에 운구(運柩)를 하여 돌아오니 선생께서 자리에 오셔서 곡을 하는데 그 애통함이 극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기대하던 바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으니 나는 장차 어떻게 지나간 옛일을 돌이켜 생각할고?』라고 하였다。

【주(註)】

①본생가(本生家): 양자간 사람의 본디 부모의 집。

②선왕(先王): 옛날 어진 임금을 말함。

吾惡夫涕之無從吾非因吾私而痛之惟斯人之是痛時先生有子喪故
(오오부체지무종오비인오사이통지유사인지시통시선생유자상고)

有是語乃以二月日克襄于夫仁寺下仙菴之西麓子坐原公三十以後
(유시어내이이월일극양우부인사하선암지서록자좌원공삼십이후)

始得二男而俱不育有二女長適韓山李塾次適碧珍李仁覲盧夫人以
己丑正月十四日歿葬于解北村竗谷之北麓艮坐原以從弟興逵子鎭
德爲嗣鎭德有五子長瀞繼本生後次滌渤洋淳皆幼李塾一女李仁覲
一女公積工於文若讀書時翁錄及朋友間唱酬之什亦多而皆遺失於
亂帙中得次杜詩江月憶舍弟韻詩曰雪壓寒江夜離群獨鴈聲團圓愁
案暗消息卜燈明牕月鄕關遠洲雲客夢生何須問生理分散甚於兵此
必癸未至月間所作也

『내가 싫어하는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것은 내가 내 사사로운 일로 인해서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사람을 생각하여 애통해 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니 그때 선생은 자제(子弟)의 상고(喪故)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二月 어느 날에 부인사(夫仁寺) 아래쪽

선암의 서쪽 기슭의 자좌(子坐)에 장사지냈다。 공(公)은 三十 이후에 처음으로 두 아들을 얻었으나 모두 키우지 못하였고 두 딸이 있어서 맏이는 한산이씨(韓山李氏) 숙(塾)에게 시집보내고 둘째는 벽진이씨(碧珍李氏) 인근(仁覲)에게 시집보냈다。

노부인(盧夫人)은 기축(己丑 : 一七六九년) 正月 十四日에 죽었으니 장지(葬地)는 해북촌묘곡(解北村妙谷)의 북쪽 기슭의 간좌(艮坐)이며 사촌(四寸)동생 흥규(興逵) 아들 진덕(鎭德)으로 대(代)를 잇도록 하였다。 진덕(眞德)은 아들이 다섯이 있는데 맏이 정(瀞)은 본생(本生)①의 뒤를 잇도록 하고 다음으로 록(淥) 발(渤) 양(洋) 후(淳) 무두 어리다。 맏사위 이숙(李塾)은 딸 하나 둘째 사위 이인근(李仁覲)도 딸 하나이다。

공은 시문의 기술을 쌓아 독서할 때 쪽지에 기록한 것과 친구들 사이에 서로 부르고 읊은 글이 또한 많았는데 모두 잃어 버렸고 책 갑질이 흩어진 중에서 얻은 것이 두시(杜詩)②의 강물에 뜬 달을 보고 자기 동생을 생각한다는 운(韻)으로 쓴 시(詩)는 다음과 같다。 『밤에 백설(白雪)이 내려 차가운 강물을 누르고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우는 기러기 소리 슬프기도 하다。 책상 앞에 둥글게 모여앉아 수심은 깊은데 소식은 등잔에 불을 밝

히라고 하네。 창에 비친 달빛은 고향이 멀고 물가에 떠있는 구름은 나그네의 꿈을 살아나게 하네。 어찌하여 사람 사는 이치를 묻는가? 갈라져 흩어짐은 전쟁 때 보다 더하다네。』 이것은 계미(癸未:一七六三年) 十一月 사이에 지은 글이다。

【주(註)】

①본생(本生):양자(養子)된 사람의 본래 부모의 집。

②두시(杜詩):두보(杜甫)의 시(詩)。중국 당(唐)나라 때의 시인(詩人)으로 자(字)는 자미(子美)이다。

辭氣凄切愴恨非尋常離索之什幽明去留之際天機先動留作後死者
之痛有時披閱不覺涕自霑襟公嘗得眉叟圖書帖又得一片石磨而藏
之未及留名於其上且公所手書皆未及成帙嘗抄性理大全而有餘紙
故余抄朱書而足之心經爲三從兄仲賓氏書上一卷而下一卷余所書

사기처절창한비심상리색지십유명거유지제천기선동유작후사자
지통유시피열불각체자점금공상득미수도서첩우득일편석마이장
지미급유명어기상차공소수서개미급성질상초성리대전이유여지
고여초주서이족지심경위삼종형중빈씨서상일권이하일권여소서

也家藏心經紙頭所書用退陶體者乃公手筆而其餘余所書也凡詩策草稿及他手迹所存皆掇拾而付之鎭德使之藏焉
(야가장심경지두소서용퇴도체자내공수필이기여여소서야범시책초고급타수적소존개철습이부지진덕사지장언)

밖으로 나타난 표정이 매우 처량하고 슬픔은 보통 떨어져있는 회포의 글이 아니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가고 머무는 즈음에 하늘의 비밀이 먼저 움직여 뒤에 죽은 사람을 애통하도록 하였으니 시간이 있어 펼쳐보니 나도 모르게 저절로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신다。

공(公)은 일찍이 허미수(許眉叟)의 도첩을 얻고 또 한 조각의 돌을 얻어 잘 갈고 닦아서 보관했으나 그 위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였고 또 공(公)이 손수 쓴 것이 모두 질(帙)은 되지 못 하였으며 일찍이 성리대전(性理大全)을 초본(抄本)하였으며 나머지 종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자(朱子)가 지은 글을 초본(抄本)하여 심경(心經)을 보충하였다。 삼종형(三從兄)인 증빈씨(仲賓氏)가 책 상(上) 한권을 쓰고 하(下) 한권은 내가 쓴 것이다。 집에 보관(保管)하고 있는 심경(心經)의 책머리에 퇴도체(退陶體)를 쓴 것은 공(公)의 자필(自筆)이고 나머지는 내가 쓴 것이다。

대개 시(詩策)의 원고(原稿) 및 기타 손자취가 있는 것은 모두 거두어 모아서 진덕(鎭德)을 시켜 보관하도록 하였다。

嗚오呼호惜석哉재公공德덕性성淳순美미才재格격超초倫윤又우從종賢현師사良양友우耳이擩유目목染염者자多다若약假가之지以이年년使사之지積적累루於어學학則즉長장途도志지業업可가綽작綽작成성就취而이卒졸抹말撥살于우世세終종至지於어無무一일箇개血혈嗣사遺유與여典전型형者자乃내以이降강衷충之지日일又우乘승化화而이歸귀其기非비尤우可가哀애者자耶야蓋개嘗상聞문天천人인一일理리也야天천地지間간純순正정之지氣기鍾종而이爲위人인則즉人인之지得득全전是시氣기者자復복與여天천地지合합是시知지公공之지歸귀化화於어降강衷충之지日일者자乃내是시全전歸귀於어天천地지間간者자也야然연則즉公공之지精정神신氣기魄백與여水수月월同동流류長장留류影영響향於어世세也야而이又우何하悲비嗚오乎호興흥豈렵年년踰유七칠旬순又우抱포疾질病병死사亡망無무日일公공之지處처心심行행事사表표表표可가稱칭者자若약不불識식其기萬만一일則즉公공之지跡적將장泯민泯민於어世세也야玆자於어吟음病병中중提제其기所소記기得득者자而이著저之지以이遺유嗣사子자舍사弟제

興岦掩淚狀(흥립엄루상)

오! 슬프고 아깝다。 공(公)의 어질고 후한 성품은 순박하고 아름다우며 재주와 품격은 인륜을 초월하였고 또 어진 스승과 좋은 친구를 따랐으니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 많았으며 만약 나이를 빌려주어 학문을 쌓고 쌓아서 더하였다면 앞날에 하는 일이 여유 있게 이루어졌을 것인데 창졸간에 모든 것을 아주 없애 버리고 세상을 다할 때까지 하나의 핏줄도 뒤를 이을 사람도 남겨놓지 못하고 이에 하늘로부터 좋은 복을 받는 새해 정초에 죽어서 돌아가니 그것이 더욱 애통함이 아닌가?

대개 일찍이 들으니 하늘과 사람은 하나의 이치인지라 하늘과 땅 사이에서 깨끗하고 올바른 힘의 본질을 모아 사람이 되었다면 사람의 이 기(氣)를 온전히 얻은 사람은 다시 하늘과 땅으로 함께 합치니 공(公)이 새해 복 받는 날에 돌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公)의 정신(精神)과 기백(氣魄)은 물에 비친 달과 함께 흘러 영향을 세상에 길이 머물게 하는 것이니 어찌 슬퍼하리오。 흥립(興岦)은 나이 七十을 넘었고 또 질병(疾病)을 안고 있어 죽는 것이 날이 없으니

공(公)의 마음가짐과 행한 일이 두드러져 눈에 띄게 되는 것을 만약 만분(萬分)의 일(一)이라도 알지 못하였다면 공(公)의 자취는 장차 세상에서 영영 없어질 것이다。

이에 병으로 신음하는 중에 그 기록해 얻은 것을 글로 써서 대(代)를 이을 아들에게 남겨주노라。 아우 흥립(興岦)이 눈물을 가리며 이 글을 씁니다。

喘翁先生文集卷之二 終
천옹선생문집권지이 종

喘翁先生文集卷之三(천옹선생문집권지삼)

附錄(부록) 어떤 출판물의 덧붙여진 부분

遺事(유사) 죽은 사람의 생전 사적

從姪永鎭(종질영진) 五寸조카 영진(永鎭)이가 씀

府君姓崔氏諱興岦字山甫喘翁其號也系出沙梁部蘇伐公歷羅麗代(부군성최씨휘흥립자산보천옹기호야계출사량부소벌공력라려대)
有聞人遂爲東國大姓逮至本朝有諱鄲以開國功官兵曹判書是生諱(유문인수위동국대성체지본조유휘단이개국공관병조판서시생휘)
在田官戶曹參議是生諱孟淵生員以蔭補知孟山郡事始居大邱之解(재전관호조참의시생휘맹연생원이음보지맹산군사시거대구지해)
顔縣五傳至諱誡以壬辰倡義勳參宣武二等 贈夏官貳卿享平川書(안현오전지휘계이임진창의훈참선무이등 증하관이경향평천서)

院是生諱東律生員號茶川受業于寒岡樂齋兩先生門文章風節爲世所推於公爲六世五世祖也高祖諱翊南曾祖諱慶濡祖諱壽天考諱文錫俱隱德不仕妣密陽朴氏士人重榮之女龍巖雲之後也以 英廟丙辰十月十八日生公姿貌端重操致淸高自齠齔時文詞夙就筆法遒勁與仲氏崇崖公有難兄難弟之稱及長從學于百弗庵先生先生大加稱賞期以遠大自是益加奮厲又能傍治博士家業風騷表策無不融貫而尤精於四經註解屢捷鄕解竟躓省試人皆惜之而

부군(府君)①의 성(姓)은 최씨(崔氏)이고 휘(諱)②는 흥립(興岦)이며 자(字)③는 산보(山甫)이고 천옹(喘翁)은 호(號 : 별호 딴이름)이다. 출생계통은 오랜 옛날 경주지방(慶州地方)인 사량부(沙梁部) 소벌공(蘇伐公)에서 전해져 신라(新羅)와 고려시대(高麗時代)를 거치면서 사람들에 알려져서

마침내 동국(東國 : 우리나라)의 겨레붙이가 왕성한 지체가 좋은 성(姓)이 되었으며 본조(本朝 : 朝鮮)에 와서는 휘(諱)가 단(鄲)이란 분이 계셨는데 건국(建國)할 때의 공(功)이 많아서 벼슬은 병조판서(兵曹判書)이고 이분이 낳은 휘(諱) 재전(在田)은 벼슬이 호조참의(戶曹參議)이고 이분이 낳은 휘(諱) 맹연(孟淵)은 생원이며 음보(蔭補)④로 맹산현감(孟山縣監)을 지냈으며 비로소 대구의 해안현(解顔縣)에 살기 시작하여 五代를 지나 휘(諱) 계(誡)의 代에 와서 임진(壬辰 : 一五九二年)왜란(倭亂) 때 국난을 당하여 의병을 일으켜 싸움에 참가한 공훈으로 선무훈격이등(宣武勳格二等)⑤을 받았으며 나중에 병조참판에 증직되어 평천서원(平川書院)에서 제사지내게 되었다。

이분이 낳은 사람이 휘(諱) 동률(東嵂)이니 생원(生員)이며 호(號)는 다천(茶川)으로 한강(寒岡 : 鄭逑)과 락재(樂齋) 두 선생 문하에서 학업을 받으니 문장(文章)과 지조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추중하게 되었으며 공(公)에게는 六世가 되고 五代祖가 된다。 고조부(高祖父)의 휘(諱)는 익남(翊南)이고 증조부(曾祖父)의 휘(諱)는 경유(慶濡)이며 조부(祖父)의 휘(諱)는 수천(壽天)이며 고(考)의 휘(諱)는 문석(文錫)이시니 모두 덕을 숨기며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으며 비(妣)는 밀양박씨이며 벼슬하지 않은 선비인 증영의 딸이며 용암의 후손이시다。 영조(英祖)⑥병진(丙辰 : 一七三六年) 十月 十八日에 公을 낳았는데 모습이 단아하고 정중하며 지조는 맑고 고상하여 어릴 때부터 문장(文章)을 잘하고 글 쓰는 법도 글씨의 획이 힘차며 중씨(仲氏)인 승애공(崇崖公)과 함께 누가 형이고 아우인지 모를 정도로 비슷하다고 하였으며 자라면서 백불암(百弗菴)선생을 따라 배우니 선생께서 크게 칭찬을 더하시며 기대가 매우 크니 이제부터 더욱 기운을 내어 힘쓰고 또 곁으로는 박사가업을 공부하며 풍소(風騷)와 표책(表策)을 융해관통하지 않음이 없으며 더욱이 사서(四書)⑦의 주해(註解)⑧에 정통하여 여러 번 향해에 합격하였으나 마침내 성시(省試)⑨에 떨어지니 사람들이 모두 아까워하였다。

【주(註)】

①부군(府君) : 죽은 아버지 또는 남자 조상의 존칭。

②휘(諱) : 죽은 사람의 이름。

③자(字) : 본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

④음보(蔭補) : 조상의 덕으로 벼슬을 얻음。

⑤선무훈격이등(宣武勳格二等) : 조선 선조 三十八년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공

신에게 내려준 공신의 칭호。
⑥영조(英祖)：조선(朝鮮) 二十一代 王。
⑦사서(四書)：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대학(大學)。
⑧주해(註解)：본문 사이에 글의 뜻을 알기 쉽게 풀어 줌。
⑨성시(省試)：지방에서 간단하게 치르는 과거시험。

公無介色嘗赴醴泉試江漲舟覆而士子猶爭先而渡公曰尸上行舟吾不忍也卽回程有識者聞而歎曰眞崔某事也自後因廢擧業專心於爲己之學一以持敬主靜爲日用工夫終日整坐未嘗少倦夜氣清明之時則輒誦大學序書傳序及心經跋一通然後就寢案上有理學通錄近思錄諸篇潛心硏究一不釋卷至忘寢食爲勸學文奬率一門子弟蓋欲張大學齋設施之意也從者皆肯受所敎浸浸有興起之效家素清寒疏食菜羹時或屢空而凝然端坐欽欽如也

그러나 공(公)은 마음에 두는 기색이 없었으며 예천(醴泉)에 시험(試驗)을 치러 갈 때 강물이 불어나 배가 전복되었지만 선비들이 오히려 앞을 다투어 건너려고 하기에 공(公)이 말하기를 시체 위로 배가 가는데 나는 차마 못 건너겠다하면서 바로 되돌아오니 알만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감탄하면서 말하기를 참말로 최모(崔某)다운 일이라 하였다。 이 뒤로부터는 과거보는 일은 폐지하고 오로지 자기 수양을 위한 학문에만 힘쓰며 한결같이 경(敬)을 가지고 정(靜)을 주로 하는 것을 날마다 공부를 하였고 종일 단정하게 앉아 조금도 게으르지 않으며 밤이 늑늑한 기운이 돌아 청명할 때는 문득 대학서문(大學序文)과 서전서문(書傳序文) 심경발문(心經跋文)을 한차례 외우고 난 후에 잠자리에 들고 책상위에는 이학통록(理學通錄)과 근사록(近思錄)등 여러 가지 책이 놓여 있으며 마음을 진정시켜 연구하며 한번도 책을 놓지 않았으며 잠자고 밥 먹는 것도 잊었으며 학문을 권하는 글을 지어 한 집안의 자제(子弟)들을 거느리고 장려하니 모두가 학재(學齋)의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이라 따르는 사람은 모두가 가르침을 즐겨 받아서 점점 일어나는 효과가 있었으며 가정은 평소부터 청빈하여 거친 음식과 나물국으로 지내며 때로는 굶을 때도 여러 번 있었으

나 전과 다름없이 단정히 앉아서 예사로 여겼으며

與여李이商상山산鄭정魯노宇우鄭정立립齋재朴박龔롱巖암諸제公공爲위道도義의之지交교而이李이遲지菴암李이巴파江강李이
晩만覺각諸제公공相상距거又우甚심邇이講강磨마論논討토之지工공尤우爲위親친密밀歲세必필再재三삼會회會회必필留유句순
日일臨임別별又우有유贈증詩시以이寓우歲세晏안相상期기之지意의洽흡然연有유南남嶽악鵝아湖호之지風풍焉언歲세戊무午오
海해上상神신篋협書서出출蓋개壬임癸계倡창義의事사蹟적也야與여蠹두窩와公공修수正정三삼忠충錄록平평川천入입享향時시
有유志지喜희韻운修수百백一일契계爲위先선墓묘歲세奠전之지資자公공之지奉봉先선追추遠원之지意의大대率솔皆개此차類류
也야夙숙抱포疾질恙양而이每매調조息식降강氣기安안心심飭칙身신未미有유一일毫호怠태倦권之지意의以이己기巳사正정月월
初초五오日일悠유然연而이歿몰享향年년七칠十십有유四사用용其기年년二이月월六육日일克극襄양于우佳가沙사洞동艮간坐좌
之지原원從종先선兆조也야

이상산(李商山) 정노우(鄭魯宇) 정입재(鄭立齋) 박롱암(朴聾巖) 제공(諸公)과 같이 도의적(道義的)으로 사귀었으며 이지암(李遲菴) 이파강(李巴江) 이만각(李晩覺) 제공(諸公)과는 서로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 학문을 연마하고 토론하는 공부가 더욱 친밀하여 해마다 반드시 두서너 번씩 모임을 갖고 모이면 반드시 열흘은 머물렀다가 이별할 때는 또 시(詩)를 주어서 한 해를 편안하게 있기를 기원하니 서로의 마음이 흡족하여 남악(南嶽) 즉 지리산(智異山)의 호수(湖水)에 오리가 노는 듯한 풍류가 있었다。

무오년(戊午：一七九八年)에 바닷가에서 신기한 고리짝에서 글이 나왔는데 대개 임진년(壬辰年)과 계사년(癸巳年)의 왜란(倭亂) 때 의병(義兵)활동의 사적이다。 두와공(蠹窩公)과 같이 삼충록(三忠錄)을 바르게 고쳤으며 평천서원(平川書院)에서 제사지내게 되었을 때의 기쁜 뜻을 표한 운이 있고 백일계(百一契)를 모아 운영하여 선조(先祖)들의 묘사(墓祀)를 지내는 자금(資金)을 마련하게 하였으니 공(公)이 조상(祖上)을 받들고 오래도록 추모하는 마음이 모두 이와 같은 큰일을 하였다。

일찍 질병을 안고 있어 언제나 숨을 조율하고 기운을 내려 마음을 편하게 하며 몸을 삼가하여 티끌만치도 게으름이 없었으며 기사(己巳：一八〇

九年) 正月 初五日에 조용하게 숨을 거두니 살아온 나이가 七十四세이고 그해 二月 六日에 가사동(佳沙洞) 간좌(艮坐)에 장사지내니 이곳은 조상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配배驪여州주李이氏씨士사人인穃영女녀翰한林림迨태後후墓묘在재漆칠谷곡架가左좌洞동寅인坐좌原원配배仁인川천蔡채氏씨
士사人인斗두杓표女녀松송潭담應응麟린後후墓묘在재府부君군墓묘右우有유二이男남一일女녀長장維유鎭진李이氏씨出출出출
爲위伯백父부後후次차嵒암鎭진女녀適적崔최柱주暹섬蔡채氏씨出출維유鎭진娶취郭곽孝효謇건女녀有유二이男남一일女녀男남
曰왈渷역曰왈汪왕女녀適적宋송心심健건嵒암鎭진娶취李이有유源원女녀有유一일男남二이女녀男남曰왈浹협女녀適적朴박履리
灝호鄭정陽양來래渷역娶취宋송日일臨림女녀汪왕娶취申신光광道도女녀有유四사男남二이女녀浹협娶취徐서有유廷정女녀有유
一일男남一일女녀皆개幼유內내外외諸제孫손不불能능盡진錄록於어乎호府부君군早조從종賢현師사友우得득聞문爲위學학次차
第제又우與여堂당內내兄형弟제如여月월崖애西서山산蠹두窩와枝지巢소諸제公공講강討토論논難난爲위切절嗟차琢탁磨마之지

工而謹愼爲持身之方畏約爲處世之道以自反不較人爲五字符不以
공이근신위지신지방외약위처세지도이자반불교인위오자부불이
貧窶而動其心不以困窮而渝其操一念戰兢七十年如一日其制行之
빈구이동기심불이곤궁이투기조일념전긍칠십년여일일기제행지
實造理之精有非淺見薄識所可窺測噫公之咳唾散佚無存者亦將塵
실조리지정유비천견박식소가규측희공지해타산일무존자역장진
煤於短麓片藁之中窃懼夫謦咳寢邈而依仰無憑歲月逾邁而事蹟無
매어단록편고지중절구부경해침막이의앙무빙세월유매이사적무
徵茲使邑弟掇拾餘稿殆十之一二然亦豈不爲傳後之照影而尋緖者
징자사읍제철습여고태십지일이연역기불위전후지조영이심서자
耶永鎭自七八歲時受學于公今且年滿七十不無中夜慕道之感茲以
야영진자칠팔세시수학우공금차년만칠십불무중야모도지감자이
及見及聞於平日者略記顚末如右以俟立言君子之裁擇焉
급견급문어평일자략기전말여우이사립언군자지재택언

부인(婦人)은 여주이씨(驪州李氏)의 선비 녕의 딸로 한림학사(翰林學士)
인 태(迨)의 후손이며 묘(墓)는 칠곡 가좌동(漆谷 架左洞)의 인좌(寅坐)에
있으며 또 부인(婦人) 채씨(蔡氏)는 선비인 두표(斗杓)의 딸이며 송담(松
潭) 응린(應麟)의 후손이다。 묘(墓)는 부군(府君)의 묘(墓) 우편(右便)에

있으며 二남一녀가 있으니 맏아들 유진(維鎭)은 이씨(李氏) 소생이며 나가서 백부(伯父)의 양자(養子)로 갔으며 둘째가 암진(嵒鎭)이고 딸은 최주섭(崔柱暹)에게 출가했으며 채씨(蔡氏)의 소생이다。 유진(維鎭)은 곽효건(郭孝謇)의 딸에게 장가가서 二男一女가 있으니 남자(男子)는 역(湙)과 왕(汪)이고 딸은 송심건(宋心健)에게 출가했으며 암진(嵒鎭)은 이유원(李有源)의 딸에게 장가가서 一男二女가 있으니 남자(男子)는 협(浹)이고 딸은 박이호(朴履灝)와 정양래(鄭陽來)에게 시집가고 역(湙)은 송일임(宋日臨)의 딸에게 장가가고 왕(汪)은 신광도(申光道)의 딸에게 장가가서 四男二女가 있으며 협(浹)은 서유정(徐有珽)의 딸에게 장가가서 一男一女가 있으나 모두 어리고 집안 內外의 여러 자손(子孫)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지 못한다。

아! 부군(府君)께서는 일찍이 어진 스승과 친구를 따라 학문(學問)을 차례로 배우고 듣고 언었고 또 집안 형제인 월애(月厓) 서산(西山) 두와(蠹窩) 지소(枝巢) 등 여러 분과 같이 배운 글을 외어 어른들에게 들리고 토론하며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학문과 덕행을 닦아 공부하며 삼가하고 조심하여 행동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며 두려워하고 검약 하는 것을 세상에 처해 나가는 도리(道理)로 하여 자반불교인(自反不較人)[1]의 다섯 글자를 부적으

로 하고 가난하여도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곤궁하여도 그 지조가 변하지 않으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매우 조심하기 七十年을 하루같이 하여 절제 있는 행동의 실천과 이치에 나아감이 정미함은 보고 듣는 것이 좁고 지식이 적으면 가히 얕보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이다。

아! 슬프다。 公의 언행은 흩어지고 잃어버려 남은 것이 없으며 있는 것도 없어졌고 있는 것 또한 장차 자그마한 대나무 상자 속에서 조각난 짚거적에 쌓여서 티끌과 그을음으로 얼룩질 것 같으니 가만히 걱정 되는 것은 기침 소리가 아득해져서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고 세월만 지나가서 사적(事蹟)의 증거가 없어질까 봐 여기에 암진(嵒鎭) 아우로 하여금 남아있는 원고를 거두어 모으니 거의 十中 一二가 된다。

그러나 어찌 후세에 전하게 될 빛나는 업적을 찾는 단서가 되지 않겠는가。 영진(永鎭)은 七 八세 때부터 公으로부터 학문을 배웠고 이제 나이가 칠십을 가득 채웠으니 한밤중에 도(道)를 사모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여기에 본 것과 평소에 들은 것의 전말을 오른쪽(앞)과 같이 간략하게 기록하였으니 이후 기다렸다가 좋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학식(學識)이 높은 사람의 재량과 선택을 바랄뿐이다。

【주(註)】

①자반불교인(自反不較人) : 사람을 비교하지 않도록 스스로 반성한다.

行행狀장

죽은 후에 그의 평생의 행적을 적은 글

盧노相상稷직이 씀

先선生생諱휘興흥岦립字자山산甫보夙숙患환喘천自자號호喘천翁옹崔최氏씨系계出출沙사梁량部부今금籍적慶경州주爲위東동方방大대姓성中중世세有유諱휘鄲단佐좌我아 太태祖조官관兵병曹조判판書서歷역郡군事사在재田전知지縣현孟맹淵연參참軍군澣한監감役역自자河하萬만戶호海해監감察찰宗종沃옥而이至지縣현令령誡계以이壬임辰진勤근 王왕勞노 贈증兵병曹조參참判판享향平평川천書서院원參참判판有유子자曰왈東동嵂률生생員원號호茶다川천師사事사寒한岡강樂낙齋재兩양先선生생是시爲위公공五오世세祖조也야

선생의 휘(諱)는 흥립(興岦)이요 자(字)는 산보(山甫)이며 일찍 천식(喘息)이 있어 스스로 호(號)를 천옹(喘翁)이라 하였다。 최씨(崔氏)의 출생계통은 사량부(沙梁部) 지금의 경주(慶州)에 호적(戶籍)을 두고 있으며 동방(東方:우리나라)의 대성(大姓)을 이루고 있다。 중세(中世)①에 와서 휘(諱) 단(鄲)이란 분이 있어서 조선(朝鮮)의 태조(太祖)의 개국(開國)을 도와 벼슬은 병조판서(兵曹判書)가 되었고 군사(郡事)를 지낸 재전(在田)과 지현(知縣)인 맹연(孟淵)과 참군(參軍)인 한(澣)과 감역(監役)인 자하(自河)와 만호(萬戶)인 해(海)와 감찰(監察)인 종옥(宗沃)이며 현령(縣令)인 계(誡)에 이르러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임금에 충성을 바친 공로로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추증되었으며 평천서원(平川書院)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되었다。 참판에게 아들이 있으니 동률(東律)이라하고 생원(生員)이며 호(號)는 다천(茶川)이라 하였다。 한강(寒岡:鄭逑)과 낙재(樂齋) 두 선생을 스승으로 섬겼으니 이 분이 公의 오대조(五代祖)이시다。

【주(註)】

①중세(中世):古代와 近代의 중간시대。

諱翊南慶濡壽天文錫高曾祖禰也俱有儒行妣密陽朴氏學生重榮女龍巖先生雲後以

英廟丙辰十月十八日生公于大邱之智妙里第甫齔能綴文稍長與仲兄崇崖堂弟蠹窩受學于族兄百弗庵先生之門先生見其才姿穎發儀貌端重曰遠大器也因命之曰吾道自灑掃應對可至於精義入神授論語曰日用道理在此授書傳曰心學工夫發源於此規模甚大然其事業莫非孝悌中推出來公服膺焉專用力於彝倫見先生敬字牌私自語曰程子主一謝氏惺惺皆此物也須臾放忽非所以學先生也

휘(諱) 익남(翊南) 경유(慶濡) 수천(壽天) 문석(文錫)은 고조부 증조부 조부 아버지다。 모두가 선비들이었으며 어머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학

생(學生)① 증영(重榮)의 딸이며 용암선생(龍巖先生) 운(雲)의 후손(後孫)이다。 영조(英祖) 병진(丙辰:一七三六年) 十月 十八日에 公은 대구(大邱)의 지묘리(智妙里) 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려서부터 글을 짓고 차차 자라면서 중형(仲兄) 숭애(崇崖) 집안동생인 두와(蠹窩)와 함께 일가의 형(兄)인 백불암선생(百弗庵先生) 밑에서 글을 배우는데 선생이 보기에 그 재주와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모양이 단정하고 정중하여 말씀하시기를 장래에 크게 될 사람이라 하셨다。 그래서 명령하시기를 『우리의 도(道)는 스스로 물 뿌리고 쓸며 남의 말에 따라서 대답하는 것으로부터 세밀하며 뛰어나서 영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하시고 논어(論語)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일상생활에 쓰이는 도리는 여기에 있다。』 하시고 서전(書傳)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심학(心學)에 대한 공부(工夫)는 여기에서 시작하였으며 규모가 매우 크다。 그러나 그 하는 일은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友愛)하는 것 중에서 추려내지 않은 것이 없다。』 고 하시니 공이 마음에 늘 두어 잊지 않고 그대로 지켰으며 오로지 이륜(彛倫)②에 전심전력하였다。

선생의 경자(敬字) 패(牌)를 보고 사사로이 말하시기를 『정자(程子)의

주일(主一)과 사씨(謝氏 : 良佐)가 깨달아 뚝뚝하게 된 것도 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하였다。

『잠시라도 방심하고 소홀히 하면 선생을 배우는 바가 아니다。』하고는

【주(註)】

①학생(學生) : 생전에 벼슬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존칭。

②이륜(彛倫) : 사람으로서 떳떳이 지켜야할 도리。

自是服勤左右以持敬爲日用工夫一言一動一事一爲皆法先生以親
志治公車業通程文各體有藝苑儁聲書法又勁健發解凡十四而屈於
省戊申赴試至醴泉江上見舟覆復路從者勸乘他舟公曰不忍尸上行
舟自是棄擧子業專心爲己之學手抄理學通錄朱書心經等篇輒身與
相隨潛翫不徹月朔就孝悌堂霜露齋北溪精舍會講諸生一遵先師節

目未見有一人失儀者篤於內行親在克敬克樂親歿戚而易事二兄如(목미견유일인실의자독어내행친재극경극락친몰척이이사이형여)
嚴父事遠祖彌謹籲陳事蹟獲蒙旌忠之典設契以盡報本之義冀宗族(엄부사원조미근유진사적획몽정충지전설계이진보본지의기종족)
人人百世一心(인인백세일심)

이제부터 좌우(左右)에서 부지런히 익히며 경(敬)을 가지고 날마다 공부를 하며 말 한마디 몸짓하나 한가지 일 하나하나를 모두 선생을 본받았으며 어버이 뜻으로서 과거 공부를 하여 과문 각체에 잘 통하며 예술 방면에도 이름이 있으며 글씨 쓰는 법은 또 필력이 대단히 굳세고 건장하여 과거(科擧)의 초시(初試)에 합격한 것이 무릇 十四번이나 되었으나 문관(文官)시험(試驗)에는 합격 못하고 무신(戊申：一七八八年)에 과거(科擧) 시험을 보러 가다가 예천(醴泉)에 도착하여서 강 위에서 배가 전복하는 것을 보고 동행(同行)하던 사람이 다른 배를 탈것을 권하였으나 공(公)은 말하기를 『시체 위로 배가 가는 것은 참을 수 없다。』 면서 이때부터 과거 보는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마음을 학문하는 데만 힘쓰면서 손으로 직접 이학통록

(理學通錄) 주서(朱書) 심경(心經) 등 책을 간략하게 뽑아 썼으며 문득 몸과 같이 서로 따르도록 하고 몰래 공부하여 그치지 않았으며 매달 초하루에는 효제당(孝悌堂)과 상로재(霜露齋) 북계정사(北溪精舍)에 나아가 여러 선비들이 모여 강(講)을 하는데 하나같이 옛날 스승의 조목(條目)을 잘 지켜 한사람도 예의에 벗어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가정에서 아낙네의 행동도 돈독하여 어버이가 계시면 극히 공경하고 극히 즐겁도록 하였으며 어버이가 돌아가신 후에는 슬퍼하며 다스리고 두 형(兄)을 엄한 아버지같이 여겼으며 먼 조상을 섬기는데도 더욱 근신하며 사적(事蹟)을 얻어 벌려 부르짖어 정충(旌忠)①의 식전을 얻었으며 계(契)를 모아 보본(報本)②의 의리를 다하였으며 같은 일가 사람들이 영원히 한마음이 될 것을 바랐으며

【주(註)】

①정충(旌忠) : 충신(忠臣)을 표창하기 위하여 그 집 앞에 세운 붉은 문。

②보본(報本) : 태어나온 그 근본을 잊지 않고 갚음。

約약李이商상山산鄭정魯노宇우鄭정立입齋재李이遲지菴암李이巴파江강李이晩만覺각朴박礱롱巖암諸제賢현歲세必필再재三삼
會회講강說설義의理리至지大대耋질猶유不불廢폐繙번書서中중夜야點점檢검朝조晝주之지所소爲위欲욕事사事사無무愧괴於어
心심雖수當상暑서月월體체氣기昏혼困곤未미嘗상晝주寢침 純순廟묘己기巳사正정月월五오日일終종于우寢침七칠十십四사
歲세葬장佳가沙사洞동艮간坐좌之지原원從종先선兆조也야一일時시賢현士사大대夫부多다操조誄뢰祭제奠전者자配배驪여州주
李이氏씨寧녕女녀月월淵연迨태後후仁인川천蔡채氏씨斗두杓표女녀松송潭담應응麟린後후有유二이男남一일女녀男남長장維유
鎭진李이氏씨出출出출爲위世세父부後후次차嵒암鎭진女녀適적永영陽양崔최柱주暹섬蔡채氏씨出출維유鎭진子자湙역汪왕女녀
壻서宋송心심健건嵒암鎭진子자浹협女녀壻서朴박履리灝호鄭정陽양來래曾증玄현若약干간人인噫희百백弗불爺야之지講강道도
公공山산

이상산(李商山) 정노우(鄭魯宇) 정입재(鄭立齋) 이지암(李遲菴) 이파강
(李巴江) 이만각(李晩覺) 박롱암(朴礱巖) 제현(諸賢)과 약속하여 해마다

반드시 두세 번 모여 의리에 대한 강의와 설명을 하고 八十 늙은이가 되어서도 오히려 책 보는 것을 폐지하지 않았으며 밤중이 되면 아침과 낮에 점검하여 한 일을 일일이 마음에 부끄럼이 없게 하였으며 비록 여름철을 맞이하여 정신이 흐릿하고 기운이 떨어지고 고달파도 낮에 잠자는 일은 아직까지 없었다。

순조(純祖)① 기사(己巳 : 一八〇九年) 正月 五日에 일생을 마치고 영원히 잠드시니 七十四세였다。 가사동(佳沙洞) 간좌(艮坐)의 언덕에 장사 지냈는데 윗대(代)의 산소들이 있는 곳이다。 한때 어진 문벌이 높은 사람들이 제문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많았다。

배(配 : 부인)는 여주이씨(驪州李氏) 녕의 딸이고 월연(月淵) 태(迨)의 후손이며 인천채씨(仁川蔡氏)는 두표(斗杓)의 딸이며 송담(松潭) 응린(應麟)의 후손이며 二男一女가 있는데 장남은 유진(維鎭)인데 이씨(李氏)가 낳았고 낳자 백부(伯父)의 후사(後嗣)로 양자 갔으며 차남은 암진(嵒鎭)이고 딸은 영양최씨(永陽崔氏) 주섬(柱暹)에게 시집가니 채씨가 낳았다。 유진(維鎭)의 아들은 역(湙) 왕(汪)이고 딸 사위는 송심건(宋心建)이다。 암진(嵒鎭)의 아들은 협(浹)이고 여서(女壻 : 사위)는 박이호(朴履灝)와 정양

래(鄭陽來)이며 증손(曾孫)과 현손(玄孫)은 몇 사람이 있다。

슬프다! 백불옹(百弗翁)이 공산(公山)에서 도(道)를 강의할 때

【주(註)】

①순조(純祖): 조선(朝鮮) 二十三代 王。

也遊其門者往往有碩德巨匠蔚然爲後學標準而惟深體得躬行之實者恐無出於先生之右者就考其劄錄者則有曰本然而具於心者性也當然而行於事者道也本然之體自有當然之用則行於事者乃其具於心者又曰人心以其自人形氣上發而言耳道心爲之主而人心聽命焉則人心便是道心也

(야유기문자왕왕유석덕거장울연위후학표준이유심체득궁행지실자공무출어선생지우자취고기차록자즉유왈본연이구어심자성야당연이행어사자도야본연지체자유당연지용즉행어사자내기구어심자우왈인심이기자인형기상발이언이도심위지주이인심청명언즉인심편시도심야)

그 문하(門下)에서 배운 사람 중에는 이따금 덕이 높고 큰 사람과 위대한 예술가들이 매우 많이 나와서 뒤에 배우는 사람들의 표준이 되었으며

깊이 생각하고 몸소 경험하고 실천하여 얻은 사람이 두렵게도 선생보다 그 오른쪽에 나올만한 사람이 없는 것은 그 차록에 나아가 상고해 보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본래부터 마음을 갖추는 것을 성(性)이라 하고 당연히 행하는 일을 도(道)라 한다。 사람이 본래 가진 몸은 스스로 당연하게 이용하는 것이 있은 즉 일을 행하는 것은 이에 그 마음에 갖추어 있는 것이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이 그 스스로 사람의 겉모습과 기운 위에서부터 생겨난다고 하였다。 그 도심(道心)은 마음이 주(主)가 되며 사람의 마음은 명령을 듣는 것이니 즉 사람 마음은 문득 이것이 도심(道心)이다。』라고 하였다。

霖雨餘見潢流漸淸曰人心亦如此人欲淨盡天理自著又曰梏喪此心
림우여견황류점청왈인심역여차인욕정진천리자저우왈곡상차심

惟貧病爲甚每於己所獨知之中竊欲猛加自省之工又曰思慮之病固
유빈병위심매어이소독지지중절욕맹가자성지공우왈사려지병고

難一朝斷截取夙夜箴首四句及思無邪心勿忘六字書于扇面開闔常
난일조단절취숙야잠수사구급사무사심물망육자서우선면개합상

目又以自反不較爲持身之節度不以貧窶動其心不以困窮渝其操聞其風者自不覺剗除浮念而踐履實地也
(목우이자반불교위지신지절도불이빈구동기심불이곤궁투기조문기풍자자불각잔제부념이천리실지야)

장맛비가 온 뒤에 흙탕물이 벌창하게 흐르다가 차차 맑아지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다。 사람의 욕심이 맑아 다 없어지면 하늘의 이치가 스스로 나타난다。』 고 하였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을 얽매어 없애게 하는 것은 오직 가난하고 병(病)이 심하게 되는 것이라 하고 매번 나의 거처하는 곳에서 홀로 알고 있는 중에 남모르게 스스로 반성(反省)하는 공부(工夫)를 세차게 더하고자 하며 또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생각이나 근심하는 병(病)은 처음부터 하루아침에 끊기가 어렵다。』 고 하였으며 숙야잠수(夙夜箴首) 사구(四句)와 사무사심물망(思無邪心勿忘)이란 여섯 글자를 부채 표면에 써서 펼치고 접을 때 항시 눈으로 보고 또 스스로 반성하여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을 몸가짐 절도(節度)로 삼았으며 가난하여도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곤궁하여도 그 지조가 변하지 않으니 그 풍문을 듣는 사람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들뜬 생각을

깎아 없애며 실지로 실천하는 것이다。

又讀其十圖之詩而有以知賢人造道之妙亦自發見於吟哢之間也曾孫國述君屬相稷爲狀相稷非其人然平生尊仰弗翁今於其高第弟子之列而獲爲役與有榮焉謹撮其家傳而叙次之以俟立言者採擇云爾

또 성학십도(聖學十圖)의 시(詩)를 읽으며 어질고 덕망이 높은 사람들의 도(道)에 나아가는 오묘함을 알고 스스로 시(詩)를 읊고 감상하는 사이에 발견할 수 있었다。

증손(曾孫)인 국술군(國述君)이 상직(相稷)에게 부탁하는 글을 보내왔기에 상직(相稷)은 그런 것을 할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백불옹(百弗翁)선생님을 평생 존경하고 숭배하고 있기에 이제 유명한 선생님의 높은 제자의 신분에 대하여 일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삼가 그 집안의 내력을 차례대로 서술하였으니 좋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채택해 주기 바라도다。

墓묘誌지銘명 並병序서

죽은 사람의 행적을 적어 새긴 글 서문과 함께 함

族족曾증孫손 孝효述술

일가 증손인 효술이 지음

公공諱휘興흥岦립字자山산甫보崔최氏씨本본慶경州주人인中중世세有유諱휘鄲단佐좌我아 太태祖조官관大대司사馬마至지孫손知지縣현諱휘孟맹淵연始시居거大대邱구四사世세至지諱휘誡계縣현令령以이壬임辰진倡창義의勳훈 贈증小소司사馬마是시生생諱휘東동嵂률生생員원號호茶다川천受수業업於어寒한岡강樂락齋재兩양先선生생門문文문章장行행檢검爲위世세所소推추卽즉公공五오世세祖조也야高고祖조諱휘翊익南남曾증祖조諱휘慶경濡유祖조諱휘壽수天천考고諱휘文문錫석俱구隱은德덕不불仕사妣비密밀陽양朴박氏씨士사人인重중榮영女녀龍용巖암雲운之지後후也야以이 英영廟묘丙병辰진十십月월十십八팔日일生생公공於어序서爲위季계姿자貌모端단雅아標표致치淸청高고與여仲중氏씨公공才재分분絶절倫윤文문辭사夙숙就취俱구有유志지於어學학早조從종吾오曾증王왕考고百백弗불先선生생左좌右우陪배侍시朝조夕석質질問문知지吾오道도自자灑쇄掃소

應응對대可가至지於어精정義의入입神신孜자孜자服복襲습一일心심靡미懈해至지於어擧거業업隨수衆중應응赴부屢루捷첩鄕향
解해竟경屈굴省성試시不불少소介개也야當상赴부襄양陽양試시見견江강漲창舟주覆복而이士사猶유爭쟁先선歎탄曰왈尸시上상
行행舟주吾오不불忍인也야卽즉回회程정因인廢폐擧거識식者자韙위之지自자是시遂수專전心심於어爲위己이一일以이持지敬경
存존誠성爲위用용工공節절度도嘗상手수書서心심經경朱주書서以이爲위聯연牀상征정邁매之지資자及급仲중氏씨公공歿몰公공
益익自자勵려志지手수不불釋석卷권至지忘망寢침食식義의理리之지悅열眞진如여芻추豢환之지味미中중夜야每매點점檢검朝조
晝주之지所소爲위必필欲욕無무愧괴於어心심及급師사門문易이簀책慟통失실依의歸귀與여堂당內내諸제從종不불掇철切절嗟차
之지工공會회門문中중子자弟제敎교以이洛락閩민諸제書서而이拳권拳권乎호

공(公)의 휘(諱)는 흥림(興岦)이고 자(字)는 산보(山甫)이며 성(姓)은 최씨(崔氏)이고 본관(本貫)은 경주(慶州)사람이다。

증세(中世)에 휘(諱)가 단(鄲)이란 분이 있어서 조선시대(朝鮮時代) 태조(太祖)를 도와 벼슬이 대사마(大司馬)이며 손자인 지현(知縣) 휘(諱) 맹

연(孟淵) 대(代)에 와서 비로소 대구(大邱)에서 살았고 사세(四世)에 휘(諱) 계(誠)인 현령(縣令)에 와서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공훈으로 소사마(小司馬)에 증직되었으며 이분이 낳은 휘(諱) 동률(東律)은 생원(生員)으로 호(號)는 다천(茶川)이며 한강(寒岡) 낙재(樂齋) 두 선생 문하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문장과 몸가짐이 세상에서 높이 받들게 되니 즉 이분이 공의 오대조(五代祖)이다。

고조(高祖)의 휘(諱)는 익남(翊南)이고 증조(曾祖)의 휘(諱)는 경유(慶濡)이며 조부(祖父)는 휘(諱) 수천(壽天)이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휘(諱)는 문석(文錫)이니 모두 숨은 덕을 가진 선비로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비(妣: 즉 어머니)는 밀양박씨(密陽朴氏)로 선비인 증영(重榮)의 딸이며 용암(龍巖) 운(雲)의 후손이다。

영조(英祖) 병진(丙辰: 一七三六年) 十月 十八日에 공(公)이 출생하였으며 차례로는 끝이 된다。 자세와 모습은 단정하고 우아하며 얼굴 생김새가 퍽 곱고 성정이 맑고 고상하여 중씨(仲氏: 仲兄)와 같이 재주가 뛰어나고 문장(文章)은 일찍 이루었고 뜻은 학문에 모두 있었다。 일찍부터 나의 증조부인 백불선생(百弗先生)을 따라 左右에서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질문을

하여 우리의 도(道)가 물 뿌리고 쓸며 남의 말에 따라서 응답하는 것으로부터 아주 세밀하고 뛰어나서 가히 귀신같이 잘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고 대단히 부지런하게 배우고 익혀서 조금도 게으름이 없었으며 과거(科擧)보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을 따라 몇 번 나가서 향해(鄕解)①는 합격하였으나 성시(省試)②는 마침내 불합격하고 말았다. 그러나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았으며 일찍이 양양(襄陽 : 醴泉) 시험에 가다가 강물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는데 시험 보러 가는 선비들이 오히려 먼저 가려고 다투는 것을 보고는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시체 위를 배로 가는 것을 나는 차마 못하겠다며 즉시 갈 길을 돌려 돌아왔다. 이로 인하여 과거보는 일을 폐지하였으며 이 말을 들은 유식한 사람들은 『옳은 일이다.』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드디어 자기 수양을 위한 공부(工夫)에만 힘쓰며 경(敬) 하나만을 가지고 성의를 다하고 공부하는 데는 정도에 맞게 하는 규칙적인 한도가 있으며 손수 심경(心經)과 주서(朱書)를 사본(寫本)하여 책상을 면하여 형제가 함께 공부의 자료로 삼았으며 중씨공(仲氏公)이 작고한 후에는 공(公)은 더욱 스스로 뜻을 가다듬어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잠자고 밥먹는 것도 잊을 정도였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의 즐거움은

가축이 먹이를 씹듯이 다시 말해서 썩 잘 차린 음식을 맛보듯 하였으며 밤중에도 매양 날날이 검사하고 아침 낮으로 하는 일은 반드시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였으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시니 슬프게도 의지하여 돌아갈 곳을 잃어서 당내(堂內)의 여러 형제들과 같이 쉬지 않고 학문과 덕행을 닦는 공부를 하여 문중(門中)의 자제(子弟)들을 모아 낙민(洛閩)③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가르쳐

【주(註)】

①향해(鄕解)：지방에서 치르는 시험。
②성시(省試)：중앙에서 치르는 시험。
③낙민(洛閩)：정주학(程朱學) 정호(程顥) 정이(程頤)가 낙양(洛陽) 출생이고 주자(朱子)가 민(閩)에서 배운 데서 생긴 말이다。

治心飭身之方與同門諸公歲必再三會講論經傳有歲晏之期焉其曰
(치심칙신지방여동문제공세필재삼회강논경전유세안지기언기왈)
可見之行則事父母承顏順志服勞惟謹及遭艱守禮無違又謹於祭祀
(가견지행즉사부모승안순지복노유근급조간수례무위우근어제사)
自奉之節疏糲不繼而處之晏如嘗與堂內修契名以百一取百世一心
(자봉지절소려불계이처지안여상여당내수계명이백일취백세일심)

之義也自號曰喘翁每調息降氣安心飭身七十年如一日無一毫怠倦
(지의야자호왈천옹매조식강기안심칙신칠십년여일일무일호태권)
意己巳正月五日卒享年七十四葬于本府解西村佳沙洞艮坐原
(의기사정월오일졸향년칠십사장우본부해서촌가사동간좌원)

마음을 잘 다스리고 몸을 삼가는 방법(方法)에 힘쓰게 했으며 같은 선생밑에서 배운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해마다 두세 번 모여 성인(聖人)과 현인(賢人)이 지은 글을 강의하고 토론(討論)하여 해 늦게까지 서로 기약하는 것이 있었다。 그날의 하는 일을 보면 즉 부모님을 섬기는데 얼굴은 순하게 하고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오직 삼가 하여 어려운 일(父母님 喪)을 당하였을 때는 예의(禮儀)를 지켜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제사(祭祀)는 삼가며 스스로 받드는 절차(節次)에는 양식이 떨어졌을 때를 당하여도 편안한 것 같았다。

일찍이 당내(堂內)①와 같이 계(契)를 모아 이름을 백일(百一)로 한 것은 백세(百世)를 가도록 일심(一心)이 되라는 뜻이다。

스스로 호(號)를 천옹(喘翁)이라 하고 매양 호흡(呼吸)을 조절하여 기운이 내려가게 하고 안심(安心)하여 몸을 다스려 七十年을 하루같이 하여 조

금도 게으른 마음이 없었으며 기사(己巳：一八〇九年) 正月五日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이 七十四세이며 장사지낸 곳은 대구의 해서촌(解西村) 가사동(佳沙洞) 간좌(艮坐)의 언덕이다。

【주(註)】

①당내(堂內)：일가로서 八寸이내。

配驪州李氏寧女翰林迨之後也仁川蔡氏斗杓女松潭應麟之後也有
배여주이씨녕녀한림태지후야인천채씨두표녀송담응린지후야유

二男一女長維鎭李氏出也出後伯父次嵒鎭女崔柱暹蔡氏出也維鎭
이남일녀장유진이씨출야출후백부차암진녀최주섭채씨출야유진

二男湙汪女宋心健嵒鎭一男浹二女朴履灝鄭陽來湙嗣子夢述汪三
이남역왕녀송심건암진일남협이녀박리호정양래역사자몽술왕삼

男夢述出可述憲述女幼陜二男一女皆幼孝述晩生尚荷眷愛命近座
남몽술출가술헌술녀유합이남일녀개유효술만생상하권애명근좌

側特垂教詔中心感服久而未敢忘也今於墓道文字實非其任而本孫
측특수교조중심감복구이미감망야금어묘도문자실비기임이본손

之請再三不已亦不容辭乃敢略叙事實系曰
지청재삼불이역불용사내감약서사실계왈

學主忠信行本彝倫戰兢操持夙夜無愆貧困疾患莫非玉成佳洞之原
(학주충신행본이륜전긍조지숙야무건빈곤질환막비옥성가동지원)
衣履攸藏爰撮遺蹟以詔無窮
(의이유장원촬유적이조무궁)

배(配)①에 여주이씨(驪州李氏)는 영의 딸이며 한림(翰林) 태(迨)의 후손이고 인천채씨(仁川蔡氏)는 두표(斗杓)의 딸이고 송담(松潭) 응린(應麟)의 후손이다。

二男一女가 있는데 장남(長男) 유진(維鎭)은 이씨(李氏)가 낳았으며 백부(伯父)에게 양자(養子)로 갔으며 차남(次男)은 암진(嵒鎭)이고 딸은 최주섬(崔柱暹)에 시집갔으니 채씨(蔡氏)가 낳았다。 유진(維鎭)의 두 아들은 역(湙)과 왕(汪)이고 딸은 송심건(宋心健)에 시집갔으며 암진(嵒鎭)은 아들 하나 협(浹)이고 두 딸은 박이호(朴履灝)와 정양래(鄭陽來)에 시집갔다。

역(湙)의 代를 잇는 아들은 몽술(夢述)이고 汪은 아들이 셋인데 몽술(夢述)은 養子가고 가술(可述)이와 헌술(憲述)이며 딸은 어리고 협(浹)은 二男一女가 있는데 모두 어리다。

효술(孝述)은 늦게 태어나서 오히려 귀여워하고 보살펴 사랑하며 자리 가까이 오라고 하여 특별히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복하게 되어 오래도록 감히 잊을 수가 없는 지라 이제 묘도문자(墓道文字)②를 맡아 달라고 하나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하니 본손(本孫)이 두세 번 간청하기에 부득이 또 거절할 수 없어서 이에 간단하게 사실 있는 그대로 차례에 따라 기록하였다。 계속해 말할 것은 배움은 충신을 주로하며 행실은 사람으로서 떳떳이 지켜야할 도리를 근본으로 하였도다。 마음을 가지고 조심하여 이른 아침과 늦은 밤에도 허물이 없었도다。 빈곤과 병환은 아닌 게 아니라 완전한 인물(人物)이 되었도다。 가사동(佳沙洞) 산소(山所)에 옷가지와 신발 등을 영원히 간직하였도다。 이에 유적을 기록하여서 영원토록 고합니다。

【주(註)】

①배(配) : 부부가 모두 죽었을 때 그 아내를 높이는 말。

②묘도문자(墓道文字) : 죽은 사람에 대한 내력을 비석에 새긴 글。

墓碣銘(묘갈명) 並序(병서)

묘 앞에 새겨놓은 글 서문과 함께

金紹洛(김소락)이 씀

粵我百弗先生上承下啓日星乎吾道及門諸賢響應而影從之喘翁先
(월아백불선생상승하계일성호오도급문제현향응이영종지천옹선)
生崔公其一也謹按先生諱興岦字山甫慶州人中世有諱鄲佐我 太
(생최공기일야근안선생휘흥립자산보경주인중세유휘단좌아 태)
祖官大司馬至孫知縣孟淵始居大邱歷四世至諱誡錄壬辰勳生諱東
(조관대사마지손지현맹연시거대구역사세지휘계록임진훈생휘동)
嵂生員以文行顯於公爲五世也高祖曰翊南曾祖曰慶濡祖曰壽天考
(률생원이문행현어공위오세야고조왈익남증조왈경유조왈수천고)
曰文錫俱隱德不仕妣密陽朴氏重榮女以 英廟丙辰十月十八日生
(왈문석구은덕불사비밀양박씨증영녀이 영묘병진십월십팔일생)

곰곰이 생각하니 우리 백불선생(百弗先生)은 위를 계승하고 아래를 계몽하여 해와 별같이 우리 도를 빛나게 하니 문하(門下)의 여러 어진 사람들

이 그의 주창에 따라 그림자같이 따르니 천옹선생(喘翁先生) 최공(崔公)도 그 한사람이다。

삼가 살펴보니 선생의 휘(諱)는 흥립(興岦)이고 자(字)는 산보(山甫)이며 경주(慶州)를 본관(本貫)으로 하고 중세(中世)에 와서 휘(諱) 단(鄲)이란 분이 있어서 조선(朝鮮)의 태조(太祖 : 李成桂)를 도와서 벼슬은 대사마(大司馬)가 되었고 손자인 지현(知縣) 맹연(孟淵)에 와서 대구(大邱)에 살기 시작했으며 사대(四代)를 지나 휘(諱) 계(誡)에 이르러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공훈(功勳)을 세운 사람에 기록(記錄)되었으며 휘(諱) 동율(東律)을 낳으니 생원(生員)이며 문장(文章)과 품행(品行)이 뚜렷이 드러나니 공(公)에게는 오대조(五代祖)가 된다。 고조(高祖)는 익남(翊南)이고 증조(曾祖)는 경유(慶濡)이며 조(祖)는 수천(壽天)이고 고(考)는 문석(文錫)이니 모두가 남이 알지 못하는 숨은 덕행이 있으나 벼슬을 하지 않았으며 비(妣)는 밀양박씨(密陽朴氏) 증영(重榮)의 딸이니 영묘(英廟) 병진(丙辰 : 一七三六年) 十月 十八日에 공(公)을 낳으셨다。

公공姿자貌모端단重중才재調조出출倫륜早조歲세志지學학請청業업于우百백弗불庵암先선生생服복習습不불懈해屢누蒙몽獎장
詡후爲위親친應응擧거屢누解해輒첩屈굴自자後후遂수謝사公공車거專전心심問문學학與여仲중氏씨公공各각書서心심經경朱주
書서進진而이稟품質질乎호函함席석退퇴而이征정邁매乎호幃위幔만昕흔夕석慥조慥조略약不불敢감息식無무書서不불讀독而이
一일生생得득力력多다在재於어四사子자心심近근靡미事사不불謹근而이平평日일用용工공尤우切절於어存존心심養양性성謹근
小소如여大대處처隱은若약顯현其기日일用용猷유爲위大대抵저皆개師사門문敬경牌패中중出출來래也야芻추豢환乎호義의理리
茶다飯반乎호經경史사年년躋제大대耋질常상如여一일日일以이天천年년終종于우寢침實실己기巳사正정月월五오日일也야葬장
解해西서村촌佳가沙사洞동艮간原원配배驪여州주李이氏씨穉영女녀墓묘在재漆칠谷곡架가左좌洞동申신向향仁인川천蔡채氏씨
斗두杓표女녀祔부葬장公공墓묘右우有유二이男남一일女녀長장維유鎭진李이出출出출次차喦암鎭진女녀崔최柱주暹섬蔡채出출
喦암鎭진一일男남浹협二이女녀朴박履이灝호鄭정陽양來래維유鎭진二이男남洂역汪왕一일女녀宋송心심健건餘여不부盡진錄록
於어乎호

공은 자세와 모습이 단정하고 중후하며 재주가 뛰어나서 어린 나이에 학문(學問)에 뜻을 두어 공부하기를 백불암(百弗庵)선생에게 청하여 명령에 따르고 익히는데 게을리하지 않아 여러 번 장려하고 칭찬을 받았으며 어버이를 위해서 과거에 응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으며 그 후부터는 과거에 응시하기를 끊고 오로지 마음을 학문 배우는데 두고 중씨공(仲氏公)과 함께 각기 심경과 주서를 써 나아가 선생님에게 질문하였으며 물러 나와서는 휘장을 치고 해 뜰 때부터 저녁때까지 열성있고 진실하며 휴식은 감히 못하였고 책을 안 읽는 것이 없었으나 일생(一生)에 힘을 얻는 것은 사서(四書)와 심경과 근사록(心近)에 많이 있었고 무슨 일이나 삼가지 않는 것이 없으나 보통날의 공부하는 데는 더욱 절실히 자기의 천성을 길러 자라게 하고 욕심에 의해서 본심을 해치는 일이 없이 항상 그 본연의 상태를 지니며 타고난 도덕성을 길러 삼가 작은 것을 큰 것 같이 하고 숨어있는 것을 찾아 나타나도록 하는 것 같이 일상생활에 쓰이는 모든 계획은 대체로 보아서 모두 선생(先生)의 경자(敬字) 패(牌)에서 나온 것이다.

의리는 아주 잘 차린 음식을 먹는 것 같고 경사(經史)①는 차(茶)마시고 식사하듯 하여 나이가 팔십을 바라보는 늙은이가 되어도 항시 한날과 같이

하였으며 천년(千年)으로서 침실(寢室)에서 돌아가시니 실제로 기사(己巳：一八〇九年) 正月五日이다。 장지(葬地)는 해서촌(解西村) 가사동(佳沙洞) 간좌(艮坐) 언덕이다。 배위(配位)는 여주이씨(驪州李氏) 영의 딸이니 묘소(墓所)는 칠곡(漆谷) 가좌동(架左洞) 신향(申向)에 있으며 인천채씨(仁川蔡氏)는 두표(斗杓)의 딸인데 공(公)의 묘(墓) 우측(右側)에 붙여 장사지냈다。

二男一女가 있는데 장남(長男) 유진(維鎭)은 이씨(李氏)가 낳았는데 양자(養子)로 나갔고 다음은 암진(嵒鎭)이며 딸은 최주섭(崔柱暹)에 출가했으며 채씨(蔡氏)가 낳았다。 암진(嵒鎭)은 일남(一男)인데 협(浹)이며 두 딸은 박이호(朴履灝)와 정양래(鄭陽來)에 시집갔다。 유진(維鎭)은 二男인데 역(渎)과 汪이며 一女는 송심건(宋心健)에게 출가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기록하지 못하였다。

【주(註)】

①경사(經史)：경서(經書)와 사기(史記) 사서오경(四書五經)과 사기(史記)。 사기(史記)는 역사를 기록한 책。

公공禔제躬궁大대方방箚차脚각實실地지求구之지古고人인亦역鮮선其기比비學학齋재設설施시若약胡호安안定정兄형弟제德덕
性성若약張장天천祺기中중夜야點점檢검如여范범希희文문中중歲세廢폐擧거如여尹윤和화靖정屢누空공恬념然연如여邵소堯요
夫부自자號호喘천翁옹亦역倣방乎호劉유屛병山산之지病병翁옹又우能능擇택交교當당世세出출門문同동人인有유李이商상山산
鄭정魯노宇우鄭정立입齋재朴박龔롱巖암一일家가知지己기有유月월崖애西서山산蠹두窩와枝지巢소諸제君군子자蓋개其기趍추
向향之지正정亦역賴뢰於어見견聞문之지習습熟숙也야魯노無무君군子자斯사焉언取취斯사者자儘진覺각聖성人인之지不불我아
欺기也야公공之지族족後후孫손鍾종國국甫보衝충寒한遠원踔탁奉봉致치父부老노之지命명以이紹소洛락之지膚부淺천驟취當당
是시役역不불啻시若약持지盃배入입海해而이責책以이先선契계亦역無무可가辭사之지辭사矣의銘명曰왈
近근裡리鞭편辟벽向향上상勞노力력上상承승百백弗불翁옹旨지訣결下하有유止지軒헌子자贊찬述술此차已이足족徵징我아敢감
贅췌說설于우嗟차三삼千천年년石석室실無무俾비五오十십步보樵초牧목

공(公)은 몸을 크게 편안하게 하였으며 공부는 실지에 입각하였음은 옛 사람들에게 구하여도 그와 같은 이는 드물 것이다。

학재(學齋)①를 설치하는 데는 호안정(胡安定) 형제(兄弟)와 같고 덕성(德性)②은 장천기(張天祺)와 같으며 밤중에 점검하는 것은 범희문(范希文)과 같았으며 중년(中年)에 과거 보는 것을 그만둔 것은 윤화정(尹和靖)과 같고 여러 번 굶어도(屢空) 조용하게 있음은 소요부(邵堯夫)와 같았으며 스스로 호(號)를 천옹(喘翁)이라 한 것은 역시 유병산(劉屛山)의 병옹(病翁)을 본받은 것이며 또 능히 그 당시 선생님 문하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 가려서 교제한 사람으로는 이상산(李商山) 정노우(鄭魯宇) 정입재(鄭立齋) 박롱암(朴聾巖)이 있었으며 일가로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으로는 월애(月崖) 서산(西山) 두와(蠹窩) 지소(枝巢) 등 여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가는 방향이 바른 것은 또한 익숙하게 보고 들은 데 힘입은 것이다。 노(魯)나라에 군자(君子)가 없다면 이에 어찌 이것을 취하리오 한 것은 참으로 성인(聖人)인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공(公)의 일가 후손(後孫)인 종국(鍾國)이가 추위를 무릅쓰고 멀리 와서

연세 높은 어른의 명령(命令)을 받들어 명문(銘文)을 청하기에 소락(紹洛)은 말이 천박하고 배운 것이 얕으며 또한 갑작스런 일이라서 이 일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이 마치 술잔을 들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과 같으나 또한 선대의 계의로서 책임을 지우니 사양할 말이 없는 것이라 명문(銘文)에 말하기를 가까운 속에 공부하였으며 위를 향해 노력하였도다。

위로는 백불옹(百弗翁)의 취지와 비결을 계승하고 아래로는 지헌(止軒)공의 찬술(贊述)이 있으니 여기에 이미 증명이 만족하여 내가 감히 군살을 덧붙일 수 없다。 슬프다! 三千年 석실(石室)에는 오십보(五十步)밖에 나무꾼과 소먹이는 아이들이 없을 것이다。

【주(註)】

①학재(學齋): 모여서 배우고 강의하고 토론하는 집。

②덕성(德性): 어질고 후한 성품。

천옹선생문집권지삼 종

喘翁先生文集卷之三 終

跋발文문

책의 끝에 그 책에 관하여 적은 글

百백弗불庵암崔최先선生생之지世세凡범篤독學학躬궁行행之지士사多다出출其기門문今금於어喘천翁옹先선生생崔최公공遺유集집亦역有유所소不불問문而이知지者자矣의蓋개公공以이拔발俗속之지姿자聰총穎영之지才재早조事사爲위己기之지學학又우該해洽흡百백家가之지書서於어六육經경而이有유釋석義의四사子자而이有유辨변疑의理리學학而이有유撮촬要요心심近근而이有유標표識식以이至지字자類류也야類류輯집也야謾만錄록箚차記기諸제篇편不불惟유文문章장大대筆필之지爲위一일世세所소慕모其기八팔十십年년主주敬경窮궁理리之지工공有유足족以이扶부世세道도而이牑변後후學학矣의何하其기韙위哉재噫희以이公공之지才재之지德덕旣기不불得득見견施시於어當당世세只지用용之지躬궁而이發발諸제言언則즉斯사可가以이不불朽후於어來래後후而이散산佚일殆태盡진存존者자無무幾기是시可가慨개也야已이曾증孫손國국述술懼구夫부其기愈유久구而이愈유泯민方방掇철拾습若약干간付부諸제剞기劂궐謁알余여識지其기後후余여固고非비其기人인然연顧고平평日일景경仰앙之지地지有유

不敢終辭者玆忘僭敬書如右通訓大夫前行弘文館副校理知製教
불감종사자자망참경서여우통훈대부전행홍문관부교리지제교

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西學教授驪江李中久謹跋
겸경연시독관춘추관기주관서학교수여강이중구근발

백불암(百弗庵) 최선생(崔先生)의 세대(世代)에 무릇 독실하게 학문(學問)을 닦고 몸소 실행하는 선비들이 선생 밑에서 많이 나왔으니 오늘의 천옹(喘翁)선생 최공(崔公)의 유집(遺集)①도 또한 묻지 않아도 알게 될 것이다。

대개 公은 빼어난 자세와 총명한 재주로 일찍 학문(學問)하는 것을 일로 삼고 또 널리 여러 학자(學者)들의 저서(著書)에 능통하며 사자(四子)②에는 변의(辨疑)가 있고 이학(理學)에는 촬요(撮要)가 있고 심경(心經)과 근사록(近思錄)에는 요점(要點)을 뽑아서 표식한 것이 있었으며 옥편(玉篇)같은 것과 종류대로 편집한 것과 만록(謾錄)③과 차기(箚記)④ 등 여러 책자는 문장(文章)과 명필(名筆)이 온 세상이 사모하게 될 뿐 아니라 그 팔십(八十) 평생(平生)을 경(敬)을 주로 하여 이(理)를 궁리하는 공부가 세상의 도리(道理)를 붙들며 후배(後輩) 학자(學者)들을 인도하였다。 어째서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아! 슬프다。 공의 재조(才操)와 덕(德)으로 이미 그 시대에 실시함을 보지 못하고 다만 내 몸에 사용하고 말로만 발표하는 것은 이것이 가히 이후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거의 흩어지고 없어져 남아있는 것도 몇 가지 밖에 없으니 이것이 가히 애석한 일이다。 증손(曾孫)인 국술(國述)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마저 오래되면 없어질까 걱정이 되어 이제 약간을 거두어 모아 나무판에 새기도록 부탁하고 나에게 찾아와서 발문을 써 달라고 하나 나는 그러한 사람이 못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돌아다보니 평소 덕을 기리며 숭배하던 처지라 감히 끝내 사양하지 못하고 분수에 맞지 않게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삼가이 글을 썼다。

통훈대부(通訓大夫)⑤ 전행(前行)⑥ 홍문관부교리(弘文館⑦副校理)⑧ 지제교(知製敎)⑨ 겸(兼) 경연시독관(經筵試讀官)⑩ 춘추관기주관(春秋館⑪記注官)⑫ 서학교수(西學敎授)⑬인 여강 이중구(驪江 李中久)는 삼가 발문(跋文)을 쓰다。

【주(註)】

①유집(遺集) : 남겨 놓은 글 모음。

②사자(四子) :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대학(大學)。

③만록(漫錄) : 붓 가는대로 쓴 글。

④차기(箚記) : 독서를 하면서 그때그때 요점을 적어 놓은 글。

⑤통훈대부(通訓大夫) : 정삼품(正三品)의 당하관(堂下官)인 문관(文官)。

⑥전행(前行) : 높은 품계(品階)에서 낮은 품계(品階)의 직책(職責)을 전(前)에 가졌음。

⑦홍문관(弘文館) : 궁중(宮中)의 경서(經書) 사적(事蹟) 문서(文書)를 관리하고 왕을 자문하는 관청。

⑧부교리(副校理) : 종오품(從五品)의 벼슬。

⑨지제교(知製敎) : 왕이 반포하던 교서(敎書)의 글을 짓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⑩경연시독관(經筵試讀官) : 왕이 학문을 닦기 위하여 신하들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궁중에 불러 경사(經史)를 강론하는 일。

⑪춘추관(春秋館) : 나라의 정치 기록을 맡은 관청。

⑫기주관(記注官) : 조선조 때 춘추관(春秋館)의 오품(五品) 벼슬。

⑬서학교수(西學敎授) : 선비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서울의 네 곳에 세운 학교。 중학(中學) 동학(東學) 남학(南學) 서학(西學)의 교수。

凡범爲위文문而이無무補보於어世세教교則칙雖수連연篇편累루牘독終종歸귀於어泯민沒몰若약有유補보於어世세教교則칙雖수片편言언隻척字자終종有유所소不불朽후者자在재也야惟유我아喘천翁옹府부君군以이近근道도之지姿자穎영脫탈之지才재早조從종事사於어師사門문屢누蒙몽奬장詡후期기以이遠원大대六육經경註주解해四사子자疑의義의與여夫부百백家가同동異이無무不불融융貫관博박涉섭而이文문章장大대筆필特특公공餘여事사得득之지不부得득初초不부足족論론主주敬경之지工공窮궁理리之지學학已이有유當당時시賢현人인君군子자之지所소共공推추重중矣의志지操조堅견潔결德덕性성渾혼厚후面면背배粹수盎앙八팔十십年년完완養양靜정攝섭巋규然연爲위林림下하儒유宗종而이與여從종氏씨蠹두窩와公공秉병拂불南남北북作작成성人인材재是시必필有유明명理리之지書서論론道도之지篇편不불爲위不부多다而이世세代대寖침遠원家가勢세多다故고水수火화之지難난保보無무也야虫충鼠서之지不불能능免면也야收수拾습斷단爛란僅근得득若약干간篇편此차乃내泰태山산之지一일毫호芒망雖수若약可가恨한然연片편臠련而이知지全전鼎정一일羽우而이驗험渾혼體체後후之지善선讀독者자翫완索색而이有유得득焉언則즉亦역未미必필無무補보於어世세教교云운爾이再재從종曾증孫손著시述술謹근識지

대개 글을 하면서 세상의 풍습을 잘 가르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비록 책이 여러 권 된다고 하여도 결국은 없어지고 마는데 세상 풍습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있다면 비록 반 조각 말이나 글자라도 끝끝내 썩어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생각하건데 우리 천옹(喘翁)어른은 도(道)에 가까운 자세로 재주가 특출해서 일찍이 선생의 문하에서 따르고 배우면서 여러 번 칭찬을 받아 기대가 매우 컸으며 육경(六經)의 주해(註解)와 사서(四書)의 글 뜻 중에 의심나는 것을 밝히는 동시에 여러 학자(學者)들이 만든 책의 같은 점과 다른 점 등 온갖 책을 많이 읽어보아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였고 공은 특히 문장과 글씨는 여가에 하는 일로 여겨서 언고 언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논할 바 아니고 주(主)로 경(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理)에 대한 학문(學問)을 연구하는 것은 이미 당시의 현인(賢人) 군자(君子)들이 다같이 높이 받들고 귀중하게 여겼던 바이다.

지조(志操)가 굳세고 깨끗하며 성격은 온후하고 안면과 등은 순수하고 풍성하여 팔십평생을 완전하게 수양하고 조용하게 몸조심 하여 우뚝하니 임하(林下)①의 선비들이 우러러 보는 큰 학자가 되었으며 종씨(從氏)두와

공(蠹窩公)과 같이 남북으로 오가며 인재를 양성하였으니 이것은 이(理)를 밝히는 글과 도(道)를 논하는 책들이 적지 않을 것이나 세대(世代)가 바뀌어 점점 멀어져가고 집안 형편도 사고가 많아 물이나 불의 재난에 보존할 수가 없으며 벌레나 쥐들의 피해를 능히 면하지 못하였다。 끊어지고 부패되어 가는 것을 거두어 모아 책 약간을 얻으니 이는 비록 태산에 한 가닥 작은 털끝에 불과하여 가히 후회스러우나 한 조각 고기살점으로 한 솥의 국 맛을 알고 한 개의 나래로서 전체를 경험할 수 있으니 뒤에 잘 읽어본 사람이 글의 뜻을 생각하여 찾아 소득이 있다면 또 반드시 세상의 풍습을 잘 교화시켜 도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재종(再從)증손(曾孫) 시술(蓍述)이 삼가 기록함。

【주(註)】

①임하(林下):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숨어 삶。

喘翁先生文集(천옹선생문집) 終(종)

後(후) 記(기)

내가 어릴 때부터 저녁을 먹은 후 사랑방에서 할아버지 곁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우리 집은 대대로 큰 벼슬은 없었으나 글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저렇게 잠이 많아서야 어떻게 글을 하겠나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어제와 같이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간에 서가에 비치된 천옹(喘翁)선생의 문집 원문을 보니 어려움이 너무 많아 공부하지 않고 지난날을 허송하게 된 것을 후회하고 있던 차에 선생의 문집을 국역한다함에 기쁘기 한량없었습니다。 특히 선생께서는 나의 九대조이신 백불암(百弗庵) 선조를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서 모신 분이기에 선생의 글을 통하여 백불암(百弗庵) 할아버지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는 것 같아 더욱 감명이 깊었습니다。 선생께서는 타고난 재주로 학문을 일찍 이루었으나 평생도록 책을 가까이 하시어 그 학문의 깊이는 그때 선비들이 추종하는 바였으며 이는 서문을 쓰신 晦堂(張錫英)께서도 선생의 글을 읽는 사람은 그 글로 인하여 그 마음을 얻는다면 선생의 글이 장차 이 세상에서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천식으로 고생하셨는데도 천명(天命)이라 순응하시고 스스로 호(自號)를 천옹(喘翁)이라 지으신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일찍이 나의 六대조이신 지헌(止軒) 할아버지 재세(在世)시에 목판(木板)을 제작하여 문집을 펴냈으나 그 양이 많지 않고 또 한문이 잊혀져가는 시대인지라 이번 본가인 최상미양 집에서 국역하여 이 문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널리 보급코자 한다며 천학비재한 나에게 후기(後記)를 부탁하기에 굳이 사양하였으나 나의 구(九)대조 백불암(百弗庵) 할아버지의 고제(高第)이신 선생의 문집(文集)이라 경망됨을 무릅쓰고 졸문을 쓰게 되어 부끄럽기 한량없습니다。

甲申年 暮春에

大邱 漆溪 百弗庵先生 宗宅에서 崔晉惇 記

後(후)記(기)

이 책은 저의 六대조이신 천옹(喘翁) 할아버지의 글로 시、편지、제문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문집은 목판본으로 이미 여러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오래된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자를 읽을 줄 모르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의 세대、우매한 저한테만큼은 말입니다。

책의 진정한 역할은 그 내용의 온전한 유지와 시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번역 역시 완전한 그대로의 의미 전달에 무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사용하는 「글」이 달라졌기에 감수해야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는 한문으로 된 글을 그 시대의 언어로 번역한다 할지라도 더 많은 의미의 손실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의 六대조 할아버지의 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혈연관계를 뛰어넘어 수 백년의 시간차를 넘어서 그 분과 우리가 더욱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다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의 일상과 생각、 느낌을 고스란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이것이 이 번역본이 가지는 가장 큰 가치요 의미가 아니겠는지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후손들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번역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五代宗孫 鐸敎)께서 집안의 장래에 대해 걱정하시면서 이 일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옻골 종가와 집안의 어르신 분들、 특히 계정 어르신의 도움과 수고하심이 없었더라면 이 책의 출판은 불가능했을 것이기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옻골 종가에는 이 책의 목판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옻골에서 목판을 보관하지 않으셨다면 이 책의 존재 자체가 없었을 것이기에 늦었지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초기 번역 작업에 특히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작업 끝까지 애정을 보

여주신 저의 외할아버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출판을 담당해 주시고 여러 도움을 주신 대보사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조영환、유달선、정동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훗날 이 번역본이 가문의 면면에 흐르는、오래되고 동시에 소중한 우리의 정신이 되었으면 합니다。

二〇〇四年 甲申 六月 六代孫 尚美

瑛允 鐘旭 銀星 鍾炅 鍾賢 星慧 恩英 鐘浩 鐘元 佳英 鐘仁